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8월 2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3 1994~2016 제1167호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정론직필〉 향한 23년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이 23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사는 우리 사회 곳곳의 이웃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 없는 후원으로 2017년에는 신사옥 마련과 함께 제2의 창간을 꿈꾸게 됐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뛴 결과 팩트체크 QnA, 만다라 등 사회변화에 맞는 섹션을 운영하고 각종 기획기사로 2017년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영등포 쪽방촌 등 소외계층, 외국인 학생 존리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자비실천에도 앞장섰습니다. 창간 특별 타이포그래피 '정론직필 23년'에는 각 글자마다 2017년 한해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가슴 따뜻한 소식, 그리고 깨어있는 식견을 전한 사부대중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 정법에 따라 신심을 증장하는 감동있는 뉴스, 불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사로 찾아가겠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드림.

'불교 · 전문성' 높일 호스피스 교육 시급

연명의료법 시행 앞둔 불교호스피스 과제는?

불교호스피스 수요 증가 예상
영적돌봄 기독교 개념 도입
가톨릭계 표준교육 소화

교육 산발, 낮은 전문성 문제
"일반병원서 전문가로 안돼"
실습 인프라 부족해 이중고

표준교육화 승려교육 반영
효과성 검증 작업 지속해야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하 연명의료법) 전면 시행으로 호스피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불교계는 불교호스피스 표준교육조차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 차원 표준교육안 마련과 관련 단체들의 불교호스피스 용어 정리 등 기초작업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연명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발표한데 이어 2018년 2월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기관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전면시행을 예고했다. 연명의료법 시행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말기 암환자에 한해 호스피스 대상을 국한한데서 에이즈, 만성 간경화 등으로 호스피스 허용 분야를 넓혔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10월 서울대 의대와 국립암센터가 15개 종합병원 의사 · 환자 및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73.3%와 의사 98.7%가 호스피스를 이용 ·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작 호스피스 현장에서 불교 전문가는 극소수다. 호스피스에는 전문의와 복지사, 간호인력, 종교인으로 구성된 전문인력팀이 투입된다. 그중 핵심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이른바 '영적돌봄'을 행하는 종교인이다. 현재 이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60시간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교육(CP)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실 마하보디교육원 실장은 "영적돌봄 자체가 의료차원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사실상 기독교 개념이 강하다. CP과정 대부분이 가톨릭계 교육과정"이라며 "현재 협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등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표준교육은 없는 상황이다. 먼저 영적돌봄 개념부터 불교사상에 근간해 정립하고 추후 공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준교육의 미비는 산별적인 교육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로 이어진다. 현장 전문가들은 일반병원에서 전문가로 선호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화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적돌봄가 자우 스님은 "스님들이 현재 불교계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도 호스피스 병원과 연결되기 어렵다"며 "종립병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으로도 진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교호스피스협회에 따르면 불교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스님들은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33명으로 최근 3년간 100명에 가깝게 배출됐다. 하지만 현재 일선 병원서 영적돌봄가로 활동 중인 스님들은 단 11명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스님들을 전문가로 신뢰하지 않는다. 일반병원의 경우 여러 종교의 영적돌봄을 파악하고 의료진과 의학용어로 소통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말했다.

건국대 마취의학과 교수인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본부장은 "종립병원에서 실습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가톨릭계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불교계는 오히려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가정호스피스 등 새롭게 떠오르는 호스피스 분야의 경우 이런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기에 교육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교수는 "불교심리상담 등 이론을 반영한 불교호스피스 표준교육안을 마련하고, 종립병원, 대학을 중심으로 실습과정을 확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또 불교호스피스의 효과성을 안팎에 알리는 작업도 지속 진행돼야 한다"며 "종단 승려교육에 이를 반영하고, 재가자 호스피스 전문가인 '애도상담 전문가'도 양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 능행 스님은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분노, 증오 등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심적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이 호스피스지만 단순한 간병으로 생각한다. 협회 뿐만이 아니라 유관단체가 한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측은 "신년 병원전법단을 비롯해 불교호스피스 유관 단체들이 한 데 모여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10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죽음, 청춘이 묻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호스피스 교육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052)255-8530

노덕현 · 박진형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운동 본격 돌입

후보 4인 전원 자격심사 통과… 선거인단 선출 마무리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자격심사가 끝남에 따라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9월 25일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4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후보 전원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일인 26일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종책을 홍보하고, 선거인단에 지지를 호소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후보는 기호4번 원학 스님. 스님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문화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같은 날 오후 기호1번 설정 스님은 '신심 · 원력 · 공심'을 강조하며 "새로운 한국불교, 교구서 시작된다"는 교구중심제를 다짐했다.

이어 기호3번 혜총 스님은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부대중 중심에 있겠다"면서 처음과 중간, 끝 모두 존경 받는 승단을 이룩할 것을 강조했다. 기호2번 수불 스님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1천만 불자 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수행 · 전법 중심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한편 전국 24개 교구본사는 10월 1일까지 각 교구종회를 통해 선거인단 선출을 마무리한다**(9월 28일 기준)**. 선거인명부는 10월 9일 확정되며, 선거운동은 11일까지 이어진다. 투표는 12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불교문화예술공연장서 진행된다.

〈관련특집 A7~A11〉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인애 · 화합 바탕, 종단 위상 높이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취임 일성… 대사면 선언도

9월 29일 법륜사서 취임법회

한국불교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9월 28일 종로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공식 취임했다.

편백운 스님의 취임일성은 명쾌했다. 화합을 토대로 내분으로 실추된 종단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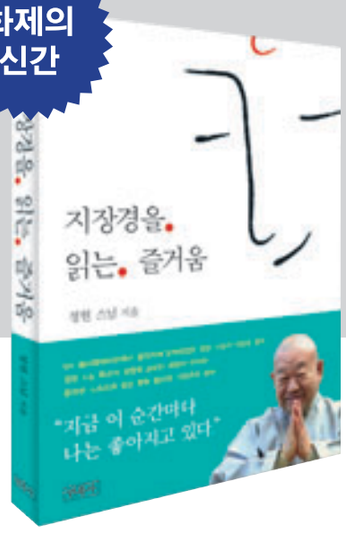
편백운 스님은 "대승적 화쟁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종단이 재도약하여 과거 영광과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법란 이후 불가피 하게 종단을 떠나있거나 제약을 받는 모든 종도에게 문호를 개방해 종도 지위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유시를 통해 대사면을 선언했다. 이날 취임법회는 이례적으로 전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이날 편백운 스님은 선암사 소유권 분쟁 중인 조계종에 대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태고총림 선암사는 굳건히 지키겠으며 불교법란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창간 23주년 특집호 A·B 48면 발행 | 선지식에게 듣는다 현해 스님 A5 | 특집 · 佛敎 & Sports A14~17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KYOBO 교보문고 종교베스트 2위
YES24.COM 종교베스트 3위

정현 스님 지음 / 변형신국판 328쪽 / 값 16,500원

"지금 이 순간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BTN(불교텔레비전)에서 절찬리에 방영되었던 정현 스님의 지장경 강의
정현 스님 특유의 생명력 넘치는 희망의 언어로 쓴 지장경의 세계!

지장경을. 읽는. 즐거움

정해진 업도 소멸시켜 지옥을 극락으로 변화시키는 신통 묘용의 지장경!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설악무산 (雪嶽霧山) 큰스님 추천사

"지장보살의 대비구제 원력을 앞장서 실천하는 스님이 있다. '한국의 지장도량'으로 유명한 철원 심원사 정현 스님이다.

이 책은 정현스님 불교TV에서 강의한 거룩하고 훌륭한 설법을 엮은 것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입에서는 향기가 나고 귀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찌 기쁜 마음으로 찬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계좌 농협 053-02-109450 윤재승(민족사)

※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⑫ 행복의 문법

여러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선

삼청동 법련사는 법정 스님이 서울에 오시면 머무르던 절이었다. 스님은 민폐라며 신도 집에 머물지 않았다. 그러니 법정 스님과 볼 일이 있는 일간지 기자나 나 같은 출판사 담당자들은 법련사로 가서 스님을 뵀다. 그때의 법련사는 지금과 같은 현대식 건물이 아닌 한옥의 정겨운 느낌이 드는 절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스님께서 파리에 길상사를 창건하려고 동분서주하고 계실 때였다. 스님께서 연락을 주시어 나는 법련사로 갔다. 조그만 방에는 스님과 여장부 같은 분위기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스님의 담당기자인 J일보의 문화부장은 보이지 않았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

"파리에 가보니 절이 하나 없어요. 유학생도 많고 교포도 제법 되는데 마음을 의지할 만한 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나 짓기로 하고 유럽의 수도원을 돌아봤어요."

스님께서는 불자는 물론이고 종교가 다른 유학생들에게도 개방하여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절이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절을 짓는데 드는 경비가 문제였다. 스님은 원고료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시작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많은 경비는 현실적인 난제였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자 분이 말했다.

"제가 벽돌 한 장 값부터 절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다 희사하겠습니다. 스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절을 짓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짓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 사람들에게 길상사가 내 집 같을 것입니다."

"아, 스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 나는 파리 길상사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스님께서 그런 일까지 내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파리를 가게 된다면 길상사에 묵으라고 권유하셔서 절이 예정대로 창건됐나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길상사 창건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스님이 돌아가신 지 7년째가 되는 최근에야 알았다.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시는 재불 화가 방혜자 화백께서 내가 사는 산방으로 찾아와 길상사 창건 일화를 들려주셨던 것이다.



일러스트 · 정윤경

방혜자 화백께서는 스님의 원고료에다 파리에 거주하는 불자들의 보시는 물론이고 자신의 그림을 팔아 길상사 창건 작업을 도왔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전해주셨다. 그 여자 분이 길상사를 지어주었더라면 선뜻 마음을 낸 파리에 거주하는 분들의 걱정과 고생은 면했을 터. 그런데 스님은 왜 사양했을까. 불가에는 자작자수(自作自受)란 말이 있다. 행복이란 스스로 지은 만큼 스스로 받는다는 말이다. 불행도 마찬가지이리라. 스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가야 할 행복이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을 경계하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공짜를 좋아하는 세상에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이러한 '행복의 문법'까지 가르쳐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은퇴출가' 등 내년도 시행 종법 뼈대 갖춰

조계종, 은퇴출가 ·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법 제 · 개정을 통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조계종 은퇴출가특별법과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새롭게 적용될 종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은퇴출가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및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9월 25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은퇴출가자도 소임을

먼저 올해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은퇴출가특별법 시행령은 은퇴출가자의 행자등록 및 퇴사, 수계, 승적관리,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를 희망하는 자는 행자등록 신고서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갖춰 교구본사에 신청해야 한다. 교구본사주지는 은퇴출가 심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 은퇴출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교육원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원은 이에 대해 교육기록을 관리한다. 또한 노후복지만을 위한 출가를 예방하고자 은퇴출가자가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로 등록돼 있어야 함을 명시했다.

은퇴출가 행자는 교구본사 또는 교구본사주지가 위탁 지정한 수행사찰에서만 생활할 수 있다. 삭발하고 1년 이상

은퇴출가자 건강보험 必
교육원 정기교육 받아야
해외교구 월 1회 종무회의
예고기간 10월 14일까지

행자생활을 해야 하며, 의제는 일반 행자와 같다. 6개월이 경과하면 교구본사 주지가 수계여부를 확인하고, 수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특히 교육원은 은퇴출가 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 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류 및 면접갈마 △신체갈마 △실기 및 고사 등을 실시하며, 비구 · 비구니계 수계는 신체갈마가 제외된다. 또 은퇴출가 행자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지만 사승의 사망이나 퇴속 등으로 인해 승려 분한을 상실했을 때 다른 사승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재적본사 이적은 가능하다.

이외에도 종단은 견덕 · 계덕 법계 품서 때 은퇴출가 비구와 비구니에게 동일한 법계를 품서하며, 수행사찰 주지는 은퇴출가 승려에게 전법교화활동 및 사찰종무행정 보조역할 소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특별교구 국내 설치

한편 해외에 설립된 해외특별교구를 국내에 설치하고, 별도의 해외지회를 두도록 한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해외지회 설립절차, 해외지회장 선출방법, 해외사찰 등록 및 주지품신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특별교구는 해외포교를 통할해 지원 관리하는 교구로 국내에 설치한다. 교구 종무를 위해 종무기구를 설치,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종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해외사찰 설립자 또는 대표자는 해외지회를 경유해 교구에 신청해야 하고, 해외지회가 없는 경우 교구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주지 또는 대표자 자격은 종무원법 및 본 · 말사주지 인사규정에 의한 말사 주지 자격을 준용하지만 해외교구서 품신하고 종무회의서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해외지회 설립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해외지회장 선출은 해당지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 소집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히 회의소집의 어려움을 감안해 우편 및 온라인 투표 등의 방법도 가능케 했다. 이밖에 해외파견승 자격과 기준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승려분한신고와 결계등록을 필한 자로서 해외포교에 원력을 지닌 자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14일까지며, 의견수렴 방법은 서면과 이메일(hyunju@buddhism.or.kr), 팩스(02-720-3302) 등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해인총림 50년, 세계유산 가치 · 활용 살핀다

해인사, 10월 10일 학술세미나

해인총림 개설 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치와 활용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향적)는 오는 10월 10일 오후 1시 해인사 보경당에서 '해인총림 개설 50주년 기념 및 유네스코 등재유산 활용과 가치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인총림 개설 50주년'을 주제로 해인사 선원장 효담 스님의 '소림선원 나아갈 방향' 발제를 시작으로 해인율학승가대학원장 서봉 스님의 '해인총림 50년 율원과 계단의 현황과 전망', 해인승가대학장 무애 스님의 '해인총림 50년 승가대학 교육의 회고와 전망'이 1부에 발표된다.

2부는 '유네스코 등재유산 활용과 가치'를 주제로 진행되며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려팔만대장경판 서지학적 고찰 및 활용 방안'을, 최연주 동의대 교수가 '해인사 유네스코등재유산 문화컨텐츠 활용방안'을,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고려팔만대장경판 보존관리 방안', 이혜은 종교제의유산위원장이 '해외사례를 통해본 장경판전의 활용방안'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 국장급 인사 단행

포교-노휴 · 신도-혜안 스님 등



왼쪽부터 노휴 · 지홍 · 원묵 · 혜안 스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25일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포교국장 노휴 스님, 신도국장 혜안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원묵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포교국장 노휴 스님은 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송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신도국장 혜안 스님은 대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용주사에서 송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으며 2000년 송광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원묵 스님은 도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1년 3월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7년 4월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박아름 기자

진관사 계호 스님, 사찰음식 명장 위촉

조계종, 9월 26일 위촉장 수여식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이 사찰음식 명장으로 위촉됐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계호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찰음식 명장은 사찰음식의 전승과 보존, 대중화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승납 3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계호 스님의 사찰음식 명장 위촉은 지난 9월 21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선재스님에 이어 2번째다. 계호 스님은 사찰음식으로 널리 알려진 진관사 주지이자 진관사산사음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0년 대구에서 열린 불교아카데미 사찰음식 강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공양주, 지역민, 교사, 가족 등 각계각층에게 교육을 펼쳐 왔다.

계호 스님은 특히 국내를 대표해 사찰음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계호 스님은 2010년 G20세계종교지도자, 2011년 가든클럽(외국 대사부인), 2013년 한반도 평화기원 주한외국대사, 2016년 프랑스 국무장관 초청 등 행사에서 사찰음식 만찬을 진행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의 개인 요리사이자 백악관 前 주방장 샘 카스와 뉴욕 미쉐린 3스타 에릭 리퍼트 셰프, 세계 톱3로 꼽히는 덴마크 르네 레드제피 셰프 등에게 사찰음식 조리법을 전수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스티브 힉맨 박사 특강

10월 13일 'MSC 수행' 주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서 '자기연민(MSC) 수행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는 주제로 스티브 힉맨 박사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10월 14~19일 힉맨 박사와 서광 스님이 공동 지도하는 MSC워크숍을 경주 황룡원서 실시한다.

스티브 힉맨 박사는 샌디에이고대학(UCSD) 정신의학과 가족예방의학부 임상 부교수로서 UCSD 통합의료 집행위원회 디렉터이자 2002년 UCSD 마음챙김센터 설립자다.

윤호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 총무원장 석 도 선
고 문 석 암 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정부원장 석화담 승 정 석혜암 석대원
원로원장 석법령 원로부원장 석일우 원로위원 석경봉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광운 석법산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의전자문위원장 석명구
무형문화재제9호범음범패 의 산 장 석도암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보광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호법부장 석성보 감찰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청암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성담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성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사회국장 석원각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비구니회회장 석혜담 부 회 장 석효성 부 장 석지현 국 장 석충효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안산중앙종무원장 석덕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종단법인 운영이사 이 사 장 도선 수석이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운영이사 청강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수선화 성덕 의공 학산 법광 혜림 혜화 심공 법수
종단전국여성신도회회장 수선화(정순옥)

■ 종단법률자문위원 변호사 : (明眞)김진우 | 법무사 : (雲虛)이익렬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 도 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 회 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원명화 (윤영아)

■ 종립종합예술원
회 장 묘 각 (이재인)
부 회 장 보연화 (유희연)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 혜 부산부장 혜 성 경남국장 성 광
울산원장 법 광 경기부장 자 운 사업국장 정 명
경북원장 성 인 전남부장 혜 명 사천국장 정 법
법사원장 목 암 구미부장 혜 진
충북부장 상 학 대구부장 혜 련

포교국장 덕 운 통영국장 덕 인 삼척국장 혜 원
종무국장 도 연 포교국장 혜 림 영천국장 원 명
서울국장 명 덕 봉화국장 혜 정 통역국장 정 연
포교국장 청 운 화순국장 보 정

봉 창종 15주년 기념 대법회 축
일시 : 2017년 11월 11일 (오전 : 법회 / 오후 : 유명연예인 초청 산사음악회)
장소 : 총본산 관법사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초기불교·간화선 통합명상 '禪定' 이끈다

참불선원 각산 스님, 10월 26~29일 명상힐링캠프

세계명상수행승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이 초기불교와 간화선을 접목한 3박4일 대규모 통합명상 집중수행캠프를 연다.

참불선원과 BBS불교방송은 10월 26~29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서 '세계명상수행승 각산 스님의 명상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캠프는 2600년 전 붓다가 행했던 성불명상법인 초기불교 수행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인 간화선의 통합수행을 체험하는 자리로, 선착순 모집한 500명의 대중이 함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캠프는 26일 오후 만해마을에 도착해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입재 및 기조법문으로 시작된다. 27일부터는 △예불 및 명상실참 △수행지도 및 법문 △즉문즉설 등이 3일간 쉴 새 없이 이어진다. 이 자리서 각산 스님은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명상을 지도하고, 참가자들을 깊은 통찰의 세계로 이끌 계획이다. 또한 수행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수행기간동안 묵언명상이 진행되며 휴대폰·음주·흡연이 금지된다. 아울러 귀걸이와 반지 등 귀금속 착용을 비롯해 짙은 화장과 향수 사용도 불가능하다.

각산 스님은 "현재는 과거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나타난 결과이고, 괴로움은 괴로움이 생겨난 자리에서 소멸한다. 욕심이 나를 가로막을 때, 화가 날 때, 삶이 힘겨울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수행해야 한다"며 "국에 국자가 담겨 있어도 국자는 국 맛을 모른다. 이처럼 머리로 풀이한 것과 몸으로 익힌 것은 다르기에 참선만이 욕망과 존재, 미혹으로부터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캠프 참가인원은 선착순 500명이며, 참가비는 9만원(숙식비 19만원 별도 신청)이다. 캠프 참가자는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명상지도사 이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참불선원 및 BBS불교방송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1577-3696

윤호섭 기자



만해마을서 집중수행
500여 명 선착순 모집

'조각보' 만들 듯 종교공존을

종교개혁 500년·원효 탄생 1400년
손원영 교수 등 종교평화예술제 연다

훼불행위로 파손된 법당을 돕기 위해 모연에 나섰다가 소속 대학에서 파면 처분을 당한 손원영 서울기독대 신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종교공존을 위한 평화예술제를 연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과 원효대사 탄생 1400주년을 맞아 각 교단과의 연계 없이 풀뿌리 종교평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한다는 복안이다.

손원영 교수 불법파면 시민대책위원회와 (사)한국영성예술협회, 마지 아카데미는 10월 13~14일 서울 경동교회와 정법사에서 이 같은 주제로 종교평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첫날 오후 2시에는 경동교회 장공채플서 '종교개혁을 함께 생각한다'는 주제로 각 교계 학자들이 루터·원효에 대해 개혁을 논한다. 불교계서 이도흠(한양대)·이찬훈(인제대)·박병기(한국교원대) 교수가, 기독교계서 이정배(현장아카데미)·백소영(이화여대)·황경훈(가톨릭 우리신학연구소) 박사가 참여한다. 사회는 이찬수 서울대 교수가 맡으며,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이 축사를 한다.

둘째 날 오후 2시 정법사 마당에서는 '종교평화 콘서트'가 열린다. 연출은 조성진 한국영성예술협회 예술감독이 맡으며, 종교색채를 최대한 배제한 공연으로 종교 공존의 의미를 전할 계획이다. 범패로 공연이 시작되며 조각보 춤과 퍼포먼스, 패치워킹 댄스 등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조 감독이 선보이는 몸짓 '원앙부인의 꽃밭'은 월인석보에 나오는 '원앙부인 본풀이'를 모티브로 해 무속·불교·기독교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9월 28일 기자간담회서 손원영 교수는 "루터와 원효대사 두 분의 공통점은 개혁가라는 점이다. 한국기독교와 불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지만 후학들이 서로를 배울 기회가 없는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다"며 "교단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웃종교와의 우정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종교평화예술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왼쪽부터 조성진 예술감독, 김현진 마지 대표, 손원영 교수, 오범석 시민대책위 총무.

13~14일 경동교회·정법사
'개혁' 주제 학술토론회와
평화콘서트로 화합 강조

소속 대학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그가 이 같은 예술제를 준비한 이유는 또다시 '종교평화'였다. 손 교수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투쟁이라도 하면서 항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하지만 그건 종교평화를 위한 일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해결방법도 가능하면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예술에 관심이 많고, 이를 통해 종교문제를 공론화해 시민들에게 공존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성진 감독은 머리만이 아닌 몸을 통한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감독은 "종교평화를 머리나 말로만 하면 되레 갈라지기 쉽다. 하지만 춤과 같이 몸으로 나누면 배타적인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인정하기 힘들다면 혐오는 하지 말자. 몸으로 느껴 함께 살 수 있는 이웃이라는 걸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술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주최 측은 예술제를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매년 열어 서로의 종교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별도의 소셜펀딩을 통해 종교공존을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고, 펀딩 참가자를 위한 리워딩 공연도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진 마지아카데미 대표는 "불교와 기독교라는 카테고리보다는 종교가 어떻게 대중과 살아갈 것인지 화두를 던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종교 각각의 색깔을 잃지 않은 채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함께 즐기는 놀이로 승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와대 미남불 환지본처, 보존 환경 조성부터

조계종, 9월 25일 입장문 발표… 정부에 공문 발송도

본래 자리서 성보 가치 빛나
"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달라"
혜문 "신앙보단 문화재로 봐야"



일본 데라우치 총독에 의해 경주를 떠나 청와대로 흘러간 석조여래좌상〈사진〉에 대해 조계종이 "무작정 옮기는 것보다 보존·신앙 환경 조성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대변인 정문 스님과 문화부장 정현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9월 25일 발표하고 일부 시민단체들 주장이 불교계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최근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와 경주지역 문화·시민단체는 불교계 및 관련 학계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청와대 불상의 경주 이전에 관한 일방적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서 "종단은 모든 불교문화재가 조성된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종교성과 역사성을 간직한 문화재로 잘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 석조여래좌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문화재청·서울시청에 보낸 공문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불교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보존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며, 청와대 석조여래좌상의 신앙적 환경 조성을 위해 원래의 자리로 이전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학계에서는 청와대 불상의 제자리를 놓고 경주 남산이라는 의견과 도지동에 있었던 사찰 이거사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재시민사회단체 측은 이전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문화재 당국은 단 한차례의 진지한 논의의 장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경주지역의 문화·시민단체들은 불교계의 입장을 왜곡하면서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해 관계 기관의 조속한 논의와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 당국자들의 각성과 진지한 접근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계종의 입장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옮겨진 출처 미상의 불상이기 때문에 신앙 차원보다는 문화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혜문 대표는 "청와대 불상이 옮겨진 것은 1~2년 전 일이 아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이운된 것은 하루 속히 경주로 이운해 문화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폐사 위기 스님들, 사찰수호연합회 발족

9월 25일 조계사 앞에서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범종단의 통일된 목소리로 대오를 형성해 끝까지 정진할 것입니다. 수행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하는 이를 더 이상 목도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개발 공사로 수행환경 피해를 받고 있는 사찰 10곳으로 구성된 전국사찰수호연합회(회장 청호, 이하 전수련)는 9월 25일 공식 발대식에서 "각종 개발로 인한 사찰의 강제 수용과 수행환경 침해로 인해 폐사 지경에 이른 사찰들도 있다"면서 "정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향적 검토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이들 사찰들은 아파트, 도로 등 개발공사로 소음 및 분진 피해를 비롯한 수행환경 침해를 받고 있으며, 심한 곳은 폐사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특히 수도사·심택사 등 문화재 보유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행환경 침해에 대한 직간접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한편, 토지보상법의 강제수용 제도를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련은 "현 토지보상법은 사찰의 종교 및 문화적 대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 형식요건만 갖추면 강제수용 할 수 있다는데 근본 문제가 있다"면서 "일반토지와 건축물과 달리 종교단체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보상법이 규정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보상책도 개선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전수련은 "종교단체의 가장 큰 자산은 구성원인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에는 강제수영에 따른 재적신도 감소 혹은 이탈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전무하다"면서 "운영손실 보상규정을 신설, 보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수련에는 광주 수도사, 삼척 안정사, 대구연경지구 대원사, 영등포 해인사, 은평 심택사, 양산 원각사, 하남 대원사, 대전 극락정사, 진천 원각사, 칠곡 화성사가 포함돼 있다. 박아름 기자



일 주 문



추석맞이 자비나눔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스님은 9월 24일 서울 현성정사에서 서대문구 독거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추석맞이 자비의쌀을 전달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혜총 前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이 '제38회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을 9월 26일 수상했다.

조계종 복지재단, 집단 상담교육 실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스님대상 가족 상담교육'을 9월 22~24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스님대상 가족 상담교육'은 신도들의 올바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스님들을 대상으로 상담기법을 교육하는 내용이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사찰에서 신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스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만화 스님 시봉이야기 출판 법회



평창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은 9월 25일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萬化) 희찬(喜讚) 스님 시봉이야기' 출판 법회를 서울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에서 거행했다. 이날 출판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등 한마음선원 스님 및 신도들과 월정사 신도, 함종한 · 김진선 전 강원지사, 소설가 조정래 씨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책은 원행 스님이 은사인 만화 희찬 스님의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월정사 대웅전 중창과 적광전 신축 불사를 비롯해, 1980년 10 · 27 법난과 월정사와 대한항공의 인연 등을 시봉하며 기록한 것이다.

원행 스님은 "만화 희찬 대선사의 일생을 짚어보는 일은 근대 한국불교 역사와 오대산 불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되돌아 보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양유관음보살처럼, 4대강 치유하겠습니다"

Interview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4대강 황폐화 심각한 수준

지난해 100일 순례 진행 중

'재자연화' 원력 굳건해져

3년간 10만 그루 심기 돌입

'4대강 재자연화'

다소 생소한 이 단어를 묵묵히 실천해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불교환경연대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4대강의 재(再)자연화를 위해 강 일대에 왕버드나무를 심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9월 2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4월 한강을 시작으로 9월 23일 영산강 일대에 2차 버드나무 심기를 완료했다. 30일에는 한강을 다시 찾아 버드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환경연대는 현재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3년간 버드나무 10만 그루 심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4대강 일대에 왜 버드나무를 심겠다고 마음먹었을까. 바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일 스님은 "지난해 '4대강 100일 순례길'을 진행하며 다 망가진 강의 모습을 봤다. 강은 흘러야 하는데 호수처럼 고여 있으니, 썩어버려 악취가 진동하기도 했다"면서 "치유의 의미로 버들을 한 손에 들고 계신 '양유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도 버드나무를 통해 4대강을 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스님에 따르면 버드나무는 수질 정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이들이 심는 왕버드나무는 아름드리나무처럼 커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이들은 여주 신륵사에 묘목장을 만들었다. 내성천에서 가져온 버드나무를 이곳에서 길러 4대강 일대로 옮겨 심는 작업이다. 모든 단계가 녹록치 않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묘목을 기르고, 옮겨 심고, 물을 주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은 여주환경연합에서 묘목 관리를 도맡아 해주고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영산강에 버드나무를 심을 때도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동참해 의미가 깊었다. 법일 스님은 "시민들이 '나무 방생'이라고 하며 흥겹게 참여한다. 자신이 강물 정화를 위해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뿌듯해한다"면서 "앞으로는 불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증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버드나무 심기 뿐 아니라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다.

"묘목을 더 많이 기를 겁니다. 이에 더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4대강 순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심각성을 깨닫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이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강을 보고,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4대강 구간 마다 코스를 나눠, 하루 순례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림(山林)'의 종교로서 불교의 역할을 꿋꿋이 수행해가겠다는 불교환경연대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박아름 기자**

"도반과 함께 즐거운 추억 쌓았어요"

해인동문회, 9월 8~14일

러시아 · 몽골 순례



몽골 간단사에서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있는 해인사승가대학 동문 스님들.

해인사승가대학 동문 스님들이 러시아와 몽골 불교를 체험했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동명)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러시아 바이칼 · 몽골 순례를 진행했다.

이번 순례는 전 세계 담수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바이칼 호수, 몽골 테를지국립공원 탐방 등 명승을 비롯해 몽골 라마불교의 총본산 간단사와 흥인사, 복드한 궁전박물관 등 불교 성지 순례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순례에는 몽골 라마불교 총본산 간단사를 참방하고, 경내 관음당에 조성된 높이 25m의 관음상에 친견했다. 간단사 부주지 따와부릅 스님과 환담을 통해 몽골불교 현황을 듣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명 스님은 "몽골에 계시는 스님들을 뵙고 싶었는데 대중들이 나와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대웅전 부처님을 뵈니까 마음이 숙연해지고 편안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간단사 따와부릅 스님은 해인동문 스님들께 몽골 전통 천, 하다크(Khadag)를 선물로 화답했다.

동명 스님은 "이번 순례는 특히 존경하는 선배 스님들과 함께해 행복하고 소중했다"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 도반 스님과 선후배 스님들께 감사하며, 좋은 생각, 좋은 추억을 가져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동문 선후배 스님들과 함께한 이번 순례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며, "각 처소에서 수행, 전법하는 동문 스님들을 보니 한국불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은 "이번 순례를 마련해 주신 회장 스님께 감사하다. 선후배 스님들과 함께 순례를 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동문 스님들과 이 시대 부처님 가르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뿌듯하다. 같은 뜻을 모아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 야경(夜景) 템플스테이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9월 27일 경내에서 대중음악과 사찰음식 시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경(夜景)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내방한 외국인들과 아이들에게 직접 사찰음식을 나눠주며 축원했다.

조계사는 이와 함께 '스님과 함께 기도문 읽고 사천왕에 소원지 걸기', 다식만들기 및 전통지화 만들기 등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해외불교활동가 한국문화체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9월 19~22일 한국불교계가 지원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시설 활동가와 국내지원단체 활동가를 초청해 한국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에는 해외불교활동가 몽골 · 라오스 · 미얀마 · 네팔 등 4개 국가 8명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관음종 · 지구촌공생회 · 더프라미스 · 나마스테코리아 · 로터스월드 등 국내 단체 6곳이 참여했다. 용문사 템플스테이, 종합복지관 견학, 한류문화공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호섭 기자**

불국사,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협약



경주 불국사가 청소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9월 21일 경주 더케이호텔서 경주교육지원청 주최로 열린 '2017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경주 꿈길 진로체험처 협약식'에 참가해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처를 제공키로 협약했다. 행사에는 연수국장 현학스님과 이병학 템플스테이 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종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천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 총 무 원
부원장 :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 법성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수옥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원장 : 덕산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교육원장 : 정산
포교원장 : 법진
포교국장 : 호산
기획원장 : 혜타
기획실장 : 대덕화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영암
규정국장 : 지산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수산
감찰2국장 : 금산
감찰3국장 : 인산
비구니 회 장 : 지성
부 장 : 혜승
교수사 : 덕산
총 무 : 금산
부회장 : 혜산, 해원
재 무 : 도은, 정해
교 무 : 본각, 수정
교 육 : 법신, 성담
문 화 : 남산, 진화
포 교 : 보명, 홍산
강 원 : 각원, 현타
복 지 : 화광
감 찰 : 서호, 보현
불 화 : 혜담, 인산
의 식 :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상산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일봉
경기남부종무원장 : 승현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충남종무원장 : 혜덕
경 남 종 무 원 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 북 종 무 원 장 : 덕운
부 산 종 무 원 장 : 서봉 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 지각
전 북 종 무 원 장 : 법성
제 주 종 무 원 장 : 청호
울 산 종 무 원 장 :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 집 기 자 : 나윤하 문화국장 : 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황산
이 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 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예술문화협회
주식회사 엠디엠삼성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 신도회사업본부
사업부 : 대덕화, 이창훈, 김종덕

■ 전국신도회
고 문 : 설주성
중앙신도회장 : 홍창석
수 석 부 회 장 : 윤근
여 신 도 회 장 :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 청년회
회 장 : 손정일
홍보처장 : 이근진
총무계장 : 유현석
기획대리 : 나윤하
중국담당 : 임가현
기획실장 : 심원일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조영일
학생처장 : 손 정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논현동 2-14 2층)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총 무 원 장 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namkyounguniversity@naver.com

“모든 우주 현상 본 모습 그대로가 부처님 세상”

선지식에게 듣는다

한국불교 대표적 학승

현해 스님(월정사 회주)



크리스천이던 현해 스님은 24세 되던해인 1958년, 일대사를 해결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오대산 월정사를 찾아가 머리를 깎는다. 이후 조계종 종비 장학생 1기로 일본 유학까지 거친 스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승으로 거듭났다. 또한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내며, 명실공히 종단의 큰어른으로 추대받고 있다. 본지는 창간 23주년 특집을 맞아 9월 25일 현해 스님이 주석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1동 법종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법종사는 북한산 주봉들이 시원스레 조망되는 명소에 자리잡고 있었다.

정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연꽃과 같이 중생 속에 뿌리 박고 향기를 풍기는 ‘처염상정’이야 말로 법화경의 근본적 핵심 가르침”

>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 순간 다시 구제 받고, 우리 몸도 부처를 모시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현해 스님은

1935년 경남 울산서 태어났다. 1958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만화 스님이다. 1992년부터 2004년 1월까지 조계종 제 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았고, 조계종 제3·7·10대 종회의원을 지냈다. 스님은 또한 중앙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오랫동안 법화경을 강의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월정사 회주로, 서울포교당인 법종사서 주석중이다. 현해 스님은 평생에 걸친 법화경 강의와 연구 결과물을 한데 묶어 1996년 〈법화경 요품강의〉를 펴냈으며, 이후 산스크리트어본, 한문번역본, 영문번역본, 한글번역본 등 4개 국어 대조본 〈묘법연화경〉을 3권으로 완간하기도 했다. 논문으로는 ‘법화종요연구’ 등이 있다.

법종사는 전통 사찰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고즈넉한 매력을 발산한다. 현해 스님은 2004년 월정사 주지직을 내려놓고 곧바로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근대 선지식인 한암, 탄허, 만화 스님의 월정사 법맥을 이었다. 인사를 드리고 최근 안부를 여쭈니 건강이 좋지 않아 법종사 요사채서 두문불출 한다고 전한다. 스님 앞에 마주 앉으니 직접 가꾼 뽕잎차 한 잔을 우려 준다.

“마셔봐요. 금방 못느끼겠지만, 조금 있으면 차향이 입안에 그윽하게 감돌 겁니다” 다선의 묘미를 잠시 일러주시더니 대뜸 말문을 다시 연다. “근데 내가 쓴소리하는 스님으로 이름나 있어 다들 날 별로 안좋아 할텐데 뭐 하러 왔어요?” 스님은 기자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오늘은 학승으로서의 학문적 세계를 듣고 불자들에게 발심수행과 공부를 하도록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인터뷰 취지를 말씀드리자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 현해 스님은 법화경(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연구의 권위자중 한분이다. 〈법화경 요품강의〉 〈묘법연화경〉 〈법화종요연구〉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내놓으며, 법화경 연구만 35년, 강의만 30년 이상을 했다. 자연스레 스님과의 대화는 부처님이 직접 설한 〈법화경〉으로 옮겨 갔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진리를 설파하셨죠. 초기 말씀은 초보적인 가르침을 담은 원시경전이고, 나중에 설한 내용은 철학이 가미되고 가르침이 깊어져 대승경으로 부릅니다. 바로 법화경은 화엄경과 함께 대승경의 백미이죠”

〈법화경〉은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 중생들이 번뇌 가득한 세속에 살면서도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설파한다. 특히 ‘법화칠유(法華七喩)’라 일컫는 여러 가지 비유와 각종 인연담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아 대중들에게 친숙하다.

그렇다면 현해 스님이 〈법화경〉 공부에 몰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법화경〉서 ‘한 생각 가운데 삼천세계가 있다’는 말에 의문을 품고 향학열에 빠져 있을때, 때마침 종단에서 학비를 대주는 1기 종비생으로 동국대에 입학했죠. 그리고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면접을 치르는 데, 당시 불교대학원장이신 김동화 박사가 연구 주제를 물어보더군요. 일념 삼천세계를 연구하고 싶다고 답하자 그것은 천태사상인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 거립디다. 법화경은 천태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조계종 하고는 안 맞는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한번 마음먹은 것은 기필코 해내고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현해 스님은 흔들림 없이 법화경 연구를 시작했다. 스님은 동국대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1973년 일본 고마자와대학 불교 장학생으로 뽑혀 일본 유학 길에 올랐다. 그는 고마자와대학서 불교학 박사과정을 마친 뒤 다시 와세다대와 다이쇼대서 동양철학과 천태학을 연구했다. 총 8년 6개월을 일본서 천태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현해스님은 한마디로 “연꽃과 같이 중생 속에 뿌리를 박고 향기를 풍기는 ‘처염상정’의 가르침이야 말로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설명한다. 1982년 조계종 중앙승가대학이 생기면서 학장을 맡은 석주스님이 그를 찾아와 써준 ‘處染常淨’(처염상정)의 글은 지금도 현해 스님이 평생 머리맡에 걸어두고 되새기는 글귀다. 더러운 곳에 처하더라도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한 연꽃 같은 삶을 살라는 의미인데, 법화경의 정신이 담겨 있어 더욱 평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현해스님은 중앙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서 오랫동안 법화경을 강의했다. 이어 스님은 법화경 강의에 다시 말을 잇는다. “대승불교 사상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법화경은 독송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경전으로 깊은 종교적 신심이 들게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비유나 예화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수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제시돼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님은 평생에 걸친 법화경 강의와 연구 결과물들을 모아 지난 1996년 ‘법화경요품강의’를 펴냈다. 또한 2007년에는 산스크리트어본·한문번역본·영문번역본·한글번역본 등 4개 국어 대조본 ‘묘법연화경’을 3권으로 완간하는 저력을 보였다.

“법화경은 총 28품으로 돼 있는 데, 인간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단계에 맞게 가르침이 담겼지요. 첫째는 방편사상이 특징이고, 둘째는 부처의 가르침을 믿어야 한다는 신앙심을 강조하며, 셋째는 보살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 현해 스님은 법화경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에 나오는 예화 한 자락을 소개한다. “옛날에 상불경보살이 있었어요. 이 보살은 어느 누굴 만나든 합장한 채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무척 좋아했죠. 하지만 이 보살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자 그만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그 보살을 데려다 욕하고 때렸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지옥서 과보(果報)가 끝나자 세상에 나가 상불경보살의 말을 들으면 부처가 된다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 마침내 부처가 됐다는 이야기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람을 해치면 끝내는 자신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 순간 다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바로 법화경이 주는 커다란 교훈이죠.”

이어 스님은 인터뷰때 마다 들려 주는 이야기라며 약왕(藥王)보살에 관해 말했다. “하루는 약왕보살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다가 주변 중생들이 업장이 너무 두터워 설법을 듣고도 깨칠 줄 모르자 자신이 대신 참회하겠다고 말했죠. 약왕보살은 즉시 행동에 옮겨 합장한 채 자신의 손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한 1만2000여명의 대중이 저 보살은 죄가 없으므로 우리가 대신 참회할 테니 보살의 몸을 원상태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청을 했죠. 대중은 나무석가모니불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죠. 물론, 부처님은 대중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어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듯이 우리 몸도 부처를 모시면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해스님에게 법화경중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을 청했다. “‘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佛子行道已 來世得作佛(제법종본래 상자숙멸상 불자행도이 내세득작불)’이라는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진리로 가는 길을 찾아내는 탁월한 통찰력이 담긴 감로법문이 바로 법화경임을 잘 대변해 줘서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죠. 모든 우주 현상의 본래 모습 그대로가 부처님의 세상이요, 열반의 세상이기에 부처님 제자들이 이것을 실천하면 그대로 다음 세상에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뜨려는데 현해 스님이 앉은 뒤편 벽면에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苦海寶筏(고해보벌)’이라는 편액이다. 한 눈에 글과 의미가 범상치 않아 뜻을 묻자 스님이 답했다.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는 벽안 스님으로부터 받은 글이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보배로운 배라는 뜻인데, 모든 사람을 태우고 고해를 건너는 큰 배가 되라는 어른스님의 가르침이라 매일 보면서 되새기는 글귀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승정원 원장 남파
부원장 법장
원로회의 의장 덕화
수석부의장 지족
차석부의장 금용
중앙종회 의장 설운
수석부의장 법담
차석부의장 시각
호법원 원장 지현
부원장 상묵

총무원 원장 편백운
재경부원장 성능 오화
교육부원장 은월 담조
총무부장 법석 정천
교무부장 진혜 원암
재경부장 성도 철해
문화부장
사회부장
규정부장
홍보부장
사서실장

종도일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비상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법경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연수원장 청암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범왕 부원장 도암
포교원장 도안 부원장 혜성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원
교육원장 도연 부원장 연화
불교예술원원장 도연 부원장 소현
비구니회장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소원 성원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대광

총무부장 성원 규정부장 이현 교육부장 소원
재무부장 도하 사회부장 범수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부산교구종무원장 도이 전남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도각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서부경남종무원장 법조 충남교구종무원장
진주하동산청지회장 영암 경북종무원장 혜정
대원종법사단장 수안 대원종신도회회장 신우연
대원종전국신도회총무 김임숙 신풍사신도회회장 이정민(청암)

중앙종회의장 법조 부의장 도이
중앙종회의원 대광 소원 도하 혜정 도이 법경
혜성 법조 범수 혜인 혜조 법수
성원 영암 지현 도연 연화 도언
이현 도각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스님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김해시 진영읍 진남로15-6(구 주소 진영읍좌곤리2-18번지) 대한불교 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종정 정허 신풍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10-8548-8608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기 46년
불기 2561년

불교총지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장 인선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사감원장 안성
총무부장 우인
재무부장 원당
교정부장 법일
사회부장 지정

중앙교육원장 화령
동해중학교 이사장 인선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경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성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정

중앙종의회 의원
총지종 유지재단
전당건설 위원회
통리원 임직원

법장원
밀교 연구소
(재)사회복지재단
각 사원주교 및 스승

총지종보 및 종보 통신원
각 교구 신정회 일동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
초록어린이집 · 잠원햇살어린이집
일원어린이집 ·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자성일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재)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재단이사회
명예이사장 경원
이사장 일명
부이사장 경담
상임이사 혜광
이사 혜천. 법도화. 자비행

종정 / 총무원
종정권한대행 경원
총무원장 경원
* 별종직
삼장대학원장 법해

원로회의
원로의장 혜천
원로의원 무찰, 봉암, 원각, 동봉, 덕봉, 대륜, 혜성, 원각, 해월

중앙종회
종회의장 법성
종회부의장 고봉
종회의원 석경 도정 혜일 지흘 성운 혜등 보은 무착 일운 자림

종무위원
호계원장 석성
교육원장 승원
포교원장 보성
선거관리위원장 지언
인권위원장 마덕
감사원장 법경
총무부장 원공
교무부장 경담
홍보부장 해동
재무부장 덕운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해
경기남부교구 대각
경기북부교구 도허
경북교구 법경
경남교구 진공
대구교구 고봉
대전교구 경담
부산교구 지언
전북교구 지명
제주교구 제법

법사회
법사회장 대원 010-2352-1047
법사총무 혜각 010-6708-1288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TEL 02-991-8175, 8904 | FAX 02-991-8176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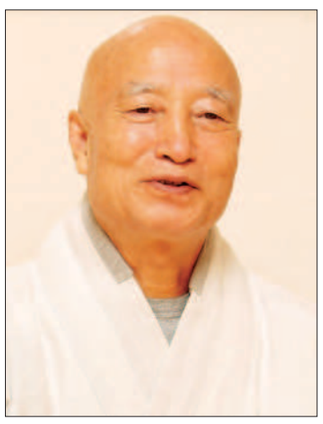
종도일동

■ 전화 02)745-1163, 010-8928-9587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후보들의 경주가 시작됐다. 투표일이 10월 12일로 예고된 가운데, 본지는 이번 선거가 있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일정, 각 후보들의 종책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해당 기사(A7~A11면)는 각 후보 종책 기자회견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제도 개선 열망↑… 직선제는 무산



설정 스님

信心·願力·公心
새로운 한국불교

선거 전까지의 과정을 톺아보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역대 총무원장 선거 중 가장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행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를 열망하는 내부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현행 제도로 진행된다. 따라서 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있기까지 과정과 향후 일정을 안내한다.

35대 선거의 우여곡절

직선제 도입을 바라는 종도들의 관심은 몇 년 전부터 거세게 이어졌다. 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역시 2013년 후보 추대를 받아들이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4대 집행부는 2014년 선거인단을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대덕·혜덕(승납 20년) 이상 스님으로 확대하는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종회서 '졸속'이라는 의원들의 뭇매를 맞으며 무산됐다. 이후 잠잠했던 직선제 관심은 2015년 시작된 100인 대중공사서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처럼 점차 확대되던 직선제 도입 논의가 암초를 만난 것은 그해 8월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당시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前호계원장 법등 스님이 제안한 '염화미소법' 추진을 알렸다. 불과 반년 전, 자승 스님에게 직선제 공약을 지키라고 질타했던 법등 스님이 돌연 염화미소법을 들고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스님은 "시절인연이 직선제를 실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해명했다. 복수의 총무원장 후보자 갈마 이후 종정이 추첨하는 염화미소법은 종책모임 불교광장과 삼화도량이 일정 수준 합의의 뜻을 내비치면서 염화미소법을 다듬을 혁신특위도 구성됐다.

하지만 염화미소법안은 중앙종회가 직선제 논의를 위한 직선제특위를 구성하며 이월됐다. 직선제특위는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해 법계 중덕·정덕(승랍 10년) 이상 스님 1000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80.5%가 직선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성안했지만 이 역시 이월됐고, 직선제특위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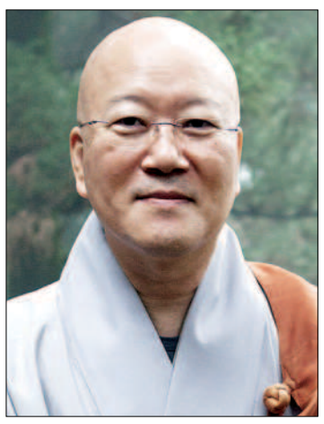
게다가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놓고 염화미소법과 직선제가 상충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중앙종회는 올해 3월 혁신특위와 직선제특위를 해체하고, '총무원장선출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 두 안을 모두 이관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직선제에 다시 불을 지핀 건 불교시민사회계가 구성한 '직선실현 대중공사'였다. 여기에 전국선원수좌회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올해 6월과 9월 종회가 개원되지 않으면서 제도개선특위 회의도 잡히지 않아 종도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한다는 결의 외에 활동이 미비했다. 특위 임기는 내년 연말 만료된다. 결국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현행제도인 간선제로 치르게 됐다.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나

현행 간선제의 선거인단은 총 321명이다. 중앙종회 81명과 24개 교구별로 선출된 10명 등 240명을 더한 숫자다. 각 교구본사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교구종회를 열고 선거인단 선출을 마무리했다. 남은 것은 선거인명부 작성과 확정. 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일 전 3일까지 총무원 신원조회와 자격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투표 당일에는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된다. 각 후보자별 투·개표 참관인 1인이 배석한다. 투표 후 선거권자 321명의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 시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며, 동표일 경우 승납순·연령순으로 결정한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원로회의가 인준해야 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수불 스님

천만 불자시대
다시 열겠습니다

종단 정체성 확립
사부대중의 중심에

"불법행위 발각 시 엄중 대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 스님



혜총 스님

"과거에는 후보 자격심사만 끝나면 그 뒤는 문제없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불법선거행위가 명백하게 적발된다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 스님은 9월 25일 후보 자격심사 직후 본지 인터뷰서 공명정대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각 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증거가 명백할 경우 선거에서 당선된다하더라도 당선증 교부 연기나 원로회의 인준 보류 요청까지 감안하고 있다.



종훈 스님은 "총무원장은 종단을 4년간 책임지는 자리다. 조계종은 한국불교 근간을 이루는 장자종단으로서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선거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총무원장을 여법하게 선출하고, 잘 모신다고 대중이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치 뜨내기 장터에 있는 장사꾼처럼 4년간 자리만 지킬 목적으로 출마해 혼탁한 선거를 한다면 조계종과 불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금권선거 등의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국에 배치된 공명선거위원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차원의 SNS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24시간 교류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는 없는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다.

종훈 스님은 "모든 후보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 종단 수장이 되고자 출마한 만큼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중앙선관위도 선거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문화의
새로운 황금시대



원학 스님

1번 설정 스님

“교구중심제로 불교 경쟁력 강화”

신심 · 원력 · 공심 강조하며 승풍진작 방점

경력 및 이력

1941 충남 예산 출생
1955 사미계(수덕사 혜원 스님)
1961 구족계(범어사 동산 스님)
제방 선원서 수선안거
2011 대종사 법계 품수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종단개혁회의 법제분과위원장
제8 · 10대 중앙종회의원
제11대 중앙종회의장
제4대 덕숭총림 방장
조계종 원로의원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기호1번 설정 스님은 교구중심제를 통한 한국불교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설정 스님은 9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종책설명회 및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수행종풍을 진작하고,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 포교시스템 확립을 통해 한국불교와 종단의 저력을 열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가치로 ‘신심’ ‘원력’ ‘공심’을 강조한 설정 스님은 종단 운영 10대 기조와 60대 과제를 수립했다. 10대 기조는 △수행가풍과 승풍 진작 △교구중심제 강화 △대중공사에 기초한 종단 쇄신 △종무행정시스템 개선 및 종단재정 안정화 △불교 · 전통문화에 대한 획기적 국가정책 수립 △승려복지시스템 확대 및 내실화 △승가교육 체계화 및 전문인재 양성 △포교정책의 다각화 · 내실화 △한국불교의 세계화 △종단의 사회적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신뢰 제고 등이다. 스님은 이 중에서도 교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구중심제에 무게를 실었다.



설정 스님은 교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구 행정시스템 구축 지원과 말사주지 인사권 교구 이양, 대규모 광역자치단체 교구본사급 사찰 설립 등을 꼽았다. 스님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교구가 수행과 포교, 전법의 자치공동체로 거듭날 때 효율적인 종단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교구의 독자적 행정 · 포교시스템 구축은 물론 각 교구의 특성과 장점을 장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교구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승풍 진작을 위한 총림과 본사단위 수행결사, 종단차원 출가TF 구성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승려복지모델 구축을 통한 수행생활 지원 등을 주요 종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복지와 교육 · 포교분야 등에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비구니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한 비구니부 신설 및 특별교구 설립 추진도 눈에 띈다.

기자회견에서 설정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으로 ‘승풍 진작’과 ‘올바른 승가상 확립’을 꼽았다. 스님은 “사부대중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종단을 만들어 불교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환희심을 낼 수 있고,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여생을 바치고 싶다”면서 “승려는 머리를 깎은 순간부터 공인이다. ‘나’를 내려놓고 불교 발전과 중생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최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적폐청산 요구 등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대화합 차원에서 충분한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익에 집착하거나 이교도와 함께하는 성토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종단은 율장에 근거한 원칙과 종헌종법을 통해 질서가 유지된다. 사부대중 전체가 불교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접근한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작은 이익에 집착해 종헌종법을 무시한다든지, 이교도들과 종단 모순을 성토하고 비판하는 건 종단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런 것부터 자제하고 서로 반성한다면 모든 문제는 승가 화합정신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정 스님은 끝으로 “출마를 만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종단의 문제를 정리해달라는 요청과 질책이 있어 이 자리에 섰다. 개인의 안일함을 위했다면 방장과 원로의원으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겠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부처님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이 컸다”고 출마배경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후보와의 질의응답

교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요?

삼국시대에는 화엄종이나 법상종 등 다양한 종파가 나름대로의 특징에 따라 발전해왔죠. 이처럼 교구들이 어느 곳은 선(禪)을, 어느 곳은 강(講)을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것들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이후 수행가풍과 승풍 진작은 자연스레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스님이 선학원 문제에 강공책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산입니다. 선학원은 불교 정화를 시작했던 곳이고, 외색불교를 반대한 순수한 곳입니다. 그 정신은 오롯이 실현돼 한 덩어리가 돼야 합니다. 화합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스님 올해 연세가 77세로 건강을 걱정하는 주변 목소리가 많습니다.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80 넘어서도 일하는 분들이 많죠. 그에 비하면 젊은이 아닌가요?

종책기조

수행가풍 · 승풍 진작
교구중심제 강화
대중공사 종단 쇄신
행정시스템 개선
불교문화 국가정책
승려복지 내실화
승가교육 체계화
포교정책의 다각화
한국불교의 세계화
사회적 역량 강화

눈여겨볼 종책과제

수행
- 총림 및 본사단위 수행결사
- 종단 차원 출가TF 구성

교구
- 말사주지 인사권 교구 이양
- 광역단체 교구본사급 사찰 설립

행정
- 조계종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립
- 비구니부 신설 · 특별교구 추진

교육
- 출가자 평생교육체계
- 법계 승급 가사 지원



2006년 8월 정혜사에서 납자들을 배웅하는 설정 스님.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종단 예산 1000억대 확충 자신”

2번 수불 스님

종책기조

수행 · 전법 전념 시스템 구축
교구 현장 중심으로 대전환
공명한 호법 집행 · 신뢰 회복
1000만 불자 회복 프로젝트
세계 인류 선도할 대안 마련

눈여겨볼 종책과제

수행
- 선지식 중심의 수행위원회 구성
- 안거 공부 전통 범국민운동 추진
- 선 명상 한류센터 구축

행정
- 교구자치제 완전 보장
- 총무원장 선출제도 직선제 추진
- 중앙종무기관 소임 25% 비구니 인선
- 법인 자율성 위한 법인법 개정

복지
- 펀드 통한 승가복지기금 500억원 모연
- 승려 노후 수행비 지급 대책
- 승가인재센터(가칭) 설립 운영

전법
- 수행 · 전법 위한 직영사찰 주지 공모
- 조계종 선(禪)포교사 양성
- 플랫폼 방식 모바일 콘텐츠 개발
- 불교만화 · 게임 등 젊은 콘텐츠 공모


2012년 11월 미국 스미스대에서 혜민 스님과 강연에 나선 수불 스님.

승려복지기금 500억 모연… “육화정신 화합을”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기호2번 수불 스님이 현 중앙종무기관 예산의 2배에 달하는 1000억 원대 재정 확충을 다짐했다.

수불 스님은 9월 27일 서울 안국선원서 총무원장 선거 출마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종책을 발표하고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인식과 폐습을 과감히 혁신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불 스님은 수행자들이 수행과 전법이라는 본분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단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교구본사 중앙분담금 4년 동결을 비롯해 보시 · 모연으로 종단재정 1000억 원대 확충, 펀딩을 통한 승가복지기금 500억 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총무원장이 되면 이를 책임지겠다”고 확신했다.

신뢰받는 종단운영을 위해 수불 스님은 △교구자치제 완전 보장 △비구니 참종권 확대 및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25% 인선 △법인법 개정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제도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교구자치제는 본말사 주지 인사 및 재산 처분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인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종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선학원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종도 81%의 지지를 받은 총무원장 직선제를 추진하고,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제도를 개선해 총무원장의 권력을 분산하는 계획도 밝혔다.

출마 이후 종단의 민낯을 더 많이 봤다는 수불 스님은 “현재 종단이 활발발하게 움직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죽음 앞의 적막 같은 고요함을 느낀다. 서로 눈치를 보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종단을 망치는 장애물”이라고 진단한 뒤 “종단관리는 어느 때보다 탁월했지만 한국불교 정체성은 제대로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불교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으려면 방향 전환을 위한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불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시 1천만 불자 회복 프로젝트를 실시, 전법과 교육체계를 갖춰 참선프로그램을 종단차원서 보급해 불교 대중화를 이끈다는 방침을 세웠다. 스님은 “진정한 가르침이 불교에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선택하지 말라고 해도 국민들이 불교를 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아픔은 우리가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며 “종교기능이 약화됐다고 할지 몰라도 불교가 역량을 발휘할 환경은 더 좋아졌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앞으로 불교가 시대의 사명을 다하긴 어렵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안국선원장과 종단 수장을 겸할 시 스님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종단 수장이 되고도 안국선원에 연연해선 안 된다. 걸망을 메면 떠나는 게 중이다. 버릴 줄 모른다면 승려로서 기본 자질이 문제 된다”면서 “오히려 안국선원 신도들이 등 떠밀며 잘하라고 하지 않겠나. 육화정신으로 화합하는 승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내려놓아야 한다”고 답했다.

수불 스님은 끝으로 “종단이 변화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도 불공과 천도의식, 문화재 관람료와 국고보조금으로 유지한다면 한국사회와 인류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할 수 없다”며 “70년 전 봉암사 결사를 시작한 선각자 스님들이 옳았다. 우리도 지금 비장한 각오와 절박한 결단을 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윤호섭 기자**

후보와의 질의응답

종단 비정규직 등 내부 노동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무원이 많아서 줄여야 된다고도 하는데 있는 사람 잘 관리하고 더 많이 뽑아서 종단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700만 불자 관리하기엔 터무니없지 않나요. 못한다면 종단의 내일이 있겠습니까.

직영사찰 주지 공모제가 눈에 띄는데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스님들이 자신의 길을 못 찾는 일이 있는데 종단 내 역할을 찾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총무원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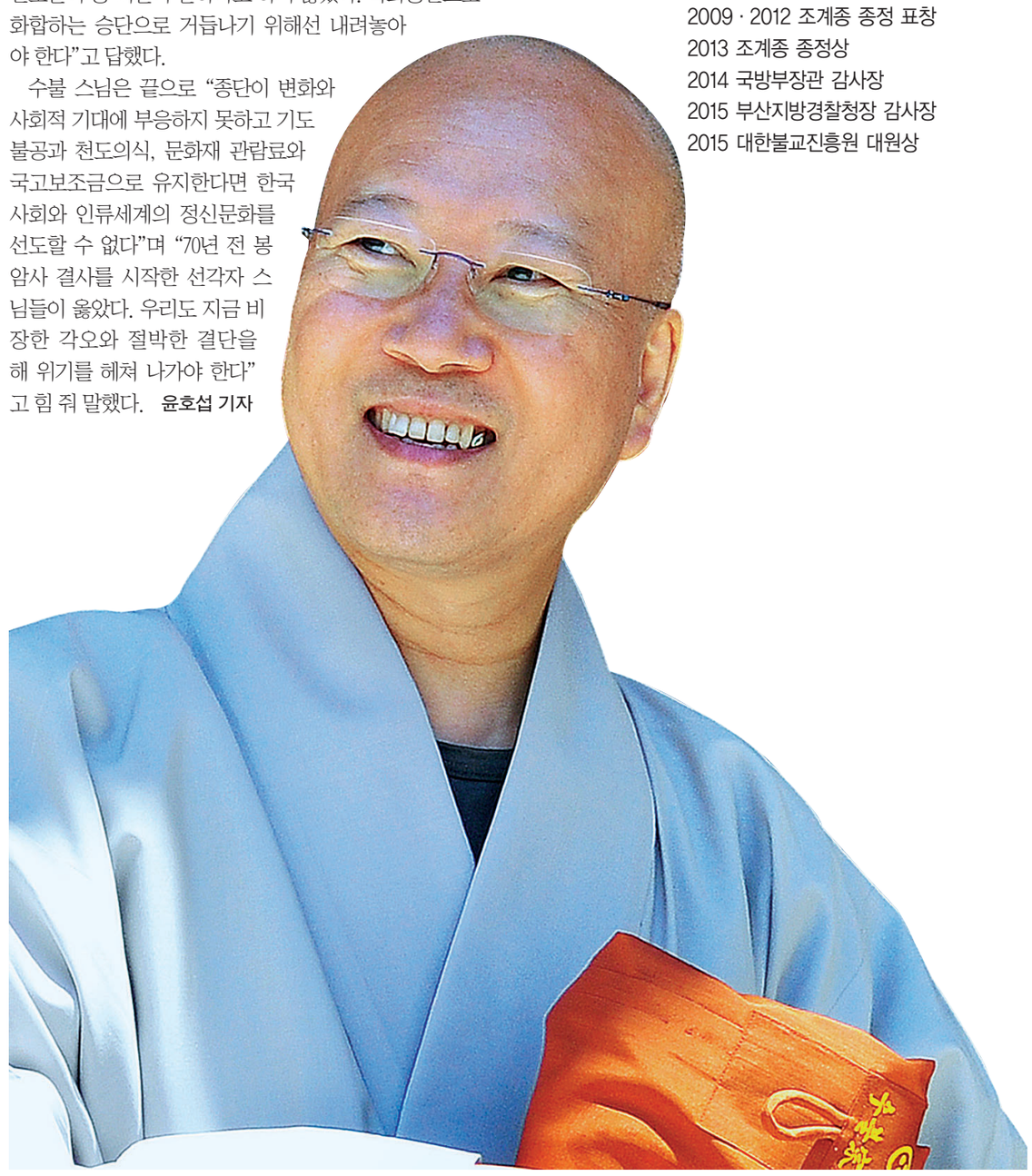
율장에 비춰보면 직선제가 맞다 틀리다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가 급감하고 내일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죠. 물론 실험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의해야 합니다.

경력 및 이력

1953 대전 출생
1975 사미계(범어사 지유 스님)
1977 비구계(범어사 고암 스님)
1979~1989 제방선원 수선안거

(사)불국토 상임이사
불교신문사장
부산불교연합회장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BTN불교TV 이사
부산불교방송사장
BBS불교방송 이사
불교미래포럼 통섭
안국선원장

2003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4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9 · 2012 조계종 종정 표창
2013 조계종 종정상
2014 국방부장관 감사장
2015 부산지방경찰청장 감사장
2015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채움 · 나눔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사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곳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곳
그래서 더 행복이 충만한 곳

GIVE

복합문화공간
KUmuda(쿠무다)

책과 커피 그리고 감성이 있는 공간
쿠무다는 북콘서트, 전시회, 공연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주지 주석 사부대중 일동

www.daeunsa.net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1-21 | 051)701-7559

3번 혜총 스님

“종단 운영, 사부대중 참여기조로”

수행 · 전법 · 행정도 함께… “수행이 곧 포교”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기호3번 혜총 스님은 종단 운영기조를 사부대중 참여기조로 전환해 ‘함께하는 종단’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밝혔다.

혜총 스님은 9월 26일 서울 종로 대각사 대웅전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수행하는 종단 △전법하는 종단 △함께하는 종단 △존경받는 승단 등 4대 운영기조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운영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제도 마련, 사부대중 참여하는 중장기 수행프로그램 마련, 교역직에 비구니 참여 확대, 지역관련 업무 교구본사 이관, 총무원장 단임제 등 28개 종책과제를 제시했다.

사부대중이 함께 종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찰 살림살이를 재가자들이 맡는 천태종을 모범사례로 들었다. 혜총 스님은 “지금은 사부대중이 수행 · 전법 · 행정 등 모든 분야를 같이 논의할 때다. 어려운 얘기지만 형편만 된다면 종회도 함께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혜총 스님은 수행풍토 조성과 포교 활성화가 둘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부처님 뜻이 수행이다. 불교는 스님의 본분인 수행에 열중하면 그 모습만으로 사회로부터 존경이 나오고, 불교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며 “그러므로 수행풍토가 최고이고 이것이 바로 포교로 이어진다. 포교원장 재직 때도 수행이 곧 포교요, 포교가 곧 수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하지만 이를 등한시하다 보니 불교가 사회적으로 추락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혜총 스님은 또 “개혁종단 출범도 이제 23년이 지났다. 시대상황에 따른 변화와 함께 종단운영의 법과 제도 수정에 있어 상당부분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했다”면서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새롭게 파생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원로중심의 전통인 승가위계와 법계질서가 무너지고, 불교본연의 청정가풍과 수행환경이라는 정체성도 모호해졌다”고 불교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 현대사의 가치를 ‘정화불사’와 ‘개혁불사’라고 강조한 혜총 스님은 “청정한 승풍을 진작하고, 모든 종도들이 기꺼이 함께하는 수행환경을 새롭게 정립하겠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희망이고 해묵은 조계종의 정화불사와 개혁불사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특히 11세에 동진출가 후 60여 년간 승려생활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진 승가교육기관 설립을 강조했다. 승가영아원을 시작으로 유치원, 초 · 중 · 고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승려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다는 게 혜총 스님 주장이다.

혜총 스님은 “20대가 넘어 출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땐 이미 늦는다. 어릴 때부터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 자라는 것이 가장 좋다”며 “태국이나 스리랑카, 미얀마에서도 어릴 때 출가하지만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보다 좋을 순 없다. 승가 양육 시스템이 갖춰지면 아이를 낳아도 기를 여건이 되지 않는 사회를 보완하면서 출가를 장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끝으로 향후 선거운동 계획과 관련해 “4대 기조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쏟겠지만 세력이나 인맥을 과시하진 않겠다. 부처님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조용히 일깨우는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후보와의 질의응답

종단 고위직 자격기준을 ‘비구’에서 성(性) 중립적 표현인 ‘승려’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반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평등시대가 됐습니다. 비구니 위상강화는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종정까지 확대하는 문제 등은 종단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언적인 의미의 종책이 많은데 재원마련 계획은?

절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하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운사는 소금이 유명하고, 월정사는 물이 좋은 것처럼 수익사업을 개발해 예산을 늘리고 지역복지에 힘써야겠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승단을 강조했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불교를 크게 융성시킨 아쇼카왕은 애초에 불자가 아니었지만 길을 지나가는 어린 사마의 걸음걸이를 보고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를 귀의하게 만든 것은 바로 ‘수행자의 위의’라고 봅니다. 스님이 본분인 수행에만 열중한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존경이 나올 것입니다.

경력 및 이력

1945 경남 통영 출생
1956 사미계(통도사 자운 스님)
1963 구족계(범어사 동산 스님)
1972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1974 동국대 석사과정 수료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부산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사)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조계종 포교원장

조계종 포교대상
조계종 종정 표창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2009 제7회 대원상
2010 자랑스런 동국인상
2017 자랑스런 부산시민상

종책기조

수행하는 종단
전법하는 종단
함께하는 종단
존경받는 승단

눈여겨볼 종책과제

수행
- 원로중심 안거수행과 승풍 진작
-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한 법 · 제도 마련
- 사부대중 함께하는 중장기적 수행프로그램
- 수행자 소양교육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

전법
- 수도권과 신도시 거점 포교사찰 설립
- 포교원 행정시스템 지원 · 전략 개발
- 총무원 기능 교육원 · 포교원 지원 시스템 전환
-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활성화

화합
- 종단 운영 사부대중 참여기조로
- 자치책임제 도입, 지역 업무 본사 이관
- 총무원 교역직 비구니 참여 확대
- 동진 승가교육기관 설립

신뢰
- 총무원장 임기단임제로 갈등 해소
- 호계위원, 율사에 준하는 승려 발탁
- 호법부 교역직, 청렴성 검증해 임명
- 한국불교 문화예술 국제교류로 전파



2011년 11월 제5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퇴임하며 종무원 · 불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

대한민국 대표
도심형 실버타운
노블레스타워
실버타운이 비싸다는 생각은 잊으세요.
합리적인 관리비로 여유로운 생활과
20여가지의 다양한 매머드급 부대시설을
항상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n-tower.co.kr
실버그룹 One-Stop 서비스
www.n-sangjo.co.kr
당신이 평생 결정한 것중에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 서비스
주간프로그램운영, 여가활동 및 초청공연, 종교활동지원, 주1회 나들이, 국내 · 외 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관리 서비스
고품격 편의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60세부터 즐거움과 90세이후에도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처방사가 개인의 건강과 운동능력을 평가해 재활운동 · 수중치료 등 맞춤처방을 실시하며, 개인별 맞춤 영양식과 식이요법식(당뇨, 고혈압) 등 무공해 식단을 365일 제공해 드립니다. ※ 매주 1회 세대 무료 청소, 식사 룸서비스
온천수영장 (자유수영, 아쿠아로빅, 재활클리닉)
불교관 (매월 2회 조계사 스님 초청 법회)
휘트니스센터 (재활클리닉, 요추부안정화강습 등)
시네마홀 (영화상영, 노래교실, 각종문화행사 등)
노블레스타워 Noblesse Tower 02)910-6090
미리 준비 못하셨나요?
노블레스상조에서 해결하세요
현대불교신문 특별혜택!
10% off
상품금액의 10% 할인 적용
장례진행 시 일회접객용품 200인분 제공(15만원 상당)
노블레스타워 온천사우나 / 온천수영장 무료이용권 2매
철원 노블레스캠핑장 1박 무료이용권 1매
후불제 상조란
선불제 상조의 단점(회원 납입금의 횡령, 부도, 폐업, 환급거절 등의 폐해)을 보완하여 월불입금 없이 장례를 치른 이후 비용을 지불하여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힌 장례서비스
수의 대마100%
유골함(황토유골함 · 밀봉함/은나노진공함)
특급 고인전용 장의 리무진
장례행사 전문인력
상조의 품격 노블레스상조 1833-6565
품격높은
후불제 프리미엄
노블레스상조
노블레스상조 검색
TALK 노블레스상조
지금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서 검색해 보세요.
백마C&L(주) 백마건설(주) · 백마리조트(주) · 백마국제여행사(주) · 노블레스타워부속의원 · 백마요양원 · 노블레스상조(주) · 백마철원농산 · 철원오토캠핑장 · 백마노블레스텔 · 백마아카데미하우스
백마C&L(주)는 실버타운 노블레스타워 운영과 함께 실버푸드, 실버케어, 휘트니스를 비롯하여 요양원, 납골당, 여행사, 상조 등 실버관련 계열사로 이루어진 '실버 전문그룹'입니다

“대중서원실행위원회 설치로 소통”

4번 원학 스님

종책기조

선지식 권위 확립
종헌 질서 확립
원장중심 혁신 주도
교육 · 포교 · 복지 완성
삼보정재 공공성 강화
이타정신 발현 노력

눈여겨볼 종책과제

수행
- 종단 주관 담선법회 · 무차선회
- 수계 시 분야별 전문화 정립
- 불교학 대회 상설 운영 주도

행정
- 대중서원실행위원회 설치
- 인사 및 초심의 교구본사 이양
- 총무원장 선거제도 전면 개선
- 교역직 공채 및 지원 제도

포교
- 각급 학교동아리 운영 지원
- 대도시 청소년 불교회관 건립
- 전 교구 포교중심 정책 설정

문화
- 성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불교문화 전문부서 설치
- 평양 조계사(가칭) 건립 추진
- 동북아불교문화진흥본부 구성



우계 오우선 · 청남 오제봉 · 효당 최범술 선생으로부터 남종화를 사사한 원학 스님의 작업 모습.

선거법 개정 · 비구니 위상 강화 등 눈길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기호4번 원학 스님이 총무원장 직속 ‘대중서원실행위원회’ 설치를 통한 화합의 종단상을 구현한다는 공약을 밝혔다.

원학 스님은 9월 26일 서울 인사동 오원빌딩 선거대책본부사무실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6대 운영기조와 10대 세부과제 등을 발표했다.

‘불교문화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연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원학 스님은 △공경질서-종정예하, 원로 대종사 등 선지식에 대한 공경 △총무원장-변화의 중심축으로써 혁신 주도 △종단의 위상 제고-종헌 질서의 확립 △화합의 제-삼보정재의 공공성 강화 및 공유틀의 제도화 △종무방향-수행과 교육, 포교 중심 운영체계 확립 △보살서원-이타정신 발현되는 공존의 사회 조성 등을 종단 운영 기조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원학 스님은 총무원장의 초발심 회복과 소통, 불교관 정립 및 혁신을 위한 수행안을 제시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대중서원실행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중의 청원과 제안 등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으로 차별화를 도모했다. 종도가 겪는 억울한 일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 제안은 종무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원학 스님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부대중이 일심일체로써 화합하는 종단상을 구현하고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초발심 회복을 위해서는 총무원장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원학 스님은 “초하루 등 전통적 법회일에 말사 법회를 무보시로 직접 주관하고, 시민불자와 함께하는 종립대학 특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학 스님은 종단 운영과 관련해 △서울교구 신설(강북 조계사, 강남 봉은사) △총무원장 선거제도 직선제 등 전면 개선 △비구니 교역직 30% 이상 확대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의 ‘동북아불교문화진흥본부’ 확대 개편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교시민사회단체와의 분기별 회동, 예산지원 확대, 공익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하면서 “불교시민사회를 지원하되 운영과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하는 것을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학 스님은 명절연휴로 인한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타후보들에게 선거일 연기 합의를 요청했다. 스님은 “선거인단이 10월 1일까지 선출된다. 하지만 연휴 때문에 선거인단에게 공약집 등을 보낼 시간조차 없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다른 후보들께서 합의해주신다면 선관위와 집행부에 선거일 연기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일 전날 선거인단의 숙식해결을 위해 후보자들이 최소 5000만원의 공탁금을 내고, 후보자가 선거인단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금권선거 예방에 나서자는 입장도 전했다. 얼마 전 중앙선관위가 선거중립을 위해 선거당일 교구본사 버스 대여비와 식비 등을 지원키로

후보와의 질의응답

전국 제방을 다니며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소감은?

선거문화가 경쟁으로 이어져 미덕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여러 스님들을 만나면서 직선제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직선제나 준직선제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단점을 연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비구니 교역직 30% 확대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진 않았지만 몇 년 전 대만서 비구니들의 사찰 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봉은사 주지 시절에도 국장스님 5명을 비구니로 모셨죠.

종책선거를 강조했는데 종책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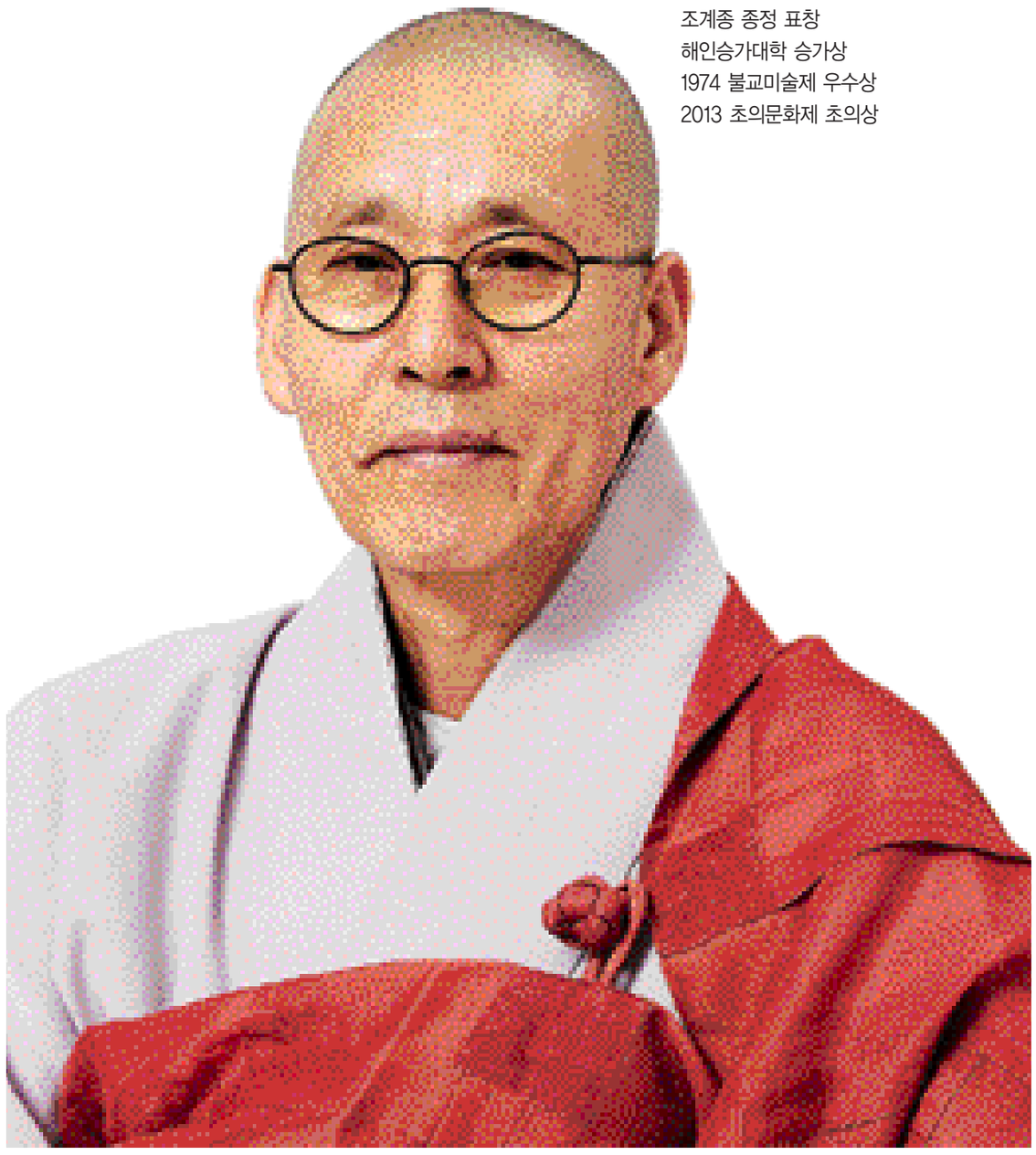
명절연휴가 길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종책토론회는 꼭 했으면 합니다. 선거일 연기가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경력 및 이력

1954 경북 경산 출생
1965 사미계(파계사 석암 스님)
1971 구족계(범어사 석암 스님)
1985 동국대 교육대학원 동양화 전공

연화사 주지
종단개혁회의 재정분과위원장
용연사 주지
제10 · 11 · 12 · 15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사 · 봉국사 · 봉은사 주지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무원 문화부장
총무원 총무부장
10.27법난심의위원장
불교중앙박물관장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조계종 종정 표창
해인승가대학 승가상
1974 불교미술제 우수상
2013 초의문화제 초의상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효찰대본산 용주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전 화 : 031-234-0040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조실 현봉
회주 송암
동당 원조
주지 남전
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성공
호법국장 정우
사회국장 등안
교무국장 명인
재무국장 두현
포교국장 동우

고운노인요양원원장 석우
의성노인복지관관장 선주
영주장애인복지관관장 도선
사찰음식체험관관장 원해
연화마을관장 구견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유형
안동장애인복지관관장 전만호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 청국장, 두부만들기체험
◆템플스테이 :
프로그램형, 상시형, 휴식형 템플스테이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116) ☎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차를 따르는 시자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시원하고 막힘이 없었다. '청풍(淸風)'이란 다법의 이름을 따라 시자들은 마치 맑은 바람처럼 움직였다. 대중들은 차를 마시고 허리를 펴고 눈을 감았다. 한 · 중 · 일 국경을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적정(寂靜)의 순간이었다.

차향에 담은 禪 정신, 세계로 가다

[현장] 부산 홍법사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선차아회

한 · 중 · 일 세계 선차 교류의 장
잊힌 선차, 한국에서 선양해
대중 '청풍 다법' 맞춰 선수행
선차, 종합 예술 문화로 발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앉았다. 차두(茶頭)는 숙우(熟盂)에 차를 내렸다. 법당은 차향으로 가득 찼다. 녹빛 선대(禪帶, 선원에서 쓰는 앞치마)를 입은 시자는 대중에게 차를 전달했다. 차를 따르는 시자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시원하고 막힘이 없었다. 청풍(淸風)이란 다법의 이름을 따라 시자들은 마치 맑은 바람처럼 움직였다. 대중들은 차를 마시고 허리를 펴고 눈을 감았다. 한 · 중 · 일 국경을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적정(寂靜)의 순간이었다.

9월 23~24일 제13차 세계선차아회가 부산 홍법사에서 개최됐다. 선차를 하는 아름다운 모임, 선차아회는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회장 최석환)와 (사)한맥인터코리아(대표 김민성)가 주최했다. 선차아회는 차를 도구로 선 수행을 이어가며 선문화를 전하겠다는 의지로 2013년부터 진행됐다. 1회는 2013년 11월 송광사에서 시작됐다. 참가자들이 다함께 차를 마시고 선차 수행을 한 것이 시초가 됐다.

행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다도를 소개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선차의 의미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열렸다.

개막식에서 중국팀과 한국팀의 숙우회가 선차를 선보였다. 숙우회는 현로(玄路) 다법을 시연했다. 차두가 우린 차를 대중이 들고 나와 부처님께 헌다하고 차를 마시며 입정에 드는 과정을 다법으로 설명했다.

개막식은 내빈 소개 및 인사말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해시는 가야 장군차 묘목을 홍법사에 증정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세계인을 선차로 결집한 선차아회"라며 "부산 경남권 아시안 게이트웨이의 관문인 홍법사에서 한 · 중 · 일 대만팀 등 동아시아 국가가 모여 차와 함께 자리를 열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대표 다인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커우단 중국차 연구가는 "선차 정신을 선양하자"며 "평화와 선량, 관용으로 지구촌 곳곳을 채우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쿠라자와 유키히로 교토대학 심차회 회장은 "인종과 국가를 넘어 협력하고 차의 정신을 생각하자"고 축하했다.

이후 '천년 한국차의 비전'이란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선차문화의 미래(현봉 스님) △동아시아 선차문화의 확립과 한국선차문화의 현실(최석환 회장) △다선일미, 차명상법 제시와 그 효과에 대한 시범적 연구(지운 스님) △추사의 다도(이희재) 등 한 · 중 · 일 차 전문가 15명이 발표에 참여했다.

현봉 스님(前 송광사 주지)은 "세계 한류 문화 가운데 선차도 한류의 중심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다"며 "선차아회 행사를 통해 서로 교류하며 문화를 선양한 결과, 중국 선차는 입식이 아닌 좌식으로 한국 선차 문화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차는 종합예술 분야로 발전해 진정한 일상다반사를 이끌어 내는 정신문화로 거듭 성장 중이다. 미래는 차정신 문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환 회장은 "20년 전 국제 차계에서 한국 선차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았다"며 "그러나 세계에서 잊힌 선차 문화를 깨운 사람이 한국인이며 그 문화 영향을 중국과 일본에서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차아회는 △사찰음식 식사 △찻자리 선언 △칠현금 · 수정발 연주 △한 · 중 · 일 특별 차시연 △모듬북과 필묵의 향연 △통도사 학춤 △홍법문화힐링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일반 대중을 위해서 50인의 찻자리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다회, 명원 부산다도문화원 부산지부, 가야차인연합회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차인들이 화려한 찻자리를 꾸려 풍성함을 더했다.

홍법사를 찾은 시민들은 차 문화를 통해 알게 된 선차의 세계가 알면 알수록 깊고 놀랍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시연(44 · 부산 연산동) 씨는 "선차 다법을 보니 불교 선수행 문화를 보는 것 같았다"며 "사실 불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용어도 많았는데 설명을 들어보고 그 깊은 내용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세계선차아회는 선차 수행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2013년 11월 송광사를 시작으로 양평 용문사, 중국 난창, 한국 장흥 보림사, 일본 교토 등 12회에 걸쳐 개최됐다. 하성미 기자

어려운 이 단어, Click!

차두(茶頭) 차를 우리는 사람
숙우(熟盂) 탕관에서 끓인 물을 옮겨 차를 우려내기에 적당한 온도로 식히는 식힘 그릇.
선대(禪帶) 선원에서 쓰는 앞치마. 좌선할 때 허리에 감거나 무릎을 묶어 기운을 돕도록 하는 끈을 일컫기도 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다회 등 전국 차인들은 화려한 찻자리를 꾸려 풍성함을 더했다.



제13차 세계선차아회 개막식 식전 공연에서 중국팀이 선차를 선보이고 있다.



김해시는 홍법사에 김해 장군차 나무를 기증했다. 홍법사는 차문화 진흥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Interview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선차 문화, 포교 가능성 발견"



"선차를 직접 체험해 보니 현대인에게 선차를 도구로 수행을 소개하고 더욱 친숙하게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차와 수행을 접목하는 새 분야, 선차를 불교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야합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사진〉은 "선차아회를 통해 수행과 불교문화를 전할 도구로 선차를 새롭게 발견한 계기였다"며 "연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다선일미라고 오래 전부터 불교계에서 말을 해왔지만 수행과 차를 접목하는 하는 역할은 한국불교에선 약했습니다.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이끌어 갈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커피로 흘러가는 한국불교문화 속에 이런 선차아회 행사는 선차를 홍보하고 차 문화 저변 확대를 이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산 스님은 "홍법사에 차 나무를 심고 차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발전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김해 장군차를 심어 상징적으로 한국불교 전통을 잇는다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불자님들이 기다려온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열어
불자님이 원하는 생활대중불교의 신화를 만들겠다



'한불련' 스님 200여 명과 신도 5천여명이 참석한 취임 대법회

'한불련' 전국신도회 윤을암 중앙신도회장 취임식에는 전국신도 5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시종일관 환희심이 가득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화상메시지와 여 · 야 정당 대표들의 축사 그리고 지역 기관장님이 대거 동참했으며 전국에서 축하화환 200여개가 답지했다. <사진= 이풍호 프로작가>

'한불련' 전국신도회 윤을암 중앙신도회장 취임법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이하='한불련')는 지난 9월 9일 사천 와룡산 백천사에서 전국신도회 윤을암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윤을암 전국신도회 중앙회장(이하=회장)은 취임사에서 "초심을 견지하면서 차별없는 실천으로 오직 전법, 포교를 위해 정진하겠다"면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은 오로지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합리적인 전법포교만이 살길이라"고 역설했다.

윤 회장은 "불교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활력을 주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국불교의 미래가 있다"면서 "새로운 불교발전도 이러한 인재들로 함께 할 때 더욱 예측가능하고 발전적일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피력했다.

윤 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불교의 숨겨진 보물이자 우리 불교의 정신적 스승이 될 만한 인재들이 새로운 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지혜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뜻을 모은 의미있는 자리라"면서 "눈 밝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우리의 미래를 함께 보고 고민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포교사 인재만 외치던 시대에서 이제는 새로운 퍼러다임이 가능한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지금의 현대사회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춘 시기 적절한 유능한 포교사의 육성이 한국불교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윤을암 신임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한국불교 융성의 새 역사를 쓸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전국신도회 중앙회장 취임사를 하고 있는 윤을암 신도회장>

이와 관련하여 윤 회장은 "한국불교의 무궁무진한 미래전략의 발전을 위해 생활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창의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인재를 육성 발굴하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는 능력있는 인적자산과 천재적 발상을 하는 인재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인색했지만 이러한 때에 전국신도회 중앙회장으로서 눈 밝은 선지식들과 함께하여 우리의 미래를 함께 보고 함께 고민하여 한국 불교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윤 회장은 "능력있는 포교사 육성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글로벌시대에 한국불교 포교사 육성에 대한 책임을 가진 진지한 시점에서 창의적이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힐 포교사 육성에 대한 한국불교 종책사업이 근본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윤 회장은 "비록 지금은 한국불교 포교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어렵고 불투명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낸 불자들이다"면서 "우리 불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노력한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한국불교 융성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회장은 "모든 한국불교 불자들이 대한민국의 불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실천을 구체화하고 동체대비 정신을 구현하며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높여 계층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향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속에 실천하여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사회의 토대를 만들어 그 토대위에서 불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국민대통합의 새 시대를 불자님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회장은 "지금 한국불교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종단간의 갈등과 문중의 파벌로 인해 암울한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 불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손잡고 나아가자"고 설파했으며 "전국 불자님들이 기다려온 새로운 변화를 열어 불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불교의 시대를 만들어 우리 모든 불자들이 마음을 나누며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헤쳐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자

우리 불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국불교 도약의 계기로 삼자

백천사에 머무르며 조상을 천도하고 불심과 하나가 되다

佛 心

"자비만신(慈悲滿身)의 화신(化身)도량 백천사!
요익중생의 복전을 회향하고 있습니다."



"
권속들이 영가를 위해 재를 올리고 복을 심어주면
그 공덕의 칠분의 일은 영가에게 가고
칠분의 육은 살아 있는 이에게 있느니라.
〈지장본원경 이익존망품〉



△ 와룡산 백천사 법당 내부 전경 및 만덕전 법당 나만봐 부처님 전경 등 조상위패 모형.

백 천 사 BAEKCHEONSA
세계최대 약사와불 몸속법당 와룡산 백천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326-2
TEL : 055)834-4010 FAX : 055)835-4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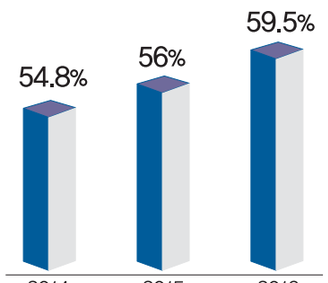
삽화 · 박구원

스포츠 포교로 '불교 대중화' 꽃피우자

이제 스포츠 포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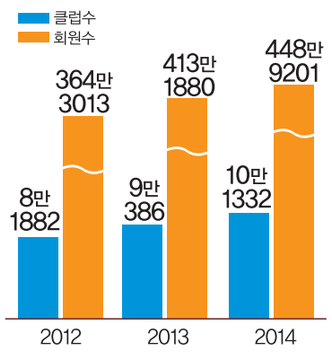
프롤로그

체육활동 참여율 연도별 비교



〈자료출처 : 2016 국민생활체육실태조사〉

체육동호인 클럽 및 회원수 추이



〈자료출처 : 2014 한국체육지표〉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웰빙 열풍이 맞물리면서 한국인은 '건강'에 대해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건강과 함께 대두되는 레저 활동은 바로 '스포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1회 이상 규칙적인 체육 활동에 참여한 국민은 59.5%로 2014년 54.8%, 2015년 56%에 비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50~70대 장년 · 노령층의 체육활동은 다른 연령대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통계 결과는 현재 한국인이 자기 관리 차원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있음 여실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스포츠를 통한 포교는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포교 계층'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 스포츠 포교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도 있다. 올해 발표된 조계종 호법부 조사국장 지상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스포츠 포교방법 연구'에 따르면 사찰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대한 홍보만으로도 스님과 불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 이는 일반인 4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얻은 결과이다.

이에 대해 지상 스님은 "사찰체육대회의 정보습득만으로 불교 전반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스님의 이미지 또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사찰 주관 체육대회는 간접 포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연구 결과가 개신교에도 있다. 양웅비 씨의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기독교인의 교회 내 스포츠 활동 참여와 교회 · 여가 · 생활 만족과의 관계'에 따르면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7곳 교회서 100명의 교인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독교인들이 교회 내 스포츠 프로그램을 참여 빈도가 많을수록 교회와 생활,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효과가 예상되지만, 한국불교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스포츠 포교는 불모지에 가깝다. 현재 조계종은 체육인 전법단과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포교를 진행 중이다. 체육인 전법단은 매주 화요일 올림픽공원 선수법당에서 법회를, 매주 목요일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자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불자 체육인 조직화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체육인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등도 진행한다.

체육활동 인구 증가 추세지만
불교 스포츠 포교 인프라 저조
現 종책 '엘리트 체육'에 집중
생활체육분야 스님 원력 의존

개신교 80년대부터 선교 본격화
전문 법인 단체 등 체계화 이뤄

사찰 체육대회 불교 호감도 높여
지도자 양성 · 조직화할 법인 필요

문제는 현재 스포츠 포교 종책이 사실상 '엘리트 체육' 분야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신도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포교는 여전히 관심있는 몇몇 스님들의 원력에만 의존하고 있다.

반면, 개신교계는 스포츠가 가지는 대중성과 파급력을 일찍이 파악하고 1980년대부터 전문 법인을 창립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대표적 단체가 (사)세계스포츠선교회다. 이들 단체는 1978년 태릉선수촌 신우회 조직부터 1987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할렐루야축구단, 할렐루야 태권도시범단 등을 자체 조직으로 갖고 있으며, 분야별 대회 개최와 선수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통한 선교로 유명하다.

또한 예장 소속 칼빈대의 경우 스포츠 선교학 전공을 별도로 개설할 정도로 스포츠 선교에 대한 학술적 인프라와 활용도도 높다. 이들은 스포츠 선교학 개론을 비롯해 관련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돼 있다.

불교계가 스포츠 포교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다. 1986년 신문보도에는 "복싱으로 포교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대명 스님의 사연이 실렸다. 스님은 1995년 신인왕전에 출전했으나 8강서 고배를 마셨다는 보도도 있다. 태릉선수촌 불자모임인 한마음불자회가 창립된 것은 1987년이다.

종단적 관심은 2000년대 이후다. 2004, 2005년 불자대상으로 골프선수 박세리 · 축구선수 박지성 씨를 선정했으며, 2006년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스포츠를 통한 포교활성화 연구'를 주제로 제21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2007년에는 체육인불자연합회가 2011년에는 체육인 전법단이 각각 창립됐다.

지난 10년동안 불자체육인 지원과 조직화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2006년 포교종책연찬회서 이미 제시됐다. 당시 '스포츠를 통한 포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김창섭 경희대 강사는 법인화 된 스포츠 포교단체를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붓다 여가스포츠 연구원(가칭)'을 설립해 불교계 스포츠 포교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 · 홍보할 것을 방안으로 내놨다.

이어 △붓다스포츠 문화센터 건립 및 스포츠 동호인 클럽 육성 △연예인들로 구성된 불자스포츠부 결성 △일반학교 운동부와 자매결연을 통한 선수행 프로그램 운영도 스포츠 포교 방편으로 제시했다.

김 씨는 "불교계 기관 및 사찰, 불교대학에서 종목별 스포츠 지도자를 배출해 스포츠 포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스포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태릉선수촌 선수 및 프로 스포츠 스타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스포츠 포교에 나서고 있는 스님과 실무자,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0만 1332곳의 체육 동호회 · 클럽에서 440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2014년 기준) 생활체육인구를 불교 인구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종교성을 띠지 말고 순수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불교 팀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다음 단계로 생활체육활동 지원, 대회 개최, 우수선수 발굴 등의 일들이 이루어지면 포교활동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최근 불교계가 종합복지관을 많이 수탁하고 있다. 복지관 안에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한다. 공간적 활용이 어렵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생활체육은 종목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다. 시작만 한다면 분명 포교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禪教宗

宗正 眞性 法雲

元老議長 龍岩 理事長 華嚴
總務院長 三柱 教育院長 覺明 布教院長 知賢
監察院長 宰性 中央宗會副議長 普覺
組織委員長 導鏡 慈悲實踐會長 光明心
總務部長 光恩 教務部長 法光 財務部長 智雲
教育部長 正圓 布教部長 東海 社會部長 一覺

全 宗徒 一同

입종을 환영합니다
불조의 혜명을 잇고 초대법왕 일붕존자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를 선도해 나아가고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본 종단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대덕스님들을 환영합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법당사진, 수계증간부스님 추대장 및 위촉장
■ 입종문의 : 총무원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총무원 : 대전 중구 대흥로 88 다솜타워 7층 전관 / 전화 042)242-1080 / 팩스 042)252-1081

명상 · 신행활동, 선수 심리에 긍정 효과

불교, 스포츠 분야 어떻게 적용되나

불교는 절 수행을 제외하면 매우 정적인 활동이다. 반면 스포츠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매우 동적이다. 전혀 접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교와 스포츠는 여러 상관관계와 상호 적용 가능성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불교 경전에서 운동은?

먼저, 불교 경전에서는 운동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까? 조계종 호법부 조사국장 지상 스님은 박사 논문 '스포츠 포교 방법 연구'에서는 경전 언급 사례를 거의 없으며, 다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는 가르침은 존재한다고 했다.

실제 〈상윳따 니가야〉에는 "수명과 건강, 아름다움과 명성, 명망과 천상, 높은 가문과 고상한 즐거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현자들은 공덕을 지으면서 불방일을 찬탄한다"고 설하고 있다. "수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게으르지 말라"는 의미인데, '몸과 마음을 단련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 스님은 "성도 이후에 붓다의 삶은 중생구제를 위해 매일 같이 걷는 것이 일상이었다"면서 "육체적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높은 가치를 둔 것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정신적 성숙을 위한 굳건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 유무와 경기력의 차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종교의 바탕이라고 한다면, 신행활동 역시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2015년 김영민 씨의 한양대 생활스포츠학과 석사학위 논문 '골프 선수들의 종교적 신앙심과 심리적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종교 신앙행위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5일 체육인불자연합회가 평창 월정사에서 개최한 올림픽 선전기원 템플스테이에서 참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

골프 · 양궁 등 집중 필요한 선수
명상 · 신행 시 긍정적 효과 얻어
선수에게 심리적 안정감 가져와

불교서 운동관 직접 설명 없지만
"육체 · 정신 건강 유지하라" 강조

노인 체육활동 시 종교 유무따라
일상생활서 만족도 차이 보이기도

김 씨는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을 신앙하는 KPGA · KLPGA선수 8명을 선발해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불교를 신행하는 두 명의 골퍼는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술회했다.

"골프는 다른 스포츠와 달라 정지돼 있는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종목이라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하는데 불교의 명상법과 호흡을 같이하면 집중력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자 골퍼 A〉

"경기 상황에서 잡생각이 들고 불안할 때 명상을 하는데 마음 안정과 집중력을 높여줘 지속적으로 경기 상황에서 많이 활용하려 한다" 〈불자 골퍼F〉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김 씨는 "장시간 경기를 진행하는 골프는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키란 좀처럼 쉽지 않다"면서 "명상 수행이 하나의 과제에 의식을 집중시키는 훈련 방법인만큼 주의력 · 집중력 향상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를 하는 노인이 종교 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차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승훈 씨의 명지대 사회체육학과 석사논문인 '종교유무에 따른 노인의 스포츠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경기도 노인시설에서 활동 중인 65세 이상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종교와 스포츠 활동을 모두 하는 노인이 종교 없이 스포츠만 하는 노인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이 씨는 "종교기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따라서 종교는 무력감, 소외감 등을 느끼는 노인에게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의 회복을 갖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상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최근에는 불교 수행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이하 MBSR)과 마음챙김 수행을 선수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스포츠체육학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심신통합치유학 박사과정 박남수 씨는 2011년 한국정신과학학회지에 발표한 'MBSR이 양궁선수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양궁선수 선수 3인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면담을 실시해 변화 상황을 살폈다.

선수들은 "집중하고 복부나 다른 감각 쪽에 마음챙김을 하다보니 훨씬 더 집중되는 것 같았다", "배로 호흡하다보니 긴장도 풀리고 컨트롤하기 쉬었다" 등 인지적 · 신체적 불안이 감소하고,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가 배양됐다.

또한, 한국체육대 장덕선 · 김진호 연구팀을 2016년 스포츠 사이언지에 발표한 '마음챙김 명상이 양궁선수의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양궁협회에 등록된 대학선수 11명에 대해 위빠사나 명상 등을 활용한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행 결과 이 같은 명상프로그램은 경기력, 자기통제, 스트레스 대체 능력 전반에서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마음챙김 명상의 특징은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양궁의 특성도 한 발 한발 쏠 때마다 집중을 요하는 종목이다. 마음챙김 명상이 매 순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웃종교 · 해외종교 스포츠 선교 사례

이론 · 조직 만전… 해외까지 영역 확장

한국에서 개신교의 스포츠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85년 영국인 선교사 허드슨에 의해서다. 그는 축구와 외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며, 1906년 대한체육구락부를 만들어 경기를 열기도 했다.

본격적인 스포츠 선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1903년 YMCA를 설립하면서 한국 초기 개신교 스포츠 선교는 본격화 됐다.

대표적 단체가 (사)세계스포츠선교회다. 이들 단체는 1978년 태릉선수촌 신우회 조직부터 1987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할렐루야 축구단, 할렐루야 태권도시범단 등을 자체 조직으로 갖고 있으며, 분야별 대회 개최와 선수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통한 선교로 유명하다. 이들은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모로코 등에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현지인들에게 태권도를 교육하며 자연스럽게 개신교를 전파한다.

인도와 네팔에서도 태권도 선교는 이뤄지는 데 파송 선교사들은 훈련을 마치고 20분 간 기도 찬양을 진행하기도 한다,

축구도 개신교계의 선교 아이템이다. 대표 사례로는 이영무의 할렐루야 선교 축구단이 있다. 1980년 한국 최고 프로축구팀으로 창단된 할렐루야 선교 축구단은 경기자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전도했다. 이후 경제난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자 1983년 아마추어 축구단인 임마누엘 축구단으로 축소됐다.

또한 개신교의 경우 스포츠 선교에 대한 학술적 인프라와 활용도도 높다. 예장 소속 칼빈대의 경우 스포츠 선교학 전공을 별도로 개설할 정도다. 스포츠 선교학 개론을 비롯해 관련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돼 있는 것도 개신교계의 강점이다.



세계스포츠선교회 홈페이지 대문 화면.

선교사들이 스포츠 활동 전파
1970~80년대 조직화 시작해
태권도 · 축구 등 자리매김 확고

해외종교의 스포츠 포교 사례로는 중국의 신흥종교인 파룬궁을 들 수 있다. 파룬궁은 불교와 도교 원리에 기공이 결합돼 있는 수행을 한다. 1992년 중국서 리홍즈가 창시했고, 기공열풍이 불면서 1억 명이 파룬궁서 수련했다. 결국 중국은 1999년 파룬궁을 단순한 사교집단으로 몰아 포교를 금지시켰다.

신성민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 정 설제 정광

원로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총무원장 **우석** 총무부원장 **운오. 보원**
규정원장 **성암** 상벌위원장 **일륜**
원로위원 **혜초 수진 수경 혜봉 성호 법진 서응**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 회 의 원 법진 자광 법원 현수 지광 향봉 명운 수월 자성 일륜 무공 성죽 마명 청암
선거관리 위원장 석불 선거 관리위원 현수 무공 정운 법희
종 학 원 장 옥천 고 시 원 장 자광 의 전 실 장 석해 포 교 원 장 선운
문 화 원 장 효산 복 지 원 장 범일

부산교구원장 석불 울산교구원장 지광 대구교구원장 석해 경남교구원장 월함 제주교구원장 법원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경북교구원장 성죽 강원교구원장 성암

교 육 부 장 도선 문 화 부 장 대호 기 획 부 장 법희 사 회 부 장 해인 포 교 부 장 성우
복 지 부 장 원해 의 전 부 장 무해 재 무 부 장 법선 사 회 국 장 보무 규 정 국 장 남주
사 무 국 장 향적 조 사 국 장 최석주

(사)대한선불교원효종 이사장 청암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총무원장 우석 주소 : 경주시 충현로 3길 4-1 TEL : 054)743-0700

종회의원 선거

대한불교원효종 종법에 따라 아래 일정에 맞추어 종회의원 선거를 공고 합니다

▶ **종회법 제6조에 의거하여 각 교구 선거위원회 구성**
일 시 : 2017년 10월 10일 (화) ~ 2017년 10월 20일 (금)
장 소 : 각 교구 종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 **종회법 제7조에 의거하여 종회의원 입후보 신고**
일 시 : 2017년 10월 23일 (월) ~ 2017년 10월 31일 (화)
장 소 : 각 교구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 **종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의거하여 종회의원 전형**
일 시 : 2017년 11월 2일 (목)
장 소 : 총무원 회의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심사 후 적부 판정)

▶ **종회법 제11조 제12조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확정 공고**
일 시 : 2017년 11월 9일 (목)
장 소 : 총무원 게시판

각 교구 종회의원 배정표

경북교구 4명	광주 2명	경남교구 2명
전북 1명	울산교구 3명	제주 2명
부산교구 3명	사단법인 단체 1명	강원교구 2명
대전교구 2명	직할교구 2명	총 24명

불기 2561년 9월 8일

선거관리위원장 석 불

■ 총무원주소 : 경주시 충현로 3길 4-1 전화 (054)743-0700
문의 및 판결문을 원하시는 분은 총무원으로 연락바랍니다.



올해 열린 달마 오픈 스노보드 대회에서 한 선수가 멋진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달마 오픈은 한국에서 최고, 최장수 대회로 인정받았다.

원력으로 심은 '스포츠 포교' 탐스럽게 여물다

스포츠 포교 성공 사례

아직 인프라가 약한 불교 스포츠 포교에도 오로지 스님의 원력과 사부대중의 관심으로 지역 축제이자 유명 대회로 성장한 사례들이 있다. 이들은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15년까지 불모지였던 불교 스포츠 포교에도 싹이 틔우고 있었다.

스님 원력이 국내 최대 대회로

– 달마 오픈 스노보드 대회

불교 스포츠 포교 사례 중 가장 성공한 것은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달마 오픈 스노보드 대회'다.

2003년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로 시작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은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장수 스노보드대회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제는 대한스키협회와 공동주관하며 국제 인증 대회로도 성장했다. 총상금 규모도 5000만 원에 이른다.

달마 오픈 스노보드대회는 오로지 호산 스님의 개인 원력으로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대회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스님은 "스노보드 국가대표 중 불자 선수들이 대다수"라며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간접적인 포교가 된다. 불교의 품 안에서 꿈나무들이 꿈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미래세대 포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도의 명물이 된 체육 축제

–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

강화도 전등사는 2005년부터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로 강화군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열린 12회 대회에는 117개 팀 760여 명 선수와 노인회 회원,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함께 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가을축구한마당의 모습. 부산 지역 사찰 종무원과 스님들이 참여한다.



강화도의 명물 행사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에서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다.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는 사찰 신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천 · 강화 지역 거주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일반인 대상 체육대회로 실시되고 있다. 10년 넘게 대회를 운영하는 만큼 이미 지역에선 명물 어르신 체육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대회 진행 중에는 동국대 한방병원의 무료 진료와 약손 봉사단의 마사지 봉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들도 진행된다.

설악권 주민 모여 'Sports Time'

– 신흥사배 축구 및 전통문화축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매년 축구 및 전통문화한마당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처음에는 지역 축구대회였지만 2014년부터 지역 축제를 아우르는 행사로 성장했다.

'신흥사배 축구 및 전통문화한마당축제'는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4개 지역서 1만 5000명이 참여하는 강원 지역 유명 축제이다. 또한, 사생대회, 글짓기 대회, 군장비 전시, 어린이 축제, 투호대회,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볼거리다.

신흥사의 행사는 스포츠 포교의 롤모델이라고 할 만하다. 지역 포교 일환으로 2010년 설호 축구단이 설립돼고,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청년부와 장년부 등 2개팀 선수 60명과 50대팀 창단에 이어 20 · 30대 풋살팀도 창립됐다.

'템플민턴'을 아시나요

– 회암사 템플민턴 야단법석 한마당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찰 중심의 체육대회이다. 이 역시 회암사 주지 혜성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됐다. 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으며 9월 15일 대진대 체육관서 열렸다. 이번 대회의 동참인원은 전국의 아마추어 동호인 350개 팀, 1000여 명으로 지난해 170여 개 팀 500여 명 참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행사 중에는 배드민턴 꿈나무로 선정된 청소년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스포츠로 공동체 정신 확인

– 선운사 선운골 공동체 체육대회

선운사의 '선운골 공동체 체육대회'는 스님과 신도 그리고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로 사찰과 마을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선운사 사부대중과 인근 주민, 상인들로 구성된 선운골 공동체는 2010년부터 매년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약 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공동체 일원이라는 의식을 형성하고 상호 화합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된다.

오전에는 족구와 민속경기 등이 열리며, 오후에는 노래자랑 등 일반인 참여를 위한 부대 행사들이 진행된다.

여러분 즐거운 축구시간입니다

– 부산 원오사 축구 교실

부산 원오사는 이대호 롯데 자이언트 선수가 자주 찾아 장학금을 전달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지 정관 스님이 통도사 극락암 회주 명정 스님의 상좌로 있을 당시 이대호 선수와 인연이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이대호 선수는 스님에게 방과 후 학교인 꿈나무 공부방 아이들을 사직 운동장에 초청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10년째 진행 중이다.

올해 5월부터는 청소년 축구 교실을 문을 열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운봉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축구교실은 원오사 신도들의 보시 협조 및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부산에서는 지역 사찰 종무원과 스님들이 참여하는 가을축구한마당과 같은 축구 대회도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 사찰 및 불교단체에서 스포츠 동호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사례도 있다. 평창 월정사는 사회인 야구단인 '만월 야구단'을 창단했으며, 울산 월봉사는 2012년 '월봉사 샤프니스 야구단'을 창단했으며, 2014년에는 '달빛고운절 월봉사 축구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불교계에 몸담고 있는 사회인들이 모여 2011년 창단한 축구회인 FC붓다는 불교계 업체, NGO, 언론매체, 신행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불자들로 구성돼 월 2회 이상의 자체 경기와 친선 경기를 치르며,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밖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축구모임 사자후, 봉은사 · 불광사 연합팀도 축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大韓佛教傳統曹溪宗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석능인 대종사

종 정 : 혜강당 석능인대종사 (석가여래부촉법 제77대)

명예종정 : 각암. 지산

원 로 의 원 : 범아. 보각. 덕암. 지원

종 회 의 원 : 지우. 심공. 석담. 혜공. 성원. 길산. 해인. 연담. 향산. 보영. 은산. 보현. 혜광. 혜각. 현각. 여산. 지산. 지각. 법성. 갈마. 원산. 대근. 송암. 혜명. 지관. 현도. 정임. 지명. 석호. 지원.

원로의장 : 법장 / 종회의장 : 도안 / 총무원장 : 대웅 / 중앙연수원장 : 혜광
사정원장 : 귀천 / 승정원장 : 덕암 / 법계고시위원장 : 혜암 / 중앙선원장 : 무성
승가대학장 : 무척 / 교육원장 : 무아 / 포교원장 : 효천 / 율원원장 : 두현
호계원장 : 혜명 / 염불원장 : 상호 / 문화원장 : 진광

총무부장 : 도법 / 재무부장 : 연제 / 교육부장 : 응수 / 호법부장 : 보관
사회부장 : 성도 / 규정부장 : 광명 / 비구니부장 : 길상 / 문화부장 : 청아
예경실장 : 지현 / 사무국장 : 적광

서울교구종무원장: 법륜 / 울산교구종무원장: 무정 / 경기교구종무원장: 불산
인천교구종무원장: 진각 / 경남교구종무원장: 무척 / 충북교구종무원장: 길상
충남교구종무원장: 지원 / 대구교구종무원장: 법천 / 경북교구종무원장: 석강
부산교구종무원장: 두현

종도 연수교육일 : 2017년 10월 28 ~ 30일 (2박 3일) 총본산 각황사
현재 종도모집 중입니다.

전국신도회 회장 : 김용규법사 / 전국신도회 총무 : 김도원
서울신도회 회장 : 최정익 / 인천신도회 회장 : 신광식
경북신도회 회장 : 김후진 / 대구신도회 회장 : 석용태 / 부산신도회 회장 : 정승원

전국포교선원 : 안양선원. 시흥선원. 천안선원. 부평선원. 주안선원. 의정부선원. 화성선원. 공항선원. 산본선원. 심곡선원. 성남선원. 권선선원. 연무선원. 계산선원. 연수선원. 장안선원. 원산선원. 원효선원. 응암선원. 인계수원선원. 부천선원. 방화선원. 병점선원. 소사선원. 신천선원. 오산선원. 광명선원. 정명선원. 문수선원. 관음선원. 관악보현선원. 대구보현선원. 원주보현선원. 제천보현선원

전 국 포 교 사 : 조광래. 송성재. 박승정. 오유정. 박병갑. 오현국. 임종국. 김진우. 정태호. 정철수. 조해숙. 김순애. 신주용. 우흥렬. 현상호. 김흥찬. 방선영. 서현식. 박석재. 홍성영. 나인정. 신명수. 이도경. 김상용. 기지영. 신재식. 원순례. 한병환. 박찬희. 김창용. 박정자. 이호철. 홍성도. 신동혁. 신동훈. 임용호. 김명덕. 정항기. 최광호.

총 본 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 각황사 ☎ 053)325-0400. 010-3514-9811. 팩스 053)325-4848
전국신도회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7번길 17 205호 ☎ 031)498-5123. 팩스 031)498-4040

엘리트-생활체육 '선순환' 포교 생태계 구축

'스포츠 포교' 전문가 제언

스타 스포츠 선수를 보기 위해 경기장 찾고, 체육 동호회나 체육관에 나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불교 역시 몇몇 교구본사와 일선 사찰, 스님들의 원력으로 대회 열거나 사회인 동호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종단 차원에서는 체육인 전법단과 체육인불자연합회가 활동 중이다.

하지만, 일선 스님과 전문가들은 현재 불교 스포츠 포교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스포츠 포교 방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지상 스님은 "선수 지원과 법당 관리는 1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 스포츠 포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스포츠 포교에 대한 인식 부족을 먼저 지적했다. 그는 불교계가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또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포교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견도 존재한다.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창립해 회장을 역임한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現대한체육회장)은 "현재 선수촌 법당 법회 등은 일상적인 신행활동인 것을 맞지만, 이를 통해 스타 선수이 불교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런 선수들이 육성돼야 일반 대중을 불교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 스포츠 포교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종단·교구·사찰 차원의 대회 개최를 제언했다.

축구를 통해 부산 지역 생활체육 포교를 이끌고 있는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생활 체육은 포교는 사찰에서 원력을 갖고 대회를 개최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 "만나고 어울리고 같이 경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한 가지 일화도 소개했다. 스님은 "교회에서 대회를 열면 등록한 청소년이 1500명이 넘는다. 우리 사찰 신도 자녀 중 한 명이 친구가 같이 교회 대회에 나갈 것을 끈질기게 권유해 곤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런 대회로 아이들은 서로를 포교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체육은 대회를 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 최장수 스노보드 대회인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달마배 대회를 개최하며 '불교를 믿어라'고 말한 바가 없다. 처음에는 선수들도 '1~2회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자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스노보드 국가대표 중 80%이상이 불자 선수다. 알파인의 경우 국가대표 6명 중 5명이 불자"라면서 "대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아이들 중 6쌍의 주례를 봐주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신흥사 설호 축구단을 이끌었던 지상 스님은 사찰 차원의 팀을 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예를 들어 사찰 내 축구단 하나를 지원한다고 하면 1년에 1번 유니폼과 각종 대회비 지원, 정기 회식을 한다고 해도 약 1천만원 예산이면 충분하다"면서 "1년에 1천만 원대 예산이면 새로운 직능·계층 포교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10만명 정도 중소도시의 포교당이라며 1개 정도의 스포츠단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소위 구단주가 스님이고, 불교의 특징이 결합돼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불자가 된다. 이들은 스포츠로 맺어진 도반이기 때문에 충성도가 매우 높다"면서 "요즘에는 생활체육의 범위가 넓다. 선무도, 태극권과 같은 자기 수련 중심의 무술도 사찰에서 동호회를 운영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교수도 "생활체육을 활용한 포교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며 "우선 종교성을 띠지 말고 순수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불교 팀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생활체육활동 지원·대회 개최·우수선수 발굴 등의 일들이 이뤄지면 포교활동은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기흥 회장은 교구본사별로 특정 종목을 지원하고 선수 양성, 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입적한 조계종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저에게 제안한 포교 불사였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고 밝힌 이기흥 회장은 "내년부터 수덕사에서는 바둑대회를, 동화사에서는 승시와 연계한 씨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향후 사찰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트 체육의 포교 방향으로는 불교 명상 수행과 연계해 선수들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 최근 체육학계는 마음챙김 명상, 집단 명상과 같은 불교 수행법을 기반한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실험하는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하림 스님은 "시합에 임했을 때 이뤄지는 심리전에서 선수를 돕는 것은 평소 연습된 정신력"이라며 "명상으로 스포츠 집중력 향상하는 불교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들의 긴장감, 슬럼프 극복 및 관리는 불교가 정말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한 인재가 배출돼야 하며, 전문 센터 건립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철 교수는 "불교계가 전문 스포츠 영역에 대해 지원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프로그램이 불교수행을 응용한 스포츠 명상법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스포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 성과를 거두면 많은 선수들이 관심을 갖게 돼 있다. 성공사례 발굴에 집중하면서 스포츠 명상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흥 회장 역시 "조계종립 동국대에는 체육학과가 있는 만큼 불교 수행과 스포츠를 연계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선수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단과 불교학계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포교 일선 스님과 전문가들은 종단에 대해 스포츠 관련 포교 조직을 확대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주문했다. 호산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전문가와 기획해 스포츠 부서나 법인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접근성이 좋은 생활체육 종목을 지원하고 대회를 열면서 대중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 스님은 "스포츠 포교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전법단을 만들어 엘리트 및 생활체육 분야를 연구하고 이를 포교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유명 불자 엘리트 선수들을 참여시키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도법사를 선발하면 자연스럽게 포교활동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응철 교수는 사찰 내 체육시설 확충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찰 땅을 이용하여 스포츠 시설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배드민턴, 스쿼시, 농구, 게이트볼, 야구, 축구 등 가능한 분야들을 선정하고 경기장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포교가 된다. 분야별로 대회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면 불자들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호산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최장수'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자연스럽게 선수배출·佛法홍포 조그만 관심, 불교 대중화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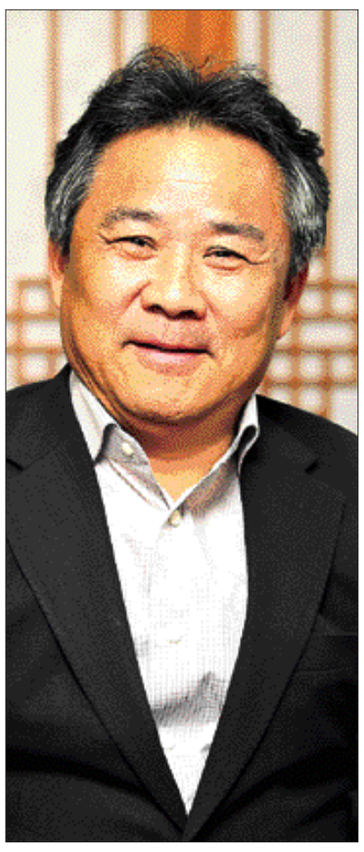
지상 스님
조계종 호법부 조사국장

"엘리트·생활체육 모두 아우르는 종단 '스포츠 전법단' 창설해야 도심 법당서 스포츠 활용 필요"



하림 스님
부산 미타선원 주지

"사찰서 대회 여는 게 큰 도움돼 단순 선수 지원보다 활용 창출을 선수 슬럼프 관리, 불교로 가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先엘리트 체육 포교로 인재 발굴 내년 사찰 씨름·바둑대회 계획 중 교구별 특화 종목 지정 육성하길"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사찰 부지 이용해 체육시설 조성 자체 대회리그 개최·팀 구성해야 스포츠 명상법 개발해 선수 보급도"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실상 산문종



실상선원 임 공
천 축 사 정 헌
용 암 사 지 공
천 지 사 천 공

대 중 일 동

실상선원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22-4 ☎ 02)745-8503
천 축 사 | 충남 논산시 계백송정4길 86-4 ☎ 041)734-2680
용 암 사 | 경북 청송군 개일월매길 736-54 ☎ 054)873-3607
천 지 사 | 전남 함평군 학동로 1110-102 ☎ 061)322-1498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올 가을 '꼭' 읽어야 할 추천 도서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불광출판사

E형 인간성격의 재발견

우리나라 스트레스 면역학의 선구자, 변광호 박사가세계 최초로 규명한 E형 인간!
인생 끝까지 몸과 마음 모두 행복하게 살다 죽는 'E형 성격 닮기' 프로젝트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이 책은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됐다고 여겨지는 초기경전 《니까야》를 통해서 《반야심경》의 원류를 찾아 해석한 내용을 담았다.
'니까야(Nikaya)'란 '모음[集]'이라는 뜻의 빨리어로, B.C. 3세기경에 성립한 초기불교의 경전 모음집을 가리킨다.
반면 《반야심경》은 B.C. 1세기, 불교 교단의 분열로 촉발된 대승불교 운동에 힘입어 형성된 반야부경전(般若部經典) 중 하나이다.

심리학자의 인생실험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자가 자신의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기구원으로서의 명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76년간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응어리진 고통에 맞서 터득한 지혜, 그리고 이 순간에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이들에게 들려주는 진짜 조언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E형 인간성격의 재발견 / 변광호 저 / 15,000원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 이중표 역해 / 20,000원
심리학자의 인생실험실 / 장현갑 저 / 16,000원

비움과 소통

무량수경 심요

정토종과 선종, 화엄과 밀교의 정수를 담은 최후의 불경 '무량수경' 회집본을 최초로 강설한 책. 하련거 대사가 무량수경 5종 역본을 회집한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佛說大乘無量壽莊嚴淸淨平等覺經』을 경문으로 삼아, 황념조 거사가 그 요점을 풀이(요해)하고 정공 큰스님이 강의(강해)한 국내에서 번역된 가장 상세한 무량수경 해설서이다.

대혜종고 정법안장(전2권)

대혜선사 안목으로 본 선문답 661화
부처님과 321인 선사의 661개 선화禪話를 통해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참마음 깨닫기. 간화선의 확립자인 대혜종고선사가 화두 661화에 대해 독자적인 게송이나 평을 단 선문답집. 원오선사의 『벽암록』이 100칙則의 공안(화두)으로 구성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책은 무려 6배에 달하는 선어록이다. 선禪 용어사전 첨부.

백봉 거사의 선문염송요론

선종의 교과서인 『선문염송』의 난해한 선문답이 담긴 선화(禪話)를 바탕으로 백봉 거사가 번역과 강론을 통해 화두를 풀어헤쳐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들은 '지금 여기' 바로 이 당체(當體)에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선종(禪宗)의 핵심 종지를 깨닫는 기연(機緣)을 갖게 될 것이다.



무량수경 심요 / 정공법사 저 · 허만항 편역 / 33,000원
선문답 661화 / 대혜종고 저 · 석영곡 옮김 / 각권 60,000원
선문염송요론 (전3권) / 백봉 김기추 저 / 각권 12,000원

담앤북스

달라이 라마, 명상을 말하다

근작 중 그의 수행자다운 진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명상 수행서다. 이 책의 특징은 달라이 라마가 직접 자비심을 계발해야 할 이유, 명상 자세와 방법 등의 기초 수행부터 더 깊은 단계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직접 설명한다는 데 있다.

티베트 현자들이 비밀리에 전수한 마음수련의 모든 것
티베트 마음수련법 로종

티베트불교와 현대서양문화 양자에 정통한 저자가 로종의 7가지 핵심 가르침과 59가지 수행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설명한다. 타인의 언행이나 작은 시련에도 쉽게 부서지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현대인에게 마음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과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해법을 제시해 준다.

불교가 궁금한 이들에게 전하는 속 시원한 해답 33
불교는 왜 그래?

'불교신문' 현직 기자가 우리 주변에 스며 있는 불교문화를 보며 떠올릴 수 있는 궁금증을 33가지로 추려, 풀어 놓은 불교 입문서다. 저자 장웅연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불교의 가치와 깨달음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덕분에 누구나 알기 쉽고, 재미있는 불교입문서가 탄생했다.



달라이 라마, 페프리 홉킨스 저 · 이종복 옮김 / 15,000원
따렉 깝귄 저 · 이창엽 옮김 / 16,000원
장웅연 저 / 14,000원

운주사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

이 책은 티벳불교 샤카파 법맥의 무착대사가 보리심 수행의 핵심을 정리한 37개 게송이다. 불자들이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보살행뿐만 아니라, 해탈로 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수행차제'를 아름다운 비유로 노래하였으며, 금강승 수행법의 정수까지 밝혀주고 있다.

인간불교, 부처님이 본래 품은 뜻

대만의 성운대사가 한평생 설하고 실천해온 인간불교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였다. 불교의 발생과 교리, 역사 등을 설명하면서 인간불교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교는 결국 인간을 위한 종교, 즉 인간불교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문수진실명경 역해

'문수진실명경'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찬탄하고 있는, 티베트불교에서 근간이 되는 경전 중 하나이다.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티베트 경론 번역에 힘쓰고 있는 중암 스님이 인도와 티베트 주석서들을 참조하여 방대한 설명과 각주를 달아 펴냈다.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 / 강미농 저 · 양관 옮김 / 58,000원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 성운대사 저 · 조은자 옮김 / 22,000원
마음이 아플 때 따라 해 봐! / 중암선해 저 / 35,000원

여시아문

그냥 무조건이야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 가는길!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실상의 가르침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속에 담긴 선지(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 참말씀

삶은 고가 아니다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속의 불법수행

故 대행 큰스님과의 수행 문답집. 일상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들과 고통스런 의문들을 큰스님께 묻고, 그에 대한 스님의 선(선)적인 답변을 실어놓은 이 책은 어느 누가 읽어도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생활참선의 지침서다.



그냥 무조건이야 /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11,0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10,000원
생활속의 불법수행 /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15,500원

대유학당

초씨역림(焦氏易林)



주역의 괘상 변화를 경전과 고사를 활용하여 문학적으로 승화한 책. 64괘를 64변해서 확장한 4096효에 대한 점풀이를 썼으므로 '역림'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중국의 황실에서 비장하며 몰래 전한 점학의 귀족 주역점, 육효점에 활용 가능!

16×26cm 양장본 | 2,464쪽 | 2권 180,000원 | 초연수 저 | 윤상철 번역

대산주역강해(周易講解)



대산 선생님의 흥사단 강의를 바탕으로 하여 64괘와 384효를 세세히 정리, 초보자부터 전문연구가 모두 언제나 곁에 두며 보아야 할 책. 20여년을 한결같이 독자의 사랑을 받아온 주역의 교과서.

19×26cm 양장본 | 상경, 하경, 계사전 3권 구성
김석진 | 각권 352쪽 | 20,000원

관상학 사전



신체 각부위에 대한 자세한 그림과 상세한 해설을 하고, 관상의 개선방법을 실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속에 숨어 있는 음성의 상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다. 그 양과 깊이에서 단연 독보적이다.

19× 26cm 양장본 | 687쪽 | 50,000원 | 함산 박중환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의 열쇠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조계종 출판사

깨달음의 재발견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해탈 · 열반을 증득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책은 도발적이지만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초기 경전으로부터 전제와 과정, 그 경지에 대한 단초를 찾아내고, 현대 실천자들의 증언을 통해 깨달음에 대해 유추한다. 일본 내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달음'에 관해 고민하게 된다.

불화의 비밀

한국 전통미술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불화. 이 책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불화의 역사와 그 조성 배경 등을 역사, 문화, 종교의 다각적 시각으로 소개한다. 또한 대표작을 선정해 불화의 거의 모든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여기에 350여 컷의 도판은 마치 불화 박물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 준다.

마음챙김이 만드는 뇌 혁명

'마음챙김' 명상은 국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불교의 대표 수행법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 이 책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음챙김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과학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리하여 현대의 우리가 안고 있는 정신적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탐색한다.



깨달음의 재발견 / 유오가와유지 저 · 이광준 옮김 / 15,000원

불화의 비밀 / 자현 저 / 30,000원

마음챙김이 만드는 뇌 혁명 / 제임스 킹스랜드 저 · 구승준 옮김 / 19,800원

불교시대사

이뭣고 수행법

이 책은 불자들이 최상승법인 참선문에 들어와 삶속에서 소원성취는 물론 다겁생래로 지어온 업장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간화선인 "이뭣고" 수행방법을 제시 하고자 부처님의 말씀과 선지식들의 주옥같은 선문답과 법문을 내용으로 하여 제가불자들이 급변하는 현대 생활 속에서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착버리기

이 글은 일타 큰스님께서 생전에 들려주신 육바라밀 법문을 1. 2권으로 나누어 1권에서는 보시, 지계, 인욕의 장으로 묶었고, 2권은 정진, 선정, 지혜의 장으로 나누었다. 우리들의 삶을 일깨워주신 주옥같은 법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될 글들을 모아 엮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언제 들어도 가슴에 새겨두고 믿고 따를 만하다

행복만들기

이 글은 우리들의 삶을 일깨워주신 주옥같은 법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될 글들을 모아 엮었다.
누구나에게 불성은 있으나 그 불성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본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일타 큰스님께서는 누구나 쉽고 간결한 어투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뭣고 수행법 / 청운 저 / 13,000원

집착버리기 / 일연학 연구원 엮음 / 12,000원

행복만들기 / 일연학 연구원 엮음 / 12,000원

지혜의나무

마음이나 알자

마음이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을 환히 다 보고 다 아는 묘각의 각성에 대한 이야기! 석가세존이 묘각의 불안으로 밝혀 놓으신 경전을 근거로 마음의 생원설에 대한 이야기로 마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유교와 기독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통찰 합니다. 수학과 숫자, 십진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로 설명해 줍니다.

신 용호비결 1, 2, 3

『신 용호비결』은《용호비결》의 부족한 곳은 채우고,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 새롭게 구성된 도가전통 수련공법서이다.
신용호비결 2권은 도가 입문자를 위한 기본적인 도가道家의 수련비결을 다루고 있다.

도가 전문용어를 지양하고 보다 쉬운 문장으로 다듬으려 노력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의 대부분이 사실은 도道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자 한다.신 용호비결 3권에서는 경험과 실증을 통해 몸속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해독하는 방법과 부작용 없이 병의 뿌리까지 뽑아내고 온몸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건강법을 수록하고 있다.



마음이나 알자 / 천명일 저 / 15,000원

신 용호비결 1, 2 3 / 이승훈 저 / 1 · 2권 각권 18,000원, 3권 15,000원

열림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깊이 있고 절제된 문장을 통해 일상과 자연 속에 담긴 놀라운 깨달음을 전해 주는 법정 스님의 글과, 불일암을 십수 년 동안 오가며 그곳의 사계절과 소소한 풍경을 담은 최순희 할머니의 사진을 엮은 책이다. 소담한 사진과 법정 스님의 유려한 글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깨침의 순간

선승들이 초인적인 의지를 필요로 하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찾으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가? 또 자신이 깨우친 바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했는가? 진리를 향한 고승들의 수행과 기행은 긴장감을 자아낸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가는 선문답의 의미들은 무섭게 다가온다.

설전

『설전』은 성철과 법정이 나눈 대화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인연의 흔적들을 발굴하여 처음 책으로 엮은 것이다. '성철 불교' 의 본질을 끌어낸 법정의 지혜로운 질문과 거기에 화답하여 인간 존재와 현상의 심층을 드러내는 성철의 대답이 담겨 있으며, 성철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던 원택의 증언이 더해져 성철과 법청 사이에 있었던 일화들과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담긴 내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 법정 맑고향기롭게(엮음) 저 / 14,000원 책읽는 섬

깨침의 순간 / 박영규 저 / 15,000원

설전 / 성철, 법정, 원택(엮음) 저 / 13,000원

대도대한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환인 · 환웅 · 단군 이야기)

오랜 세월을 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 세상의 중심국으로서 인류에게 문명을 전해주며 세상을 이끌어 왔던 대한민족이었다.
한국, 배달한국, 대조선에 이르기까지 7,0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한 국가를 이루며 이어 왔던 대한민족이 열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과연 다시 뭉쳐 새로운 통일된 나라를 건국할 시기는 언제일까.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 대광 엘리사 / 15,000원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환인 · 환웅 · 단군 이야기) / 대광 엘리사 / 15,000원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 해광 하순천 / 15,000원

문젠

화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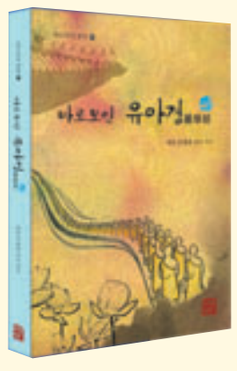
화엄경
18권까지 출간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 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 각권 15,000원

바로보인 유마경



禪의 일상, 禪의 누림!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유마경 | 20,000원

방거사 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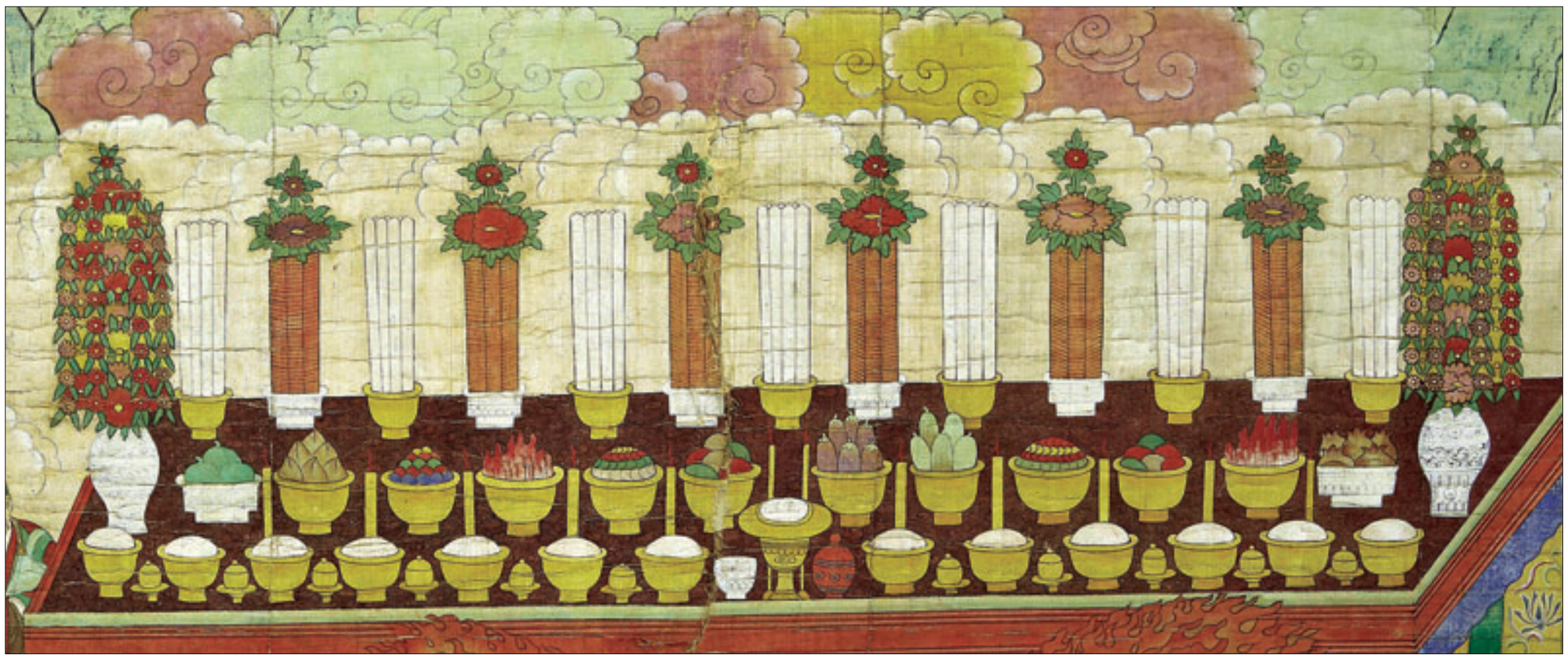
방거사어록 | 15,000원

탐욕의 아귀들, '甘露 法悅' 맛보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⑥ 목련존자 이야기 ㊦



성대하게 차려진 감로단의 모습. '쌍계사 감로탱'의 부분.

육신 벗어도 욕망 사라지지 않아
근본 무명에 노출된 존재가 '아귀'
시식단 '감로' 먹어야 해탈 가능해
감로엔 '지혜·자비'라는 상징 담겨



입에서 화염을 토하는 아귀의 모습. '보석사 감로탱'의 부분.

불교에서는 '죽는다'는 것을 '사대(四大)가 흩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대란,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육체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먼저 풍(風)에 해당하는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화(火)의 요소로 유지되었던 체온이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수(水)의 요소가 빠져나가 몸이 빳빳하게 마릅니다. 마지막으로 지(地)에 해당하는 피부껍질, 뼈 등은 다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업(業)'입니다. 죽음을 통해 육신은 벗었지만 여전히 욕망(탐욕 또는 집착)은 사라지지 않고 강렬한 에너지 상태로 존속하게 된다는 것이 불교의 윤회관입니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업의 덩어리를 영가, 선가라고 부릅니다. 이를 업식(業識), 무명업장, 영식(靈識)이라고도 부릅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영혼(soul)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몸이 없는 상태에서도 존재에 대한 강렬한 집착 또는 욕망을 갖습니다. 이러한 집착 때문에 깨달음 또는 해탈의 세계로 합일되는 것이 방해받는다고 하는군요. 업의 바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있는 줄로 착각하는 순간,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무의식이라고 가르키는 것이 불교에서는 업에 해당합니다. 무의식 속에 함장 되어 있는, 살아생전 자신의 업은 어디 가지 않고 모두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업의 성향에 따라 육도(六道) 중 한 곳에 태어나 다시 윤회를 반복한다는 것이 불교윤회설(佛教輪回說)의 골자입니다. 육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 있던 업이 그대로 노출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귀'입니다. 모든 존재의 가장 밑바탕에는 '근본 무명'이 있습니다. 근본 무명은 '유신견(有身見)'으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욕망이 비롯되어 결국은 유형의 물질로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또는 갈애)의 '움켜쥠의 힘'이 중음기간에 강렬하게 일어나는데, 이를 우리 선조들은 '아귀(餓鬼)'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지옥서 흑암지옥으로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업장이 두텁다는 이야기겠지요, 목련존자는 부처님 말씀대로 보살들을 청하여 대승경전을 독송하기도 하고, 49등을 켜고 방생을 하기도 하고 신번(神幡)을 만들어 세우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법력으로 아비지옥에서 나오기는 했어도 곧바로 해탈하지 못하고, 흑암지옥으로, 아귀로, 축생으로 윤회를 거듭합니다. 우선 대지옥에서 소지옥으로, 다음에는 아귀도에서 축생도로 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아주 특별한 가호와 신통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영혼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캐가 된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7월 보름날에 우란분재를 올리면 정토로 천도될 수 있다고 답하십니다. 이에 부처님 분부대로 정성스럽게 행하고 "어머니가 삿된 마음을 버리고 정도에 들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비니, 천모가 감동하여 어머니를 영접하여 도리천궁으로 제도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한 감로도의 소의경전인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궤의경〉, 〈우란분경〉, 〈목련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아난존자 또는 목련존자가 입정에 들었을 때, 아귀가 모습을 드러낸다거나 또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가의경〉에 나타나는 아귀의 형상을 보면, "밤 삼경이 지난 시간에 한 아귀가 나타났는데 이름은 염구(焰口)였다. 그의 몸은 추하고 말랐으며, 입에서 불을 내뿜고 목은 바늘과 같이 가늘었다. 머리는 산란히 흐트러지고 손톱과 어금니가 길어 그 모습이 가히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또 대중적으로 가장 크게 유행한 〈우란분경〉에는 "(대목건련이) 도안(道眼)으로 세간을 관찰하니 그의 어머니는 죽어 아귀로 태어나 음식을 보지도 못하였고 피골이 상접하여 있었다. 목건련이 슬피 울며 발우에 밥을 담아 어머니께 주었더니 어머니는 발우와 밥을 보자 덥석 왼손으로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갑자기 불덩이로 변해 먹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련경〉에는 "목련이 슬퍼하며 앞으로 나아가다 한 떼의 아귀를 보았는데, 그들의 머리는 태산만큼 크고, 배는 수미산처럼 부른데 목구멍은 바늘과 같았다. 그들은 걸을 때마다 항상 오백채나 되는 수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자는 몸이 불로 활활 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련이 밥을 얻어 지옥에 가서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가 밥을 보고 아직도 탐심을 고치지 못해 왼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을 막으면서 밥을 입속에 넣으니, 전과 같이 그 밥이 변하여 모진 불이 되었다." 또 목련이 어머니에게 항하수 물을 드리고자 하니, 부처님께서는 "너의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뱃속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모진 불로 변해 창자를 태우고 말 것이다"라고 합니다.

성대한 감로단, '甘露'의 뜻은?

경전상의 아귀의 특징은 배의 크기가 산만하고 목구멍은 바늘 구멍만하고 또 입에 넣는 모든 것은 불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배가 크니 위장이 비대하는 의미로 먹고 싶은 탐심은 산만큼 크지만, 목구멍이 가늘어 그 탐심을 채우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탐심은 그 크기만큼 고스란히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또 염구(焰口)라는 지칭이 말해주듯이, 입에서 탐심의 불길이 나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훨훨 태워버리게 됩니다. 감로탱에는 천도 되지 못한 상태의 중생의 모습은 아귀로 표현하여 감로단 아래에 배치하였습니다.

탐욕만 남게 된 적나라한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아귀는 시식단의 감로(甘露)를 받아먹어야만 해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로는 '달콤한 이슬'이란 뜻인데, 고대 인도에서는 신들이 마시는 신비로운 음료였다 합니다. 하늘이 내리는 불사약으로 이것을 마시면 불로장생을 얻고, 찬란한 빛이 되어, 신이 된다고 하는군요.

신비로운 생명의 액체로 죽은 이를 살아나게 하는 명약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에도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맛으로 '열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모든 중생에게 '감로의 비(甘露法雨)가 내린다'로, 또는 '감로의 문(甘露門)을 여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법화경을 보면, '맛은 달고 마시면 죽을 일이 없다'라고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영원한 삶'을 뜻하는 용어로 쓰였네요. 관세음보살님이 정병에 담아 중생에게 뿌려주시는 물도 '감로수'입니다. 그러니 중생의 불타는 뜨거운 번뇌를 씻어 참나를 살려내는 진리의 물, '생명수'입니다.

감로탱은 사찰의 법당 안에 영단(靈壇, 또는 영가단) 위에 걸리는데, 화면 가운데에는 감로단(또는 시식단)이 차려져 있습니다. 각양각색 과일과 떡, 어시발우에 가득담긴 밥, 갖은 나물, 청정수, 꽃, 촛불, 향 등의 공양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엄됩니다. 이 감로에 해당하는 온갖 음식과 진귀한 과일의 성찬(盛饌)이 가득 차려져있습니다. 꽃과 위패와 번(幡)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감로단을 중심으로, 위로는 여래 및 보살의 무리, 그리고 아래로는 아귀를 비롯한 고통 속 중생의 무리가 포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로단의 '감로'는 중생계와 법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열반 또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감로. 감로에는 '지혜와 자비'라는 상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와 자비의 '감로'로, 항상 번뇌로 훨훨 타는 고통 속 중생은, 그 청량하고 시원한 자유의 맛·법열(法悅)의 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앙승가대 교수·불교문화재학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약사기도 도량
천년고찰 노고산 興國寺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 TEL 02-381-7970~1 | FAX 02-381-7329
Email : heungguksa@hanmail.net | 템플스테이문의 : 02-381-7980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흥천사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흥천사에서 운영하는 느티나무 어린이집

자유를 찾아 나는 줄곧 헤매왔으니

秋日隨想
④ 니코스 카잔차키스와 붓다 下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의 위대한 스승은 호메로스, 단테, 베르그송"이며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 나오는 말 "인간은 어떻게 그 자신을 영원하게 만드는가"를 평생 좌우명으로 삼겠다고. 뿐만 아니라 〈자서전〉에서도 "내 생애에 항상 나를 괴롭히고 채찍질을 한 단어는 언제나 '오름(상승)' 하나뿐"이었으며 오름과 투쟁은 동의어로서 '나의 투쟁은 나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해야 영혼의 자유와 영성을 얻을 수 있는가 등의 명제를 놓고 평생을 씨름한 사상가요 진정한 구도자였다. 그의 오름의 발자취, 투쟁의 기록은 나무십자가 아래에서 빛나는 묘비명의 글귀 '자유'였다.

과연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대해탈심 '자유'가 될 수 있을까.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나 또한 염두에 두고 지내던 어느 날, 나는 눈으로 〈반야심경〉을 좇다가 "…모든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 닦아가나니 마음에 걸림이 없으며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는 '심무가애 무가애고 무유공포(心無 碍 無碍故 無有恐怖)'에 눈길이 멎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 걸림이 없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空)의 세계에서는 이렇다 할 실체도 없고 …아무런 얻음과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앎으로서였다. 나는 '무가애고 무유공포'에 밑줄을 그었다.

그런데 니코스는 〈붓다〉서 다음과 같은 문답으로 자유와 구원에 대한 해답을 펼쳐 보이고 있다.

붓다가 말한다. "전에는 이토록 완전한 자유를 한 번도 얻지 못했노라. 그럼 나는 어째서 이런 자유를 얻었던가? 그것은 내가 커다란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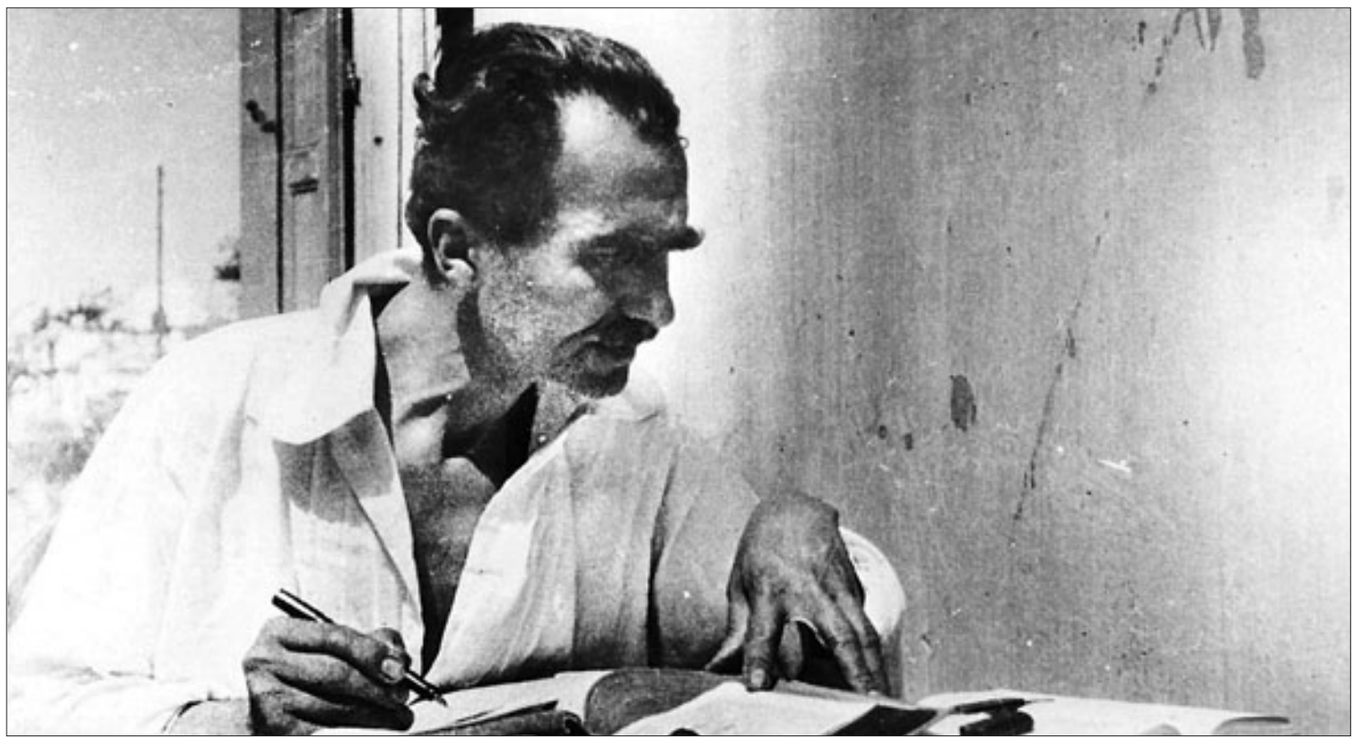
"어떤 결심이었나요?" 아난다가 물었다.

"나는 신에게 그대들이 신이라 일컫는 대상에게 내 영혼을 팔고 싶지 않으며, 나는 악마에게, 그대들이 악마라 일컫는 대상에게 내 영혼을 팔고 싶지 않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 자신을 팔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로다! 신과 악마의 발톱을 벗어난 자들은 행복할 지어다. 오직 그만이 구원을 받는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나요?" 사리푸트라가 물었다.

"구원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스승님,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더욱 좋다. 사리푸트라. 이해를 하면 넌 무서워하리라. 그렇기는 해도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유의 형태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나는 구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 다른 모든 형태의 자유는 노예성임을 알기 바란다.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구원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자유를 얻으려고 싸우리라. (…)"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생전 모습. 그는 스스로의 본래자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천착한 자유인이었다.

붓다는 자비롭게 사랑하는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구원이란 모든 구세주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고하며 숭고한 자유이니, 인간은 거기에 이르면 숨이 찬다. 너는 인내하겠느냐? (나의 유일한 돌과 콘크리트인) 스물 넉자의 글자로 나는 구원으로 뻗어나간 새 길을 닦았다. 이제 나는 알았고 이제는 속지 않을 터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차분하게 세상을 관조했다." – 〈영혼의 자서전〉 2권 p482~485

'구원이란 모든 구세주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므로 이제 나는 알았고 더는 속지 않을 터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알았다. 심지어 그는 희망이 결여된 신앙을 가장 용감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이 없는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최고로 상정하였다.

신(神)이라는 대상에 영혼을 팔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자유는 노예성임을 알기 바란다는 〈붓다〉에서의 가르침은 니코스가 죽기 2년 전(72세)에 쓴 〈영혼의 자서전〉에 "모든 우상들로부터 자유를 찾으려는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고 한 대목과 맞물린다. 어려서부터 그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있었다.

그의 숙모의 집이 홀랑 타버렸을 때 처음으로 불을 구경한 그는 누가 목덜미를 잡아 집어던질 때까지 앞에서 깡충깡충 뛰며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리고 담임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웃지 않기 위해 애를 먹었다니…. "마치 선생과 숙모의 집이 나를 짓누르다가 없어짐으로써 내가 풀려난 기분이었다"고 고백한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 우상이던 아버지 미할리스 대장이 사망하자 아내인 엘리니에게 적어 보낸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이제 우리에게 '초인'은 희망이다.**
> **본성을 뛰어넘어 초인이 돼야 한다.**
> **신의 빈자릴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 **'본래 부처' 작가가 말하는 메시지**

"(…)나를 아버지하고 결속시킨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갈라져버린 어떤 깊고도 굵은 뿌리였습니다. …이제 나는 마치 줄을 끊어버린 독수리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잉태한 자가 사라졌으니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힘차게 분출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무엇이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실은 나를 찢어놓은 안도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숨을 쉬기 위해 숨통이 찢어져 터져야 하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게 되듯이, 편안하게 숨을 쉬기 위한 자유였습니다(…)"

그에게 자유란 연결된 인연의 끈을 잘라버린 해방감이며 숨을 쉬기 위해 숨통이 찢어져 터지는 아픔이었다. 그는 '희망'을 최후의 적이라며 그마저도 떨쳐버리려고 애썼다. 그의 대표작 〈조르바〉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한 갈탄 광산업이 망했을 때 바닷가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나님 망해버린 우리 사업을 보우 하소서! 마침내 거덜 났도다." 이 대목이 영화에서 안소니 퀸이 춤추는 장면이다.

"사업이 거덜 난 날,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자유인 조르바는 바닷가에서 춤을 추었고 책상물림인 나, 카잔차키스는 그 조르바를 그린 〈그리스인 조르바〉를 썼다"고 적고 있다.

또 어릴 때의 일이다. 건포도를 만들려고 햇볕 아래 널어놓은 포도에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하수도가 넘쳐 길바닥에서 물이 강처럼 흘렀다.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모를 불렀다. 나중에는 포도밭마다 올리브 나무 뒤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비에 흠뻑 젖은 이 꼬마는 기쁨을 감추려고 애를 쓰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서였다. 흐느껴 울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를까?

"아버지!" 그가 소리쳤다.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

"시끄럽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나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 나는 그 순간이 내가 인간으로서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대한 교훈 노릇을 했다고 믿는다. 나는 욕이나 애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문간에 꼼짝 않고 침착하게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했다. 꼼짝 않고 서서 재난을 지켜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혼자만이 인간의 위엄을 그대로 지켰다"고 적었다. 훗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희곡 〈붓다〉에서 어르신 창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신의 인생의 향방(向方)을 정해놓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던 니코스의 글은 내게 무척 경이였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겸허해질 것이며 능력이 닿는 한 육체의 욕망들을 억제할 것이다. 육체가 잠을 자고 싶어 하는가? 나는 그대로 깨어 있을 것이다. 육체가 먹고 싶어 하는가? 나는 굶을 것이다. 육체가 앉고 싶어 하는가? 나는 일어나서 산을 오를 것이다. 육체가 추위를 느끼는가? 나는 발가벗고 자갈밭을 걸어올라 갈 것이다. (…)

육체를 정복한 다음에야 나는 영혼으로 관심을 돌릴 것이며, 나는 영혼도 보다 낮은 차원과 보다 높은 차원, 인간의 차원과 신의 차원,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눌 것이다. 독서와 명상, 승리의 기쁨, 정의, 우정, 온화함 그리고 슬픔 -나는 이성의 하찮은 기쁨들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겨낸 다음에, 나는 다시 한 번 나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분리를 선언할 것이니, 최후의 적 '희망'을 떨쳐버리고 위로, 높이 신의 불길과 더불어 치솟아 오를 것이며, 그 불길은 움직이지도 않고 연기도 내지 않으면서 깊은 어둠과 정적 속에서 나를 태워 없앨 것이다."

–〈인간 카잔차키스〉1권 P71

'희망'을 최후의 적(敵)이라며 그마저 놓아버린 사람, 그러니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은 몸을 버릴 나이에 이르러서야 겨우 헛되고 헛된 소용없음을 알게 되었는데 니코스는 어린 나이에 그것을 체득하며 신에 대항하는 인간의 투쟁을 즉 '자유'를 작품의 주제로 삼았던 것이다.

"나는 세상이 허깨비이며 사람들은 유령이요, 이슬의 덧없는 자식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자주하였다"는 그를 떠올려본다. 그때 "법에는 자성이 없고 다른 것으로 자성을 삼는다. (法無自性 依他爲性)"는 경전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그는 생래적으로 이를 것을 알았던 사람이다. 요컨대 그릇에는 자성이 없으니까 흙으로 자성을 삼듯 모든 것은 그것으로 만들어짐이 아닌 그것을 안 것이다. 무성(無性)이면서 연기(緣起)로 된, 실체 없는 그것을 안 이상 미혹에서 풀려날 수 있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인, 그가 바라던 바 해탈된 초인(超人)인 것이다.

그가 니체의 초인과 만나 초인을 '인류의 희망'이라고 부르며 한 말을 나는 잊지 못한다.

구원의 문은 우리 손으로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에게 '초인'은 희망이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우리를 심연의 가장자리로 데려다 놓았다. 인간은 마땅히 저 자신의 본성을 뛰어넘어 하나의 초인이 되어야 한다. 신의 빈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한 사람의 초인이 되어야 한다. '본래 부처임'을 잊지 말라고 그가 내게 넌지시 말하는 것 같다.

나는 자유롭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그것,
더 이상 나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
자유를 찾아 나는 줄곧 헤매왔으니

–〈나는 자유롭다〉에서



눈을 감고 그의 육성을 다시 듣는다.

맹난자 / 수필가

追慕 제19회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 대재

귀의 삼보하옵고
(사)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21,709위의 추모대재를 봉행함에 있어 이 뜻 깊은 추모대재에 사찰 및 민간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수희 동참하기를 앙망합니다.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식은 1967년 (故)정기영 집행위원이 재단법인 부산영원설립을 사재로 설립을 하여 추모비를 설립하며 추모제를 시행하여 오던 중 1997년 부산시에 위임하여 위령제를 봉행하여 오면서 (사)대원불교조계종이 주관하여 태평양전쟁 한국인 추모제를 봉행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이번 **'제 19회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대재'**를 안내 하오니 추모의 마음을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래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10시
■ 장 소 :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 문 의 : 봉행위원장 석혜오 총무원장 화남 (010-3562-2462)

•증 명 법 사 : 화산당 월인 대선사
•집행위원장 : 정산당 청봉 대선사
•봉 행 위 원 장 : 석혜오 총무원장
•집 행 위 원 : 홍섭. 보행. 원정. 덕오. 원명. 수오. 설산. 법현. 월오. 법경. 초오. 법주. 법진. 지광. 도일. 유심. 지혜. 화성. 현오. 법원. 지담. 도현. 지현. 해안. 우정 (무순)

•봉행위원 : 혜주. 정음. 성현. 성오. 법담. 진여. 혜원. 지현. 운오. 혜통. 진오. 능현. 혜광. 능각. 법일. 정은. 지용. 무공. 정진. 가견. 성보. 가능. 혜운. 법수. 동원. 만월. 법용. 연각. 법오. 가덕. 범일. 명오. 덕운. 대덕. 대연. 혜문. 보정. 광운. 도산. 수해. 운산. 원광. 해연. 해인. 광명. 대몽. 법성. 효선. 청명. 청공. 일월. 지원. 서정. 선혜. 무관. 선담. 무설. 서진. 해동. 청화. 대범. 연하. 황산. 해월. 태일. 현각. 덕봉. 법해. 법인. 법륜. 법전. 원오. 선공. 경민. 제웅. 정각. 도산. 용수. 무해. 효인. 도인. 대산. 진광. 일해. 송산. 성진. 현진. 윤하. 해오. 우담. 보명. 도도. 범오. 태봉. 문수. 광정. 수명. 능견. 청진. 보성. 성덕. 현산. 여일. 동선. 호일. 묵오. 진도. 혜명. 지성. 우초. 현암. 진명. 보각. 일성. 주연. 지종. 월행. 현운. 혜진. 일정. 지선. 동광. 자비. 범정. 보명. 지밀. 법완. 금오. 무오. 지우. 법호. 법승. 무진. 무유. 탄허. 무일. 무상. 빈여. 진여. 일타. 해산. 혜안. 석산. 만오. 봉산. 지운. 법공. 광덕. 우초. 태호. 진공. 동삼. 덕천. 효단. 혜림. 진명. 성문. 도혜. 동운. 법인. 대오. 해성. 무착. 영공. 영현. 송제. 법우. 정현. 달오. 어정. 정관. 청호. 석두. 대공. 묘훈. 도언. 성념. 오성. 해동. 정재. 해명. 지우. 문수. 승배. 도운. 혜명. 혜심. 법경. 경민. 국담. 경오. 현산. 정로. 보담. 정해. 법산. 무량. 향산. 성종. 성심. 성진. 정연. 성인. 성산. 고봉. 자운. 성관. 능소. 법민 (무순)



(사) 대원불교조계종 집행위원장 정산당 청봉 대선사 화남

“지구멸망 다가오지 않게 나무 심자”

진흥원 화요강좌… 주제: 미세먼지 기후위기시대 해법

오기출 푸른아시아 사무총장



오기출 사무총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시민단체 ‘푸른아시아’를 설립해 20여 년간 기후변화의 현장에서 헌신해왔다. 특히 2013년부터는 기후변화와 건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미얀마 중부 건조 지역에 지부를 설립해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생명의 토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미세먼지와 폭염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가뭄과 폭염, 사막화로 이어졌다. 지구의 온도는 벌써 1도 올랐고 4도가 오르면 전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오기출 푸른아시아 사무총장은 9월 17일 대한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에서 ‘미세먼지 기후위기시대 해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오 총장은 “무관심속 계속 진행된 기후변화 속에 아시아에 사막화가 집중됐다. 청정에너지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로 모여 함께 나무 심어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형 기자**

우리는 기후변화 얘기를 주로 유명한 영화라거나 성공한 사업가에 의해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우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현장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입니다. 오늘 그 기후변화의 끔찍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에피소드1. 정선에 귀농한 이영수씨

제 대학 동기 이영수 씨는 과거에 대기업을 다니다 뜻을 품고 귀농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으로 가 곶감을 만들기로 했죠. 이 친구는 매우 부지런히 일했는데 빚쟁이가 됐습니다. 왜 성실한 농부인 이영수 씨는 빚쟁이가 됐을까요? 2015년, 영수 씨는 수중의 모든 돈을 투자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여름,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아십니까? 40ml 왔습니다. 내려야 할 비의 40%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 곶감농사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10~11월 곶감을 창고에서 말리는데, 비가 오지 않아야 할 10~11월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곶감은 상해버렸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1억3,000만원의 빚쟁이가 됐습니다. 만약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영수 씨는 돈을 좀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땅이 갈라져있는 가뭄 사진을 보면 놀라죠. 그런데 땅이 전부 갈라진 이 사진, 올해 우리나라 농촌 사진입니다. 우리는 기억도 못하죠. 비가 그렇게 안 왔나? 도시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물은 틀면 시원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심한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농촌은 이런 피해를 입었고, 도심은 어땠을까요? 작년 여름 기억나시나요? 무척 더웠습니다. 기록적 폭염에 도시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폭염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폭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폭염은 열적고기압 때문이었습니다. 열적고기압, 생소하시죠? 한국 기상협회에 의하면 작년 한국의 폭염은 몽골과 중국 유라시아, 중아시아의 사막화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에 한 번도 없던 현상입니다. 오직 유럽에서만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열기가 유럽으로 넘어간 것이 열적고기압입니다. 그런데 작년 아시아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열적고기압이 한반도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수 씨는 빚쟁이가 되고, 작년과 올해 폭염이 진행됐을까요? 1도 상승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1도는 별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사이에도 몇 십 도씩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세계 온실가스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어디서 늘어났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럽의 온실가스는 14톤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아시아에서만 100억 톤이 늘어났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고 총 320억 톤의 온실가스가 느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청계천 물이 2만 5천 톤 흐릅니다. 320억 톤이면 청계천 물이 1348년 동안 흐를 물입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청계천서 흐른 물 양의 온실가스가 매년 공기 중에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에피소드2. 몽골 울란바토르 어린이 환경난민 남매 구하기

1도가 이정도인데 2도 오른 나라도 있을까요? 몽골입니다. 몽골은 우리와 매우 가깝죠. 몽골에 갔다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포크레인 운전사가 쓰레기를 들어서 버리는데 그 속에 아이가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는 고철 쓰레기를 주워 팔기위해 쓰레기 더미로 들어갔고, 운전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일을 한 거죠. 그 남자아이의 누나가 뛰어가 겨우 구해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살았습니다. 남매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이들의 가족은 원래 유목을 했다고 합니다. 가축을 1300마리 키웠다고 해요. 겨우 6개월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 젖을 짜서 우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풀과 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1300마리의 가축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부모를 따라 도시로 왔고 살기위해 고철 쓰레기라도 주워 팔게 된 거죠. 1도와 2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영수 씨와 타미르 남매의 차이죠.

몽골은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한반도보다 7배 큰 땅에 서울인구 1/3도 안 되는 사람이 살고 있죠. 이렇게 인구도 적은 몽골이 어쩌다 세계에서 온도가 가장 많이 오르게 됐을까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온실가스 영향입니다. 이미 몽골에선 1100여 개의 호수와 800여 개의 강이 사라졌습니다. 2000년도의 몽골은 대초원지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초원의 나라이자 말을 탈 수 있는 몽골이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7년 뒤인 2007년 사진을 보면 완전히 모래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던 유목민들은 순식간에 가축을 잃고 환경난민이 됐습니다.

> “계속되는 기후변화 속
> 아시아에 사막화 집중돼
> 청정에너지 목매지 말고
> 공동체 속에서 나무심자”

몽골의 사막화는 선진국의 쇼핑 때문이기도 합니다. 2007년 말, 우리나라 인터넷을 달군 명품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염소 털로 만드는 캐시미어입니다. 인터넷에서는 1%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이태리 명품이라고 화제였습니다. 갑자기 캐시미어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올라가니까 몽골 금융자본들이 염소 키우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몽골 내 4백만 마리 있던 염소가 갑자기 2천만 마리가 됩니다. 염소는 뾰족한 발로 땅을 파 먹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지나간 자리는 모래만 남죠. 2천만 마리의 염소가 땅을 삽시간에 사막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염소로 캐시미어 값은 폭락했습니다. 금융권에 캐시미어를 위해 빌린 돈의 이자율만 25%가 됐고, 이자를 낼 돈이 없어 야반도주하고 결국 또 난민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몽골 인구의 10%는 환경난민이 됐습니다. 전쟁난민은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환경난민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이것이 2도씨입니다.

에피소드3. 충남 당진군 홍양훈 씨

충남 당진군에 사는 홍양훈 씨는 집안내력 대대로 폐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훈 씨를 포함 마을 사람들 18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무슨 일 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중국도 미국도 아니고 당진에 있습니다. 폐암에 걸린 18명의 주민들은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가 아니었다면 천수를 누릴 수 도 있었던 분들이 지금 집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 풀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사나 미세먼지의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대부분 중국으로 예상하죠? 그러나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유입 황사의 주요 발원지는 몽골로, 53~71%나 차지합니다. 미세먼지는 몽골에서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오는데, 중국을 지나며 한층 더 강력한 탄도를 장착하고 한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홍양훈 씨는 몇 명이나 될까요? 수도권서는 1년에 1만 5천명의 사람들이 조기 사망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계속해서 현재진행중입니다. 소말리아 등지는 극심한 사막화가 진행됐습니다. 황폐화된 사막 도시 속 한 아이에게 어느 날 넥타이와 양복을 입은 사내가 나타나 집도 식량도 주고 결혼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 아이는 폭탄을 들고 호텔에 가서 자살합니다. 이게 테러의 양상입니다. 테러는 종교와 관계없습니다. 기후변화, 안보, 식량문제는 모두 연결돼있습니다.

전 세계 향후 28억 명이 환경난민전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로 죽은 지역의 70%가 아시아였습니다.

“4도가 오르면 식량 생산의 70프로가 감소하여 인류는 굶어죽을 것이다.”환경 전문가가 말할 것 같죠? 아닙니다. 2014년 세계은행이 한 말입니다. 기후변화의 끝은 멸망입니다.

위기의 대안: 백신과 나무심기

그러면 백신이 있을까요? 한번 맞으면 치료가 되는 백신, 아마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킨 책임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90%는 기업과 관련 돼 있습니다. 일반 2200만 가구는 온실가스의 10%를 발생시킵니다. 절대 책임은 대자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본이 책임지고 백신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대자본이 드디어 청정에너지를 찾아냈습니다. 석탄과 석유가 가고 청정에너지가 새로이 시작됩니다. 주로 중국에서 발명중입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8억 톤 석탄 감축위해 2조 5천억 위안(450조원)을 투자합니다. 과연 중국은 지구가 걱정돼서 투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정에너지만이 답일까요? 저는 청정에너지가 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백신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몽골, 미얀마 사람들은 백신 구매가 불가능하죠.

스피노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어린 숲일수록 더욱 왕성하게 탄소를 흡입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이뤄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커뮤니티를 심겠다’ 고 다짐해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관리하고 나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후 변화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기후변화의 한 가운데 있는 세대. 이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다 파괴시킨 우리 선조들이라는 말 보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한 선조라는 말이 듣고 싶죠. 그렇다면 함께 나무를 심읍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국행수륙재



모시는 글

귀의삼보 하옵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인 진관사국행수륙재津寬寺國行水陸齋는 조선 태조임금이 수차례의 거동을 통해 수륙사水陸社를 건립하면서 이룩한 것으로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의 유일한 국행수륙재입니다. 국행수륙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불교의식으로서 불교문화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있는 존재와 생명없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가없는 법의 은혜로움이 베풀어지는, 이 아름다운 법연法筵에 자리를 내어 청합니다.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주지 계호 합장

칠재 회향

1부 낮재 : 2017. 10. 14(土)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설정 큰스님 법문(오후 4시)

2부 밤재 : 2017. 10. 15(日)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문의 | 02. 359. 8410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 주관 |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재청, 국립문화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안성 영평사

주 지 정 림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길 79-42 영평사 031-676-3960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텅 빈 충만을 향하여

승려는 청빈을 기본으로 검소한 생활을 즐겨야한다. 비구(比丘)란 걸사(乞士)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우고 버리며 나눔의 생활 습관이 수행자로서 더욱 개운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모으고 쌓으며 챙기는 모습은 집착의 병을 앓는 수행자의 삶은 아닌 것이다.

출가(出家)와 수행(修行)은 결코 둘이 될 수없는 하나이다. 출가는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세속의 애착을 버리고 오욕락과 명예도 버리고 출발한다. 하여, 출가는 새로운 출발이자 비우고 버리는 텅 빈 충만을 향한 여행이다.

수행은 다짐과 결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추슬러 가혹할 만큼 자신을 향한 채찍질의 간절심이 이어져가야 수행인 것이다.

수행은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피눈물 나는 뼈를 깍는 고통을 이겨내며 참으로 비우고 버리는 간절심이 수행의 완성을 돕는 것이다. 경전을 통째로 달달 외우고 설법의 표현력이 대중을 사로잡아도 수행의 완성인 깨달음을 이룬 것은 아닌 것이다.

깨달음이란 집착과 의혹됨을 벗어버린 참사람을 의미한다. 꾸밈과 드러냄 없이 낮과 밤이 한결같은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 참사람인 것이다.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며 머묾 없는 머묾으로 진리와 한 몸을 이루어 감춤과 드러냄 없는 것이 참사람인 것이다.

하여, 참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로운 것이다. 쫀쫀하고 허잡스럽게 헐떡이거나 흔들리며 방황하지 않는다. 모으고 챙기며 쌓아두려는 속물근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명예 주변에 얼씬거리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윤회를 거듭할 리 없는 것이다. 돈 욕심과 명예 욕심에 젖어 있다면 그는 수행자는커녕 업덩이 중생일 따름이다. 출가 당시의 마음을 다지며 결의를 굳힌 처음처럼의 모습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속의 애착을 저버리며 살일이다.

수행자의 삶은 여러가지의 의미에서 비어 있어야 행복과 자유가 충만해지는 법이다.

비우고 버리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면 수행자는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며 뿔 달린 짐승처럼 변화해 갈 터이다.

비우고 버리면 개운하다. 편안하다.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바른길이 아니면 멈춤이 수행이다. 흔들리고 헐떡일 때 멈춤의 마음 챙김이 수행이다. 잠시의 기쁨이 오랜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차려 멈춤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드는 법이다.

수행자는 항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으로 멈춤을 생활화해야 한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한 것이다. 적은 것으로 만족을 삼아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이 수행자의 생활이 되어야한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구원을 약속해주는 메시아(Messiah) 따위는 키우지 않는다. 마음 열어 진리와 한 몸을 이루면 내가 부처님이요 참사람이요 오늘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본래 동, 서, 남, 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이다. 변두리와 모서리도 생각만 바꾸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임제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처럼 이르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며 누구나 아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의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소위, 출가 수행자인 스님들이 쫀쫀하게, 속물스럽게 해마다 신도들로부터 생일상을 받는다던지 세속인도 건너뛰는 환갑잔치에 칠순 잔치를 벌인다면 이 어찌 수행자의 모습일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승려가 죽은 후 접수대를 만들어 조의금을 받는다던지 꽃상여, 만장행렬을 준비하는 것이 이 어찌 수행자의 가는 모습이라 하겠는가.

살아서 분주한 몸짓을 털어내지 못했다면 죽어서라도 가뿐하게 개운하게 긴 그림자를 남기지 말 일이다. 승려의 49재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출가할 당시의 처음처럼 텅 빈 충만을 향하여 게으름 없이 정진하며 개운하게 살 일이다.

출가, '텅 빈 충만'을 향하는 여정
돈·명예 욕심 있다면 업덩이 불과

본분사(本分事)로 가르친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선수행(禪修行)에 있어서 곧잘 즐겨 쓰는 말 가운데 본분사(本分事)라는 말이 있다. 본분(本分)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본분이란 어떤 분별과 수단도 허용하지 않는 종사의 법도(法度)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선종의 종지를 완전히 터득한 이상적인 경지로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초탈된 자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실체가 없음에도 자유자재한 무어라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인 경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출가자가 해야 할 일을 두고도 본분사(本分事)라 하였다. 다시 말해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 전심전력 하는 것을 본분사를 위하는 것이라 하였다.

향엄지한(香嚴智閑:?~898)은 위산영우(潙山靈祐)의 법을 이은 제자이다. 그가 깨달음의 계기를 얻었던 것을 두고 향엄격죽(香嚴擊竹)이라는 말이 생겼다. 〈경덕전등록〉 11권 〈향엄지한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위산이 어느 날 향엄에게 말했다. "그대가 평생 공부해서 이해한 것이나 경전과 책자를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묻지 않겠다. 그대가 태어나기 이전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의 본분사(本分事)를 한 마디 말해 보라." 향엄이 영우에게 나아가 여러 가지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진술했지만 영우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향엄이 말했다. "청컨대 화상께서 저를 위해 설해 주십시오."

위산이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견해일 뿐이니 그대의 안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후 향엄은 공부가 잘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였다. 울고 싶은 심정이 되어 어느 날 영우 회상을 떠나 행각(行脚)을 나갔다. 남양(南陽)의 무당산(武當山)에 있는 혜충(慧忠) 국사(國師)의 처소에 가 며칠을 지내게 되었다. 하루는 도량을 청소하다가 자갈을 하나 주워 마당 멀리 던졌다. 이 돌이 대밭으로 날아가 대와 부딪치며 '딱!' 하는 소리를 내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홀연히 깨달음을 얻었다. 환희심이 넘친 그는 목욕을 한 뒤 향을 피우고 위산이 있는 쪽을 향하여 예배를 올리면서 속으로 말했다.

"화상의 큰 자비를 입은 은혜는 부모를 넘어서니, 그때 만약 저를 위해 말로 설명해 주셨더라면 어찌 오늘의 깨침이 있었겠습니까?"하고 찬탄을 하였다.

그리고 게송을 지어 읊었다.

"부딪치는 한 소리에 알음알이 잊고, 더 이상 수행의 힘 빌리지 않는다. 움직이는 가운데 옛 진리 드날리며, 고지식한 기틀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디에도 종적이 없고 소리와 빛깔을 벗어난 위의라, 제방에서 도를 통달한 이들이 모두 그를 최상의 기틀이라 하네."

(一擊忘所知 更不假修治 動容揚古路 不墮悄然機 處處無蹤跡 聲色外威儀 諸方達道者 咸言上上機)

그 후 그는 향엄산에 머물면서 위산의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다. 향엄은 원래 박학다식하고 언변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불입문자(不立文字)를 표방하는 선의 세계에서 말하는 본분사에 있어서는 그의 학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학문은 날로 더해가는 것이지만 도(道)는 날로 덜어내는 것이다(爲學日益 爲道日損)' 라는 말이 있다. 학문의 영역과 도의 영역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다. '대(竹)에 돌이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모든 알음알이가 날아갔다' 는 말이 묘한 뉘앙스를 남긴다.

향엄은 후에 또 다른 시를 남긴다. 가난타령을 한 시이다.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네. 금년의 가난이 진짜 가난일세.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이 없더니 금년에는 송곳마저 없어졌다네."(去年貧未是貧 今年貧始是貧 去年無卓錐之地 今年錐也無)

〈전등록〉에 수록되어 있는 이 시는 깨달음의 경지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혹은 공의 상태로 표현한 지극한 말이다. 굳이 사족을 달자면 작년에 깨닫고 비로소 주객이 모두 없어진 경지를 체험했다.

다시 말해 무(無)를 체험하고 공(空)을 체험했다. 그러나 마음속에 깨달았다는 희열감 내지 충만감이 꽉 차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마저 사라져버리더라는 말이다. 그야말로 무소득(無所得)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보리의 열매는 자비심에 있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⑬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眾生常爲苦苦所苦。行苦所苦。壞苦所苦。若見一苦足生悲因。況復具足三苦。愚癡眾生常爲百千諸苦所苦。若見一苦應生悲心。況復百千諸苦。應當了知。世間諸苦於一一苦中未生悲心者應當生悲。已生悲心應當增長。況復無量。若聞世間種種無量諸苦。石 應軟。況有心者而不生悲。若聞世間悲呼之聲。枯樹猶應生華。況有心者而不生悲。世間苦一味心柮軟者易生悲心。有悲心者菩提之果便在掌中。

번역 | 중생이 늘 괴로운 것은 괴로운 데서 괴롭고, 괴로운 행으로 괴로운 바며, 괴로움에 무너져서 괴롭나니, 만약 하나의 괴로움을 보고도 자비의 인연을 내기에 족하거늘, 하물며 세 가지 고통에 자비를 족히 갖추는 것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중생은 늘 백천 가지 고통에 괴로운 바, 만약 하나의 고통에 자비심을 낼 수 있다면, 하물며 백천 가지 고통이겠는지요.

응당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낱낱의 고통에 자비심을 내지는 못하지만 응당 자비심을 내어야 하며 이미 자비심을 내었다면 응당 증장시켜야 하거늘, 하물며 한량없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세상의 가지가지 무량한 고통을 들으면 돌멩이도 물러지겠거늘, 하물며 마음에 자비심을 내지 않겠는지요. 만약 세상이 자비로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면 마른 나무도 오히려 꽃 피우는데, 하물며 마음에 자비심이 생기지 않겠는지요.

세상의 고통은 한 맛이요, 마음에 부드러운 이는 바꾸어 자비를 낳나니 자비심 있다는 것은 보리(菩提)의 열매가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설 | 진흙소가 되어 한시도 쉴 수 없는 세계에 던져진 중생은 삼고(三苦)에 시달린다.

바로, 괴로운 데서 괴롭고, 괴로운 행으로 괴로운 바이며, 괴로움에 무너져서 괴로운 세상이다.

그러나 희망의 빛줄기는 두껍고도 캄캄하게 드리운 구름을 뚫고 고해(苦海)의 바다를 비추기 시작한다. 폭풍우 치던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는 것이다. 표류하며 한없이 두렵고 목마르던 존재가 딛고 일어설 땅과 그 땅의 풍성한 과일을 발견한다.

이것은 고제(苦諦)가 주는 한 줄기 빛이다. '세상은 괴로움' 이라는 명제는 '세상은 괴로움을 벗어날 희망을 지녔다' 는 메시지의 전조다. 바다에 표류하던 이가 갈매기를 발견한 뒤 섬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듯이, 고(苦)의 실체를 안다는 건 열반의 섬이 가까웠다는 반증이 된다.

우리들은 그 편히 쉴 수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매 쯤 있었는지 몰랐을 뿐이지 눈앞에 보이면 곧 안도의 숨을 쉬게 된다.

전혀 깨질 것 같지 않던 차돌맹이 같던 번뇌와 괴로움이 물러지는 시간이다. 바싹 말랐던 나무에 꽃이 필 시간이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을 시간이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벙어리가 노래를 부르는 때다.

과거심불가득(過去心不可得). 미래심불가득(未來心不可得), 현재심불가득(現在心不可得)이었던 그 실체에 들어가 괴로움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들여다보자.

내가 살기 위해 죽였던 것들,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끌어 모았던 재물, 세상에서 내 아픔이 제일 중요했던 순간들을 돌아보자.

그런 것들이 바다가 되고 폭풍과 파랑의 업이 되어 나를 덮치지 않았던가?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의 허망함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지 않았던가?

중생을 향한 자비심은 어쩌면 관념적인 말이다. 그 스스로 만든 세계에서 표류하는 인간상(人間相)을 자각하면 이제 말하지 않아도 가엾다. 못내 가여워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게 자비(慈悲)였다.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사찰부지에 불법 기독교 시설이 웬말?

무등산 원효사 "무단 건축된 제일기도원, 증·개축까지 감행"

원효사 토지승낙 없이 무단 사용
불법성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중
제일기도원, 증·개축 감행 '논란'
"자진철거 한다더니 편의시설 추가"


무등산 원효사 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제일기도원이 무단으로 증 · 개축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찰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기독교 시설이 무단으로 증 · 개축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중)는 지난 9월 22일 사찰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되어 최근 증 · 개축이 이뤄지고 있는 제일기도원(대표 임영근)에 대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학교법인 광신학원이 소유한 제일기도원은 1960년대에 건립된 기독교 시설로 현재 기도원과 사무실, 생활관 등 총 5동의 건물이 지어져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인 기도원(303㎡)과 화장실 1동(12㎡), 사무실 일부가 원효사 토지승낙 없이 무단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원효사 측은 지난 2016년 1월 제일기도원이 소유한 토지 대한 매수 의사 공문을 보내고, 4월 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 북구청과 무등산관리사무소측에 사찰 소유지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효사는 사찰부지의 지상에 건립된 건물의 불법성에 대한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효사 측은 이에 대해 "사찰의 부지가 다른 종교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찰의 입장은 이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제일기도원측은 최근 무단으로 증 · 개축 및 시설물의 보수를 진행하고 있어 관계기관인 국립공원무등산관리사무소와 해당 관청에 시정요구를 요청했으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해서도 북구청과 무등산관리사무소는 "철거곤란" "사생활침해 우려 답변 불가"의 답변을 내놨다. 그리고 재차 통지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 측은 "과거 광주시의 관할 차원 문제로 업무관련성 부인"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제일기도원의 보수공사에 따른 고발 경위는 이렇다.

2015년 9월 제일기도원 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추진위가 구성되고, 2016년 3월 무등산공원사무소에 보수공사 허가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공원관리사무소측은 "석면 등 가설물 철거를 인정하고 다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통보"를 내렸다. 또한 5월에는 제일기도원에서 원효사 토지 3,000평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원효사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제일기도원은 7월 폐기물 처리 명분으로 광주북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수공사를 강행하면서 무단으로 수목을 벌채하고 불법 증개축을 진행, 자연공원법 위반(무단 수목 벌채 벌금 100만원)과 무단 개축 구조물에 대한 철거 등을 자진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9월 22일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 개축 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진행되지 않고 도리어 에어컨 등 다양한 편의시설 등이 추가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검단산사 은혜에 소금 공양 올립니다"

선운사, 9월 23일 선운문화제 개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사중스님들이 마을주민들에게 공양 받은 보은염을 이운하고 있다.

붉은 꽃무릇이 온 산하를 물들이고 있는 고창 선운사에서 제10회 선운문화제가 열렸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9월 23일 '1,500년의 값진 인연, 선운사 보은염' 을 주제로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축제인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선운문화제는 전북 고창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기위해 기획됐다.

선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 사시사철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선운사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문화 중심으로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운문화제는 경판 이운식, 보은염 이운식, 산사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부도전에서 헌다례를 시작으로 '보은염 이운식' 이 열렸다. 1,500년을 이어온 '보은염 이운식' 은 선운사 창건주 검단선사가 마을주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쳐 생계를 잇게 한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봄과 가을, 선운사에 소금 두 가마니를 공양하는 의식이다.

백제시대 당시의 복장으로 지게에 소금 가마니를 지고 선운사에 도착한 사등마을 주민들은 선운사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 소금을 공양 올리는 의식을 재현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은 보은염 이운 행렬을 맞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보은염을 주제로 한 인형극을 선보였으며, 선운사의 명물인 꽃무릇을 배경으로 한 시화전에 대한 시상식과 석씨원류 경판이운식이 열렸다.

행사의 대미는 부처님 일대기와 가르침이 서역 및 중국에 전파된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술한 〈석씨원류〉 경판 이운식이 장식했다. 선운사 불자들과 관광객들은 각족 번과 만장을 앞세워 직접 경판을 직접 머리에 이고 일주문 천왕문을 거쳐 경내의 법계도를 돌아 제자리에 안장됐다.

마지막 행사로는 선운문화제의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불자 재즈보컬리스트 웅산, 소프라노 김태은, 선운사 합창단이 출연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선운문화제는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선운사는 검단선사의 지역을 위한 정신을 이어 고창 발전은 물론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선운사 경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으며 우정본부와 제휴한 가을편지쓰기, 페이스페인팅, 전통문양 그리기, 한지 바람개비, 전통 매듭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6대 종교인 위한 '달빛 차' 음악회

기장 청량사, 10월 15일 오후 6시

6대 종교인과 함께하는 화합의 음악회가 열린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이 '달빛 차(茶) 음악회' 를 부산 기장 청량사에서 10월 15일 오후 6시에 개최한다.

달빛 차 음악회는 전국 문화 예술인이 후원하고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 지도자가 함께해 음악과 문학, 그리고 차로 화합하는 자리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청량사는 밝은 달아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 자리에 6대 종교 지도자가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이 열리는 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1부 '기장 차 문화대학 2기 졸업식' 이 앞서 열린다. 기장 차문화대학은 전국 최초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다도를 지도했다. 이번 2기 졸업은 소방서에서 다도를 배운 소방관들이 졸업을 기념하며 차 시연을 선보인다. 2부는 '달빛 차 음악회' 로, 관현악 3중주와 시낭송 국악 및 가요 공연 등이 무대를 채운다.

이 자리에는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 기장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 외 기장차문화대학 강사 교수, 차문화대학 기장경찰서 1기 졸업생,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 회원 등 종교인과 문화 예술인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청량사는 이날 '향기로운 문화갤러리' 현판식도 개최한다. 향기로운 문화갤러리는 문화예술인의 소통 공간이자 청량사 신도들의 쉼터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성림당 월산 대종사 20주기 추모다례재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과 대중 스님들은 종사영반 삼배한 뒤 부도탑전에 참배했다.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20주기 추모다례재를 9월 24일 경내 무설전에서 봉행했다. 〈사진〉

이날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인각사 주지 원각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산 대종사는 "도란, 천지와 태양의 밖을 통해야 한다. 그 또한 도는 변함없이 멸한 것"이라는 육성법문을 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산당 혜인 스님 1주기 부도탑비 제막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는 9월 22일 부도전에서 조실 포산당 혜인 스님 부도탑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사진〉

혜인 스님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은해사 조실과 제주 약천사 회주를 지냈다. 지난해 6월 팔공산 은해사 기기암 선원에서 수선안거 중 2016년 세수 75세, 법납 62년을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이번 조성된 부도탑비는 혜인 스님 열반 1주기를 맞아 그 가르침과 덕목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조성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조계종 대구 불영사 낙성식

(재)한국불교조계종 중흥교원 대구 종무원 불영사(주지 효상)는 낙성식 및 점안 법요식을 9월 24일 봉행했다.〈사진〉

주지 효상 스님은 "천일기도 회향의 인연으로 팔공산 중턱에 자리 잡은 불영사와 각별한 인연이 되어 새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곳은 부처님 가피가 곳곳에 서려있어 수행과 기도하기 좋은 명당이다. 포교와 수행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원력을 세워 사중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읽고 들을 수 있는
『우리말 팔만대장경』
스마트폰 앱으로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어갑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법공양 대불사에 함께할 도반을 모십니다.

www.kyba.org | T. 02)738-1920 | KB 국민은행 023501-04-010964 대한불교청년회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조그마한 착한일이라도 소홀히 말라. 방울물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나니이 세상의 큰 행복도 작은 착함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신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부처님 모셔가서 기도하실 분
· 불상 : 아미타불,관세음보살,지장보살,소불
· 탱화 :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
· 기타 : 각단촛대,향로,다기,종,북,불전함, 인등,연등,원목수미단,운각,방석, 제기그릇, 각종 공양그릇, 기타일체
보시금 1000만원. 이곳을 인수하셔도 됨
경남 통영시
070-8860-0011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법당 철거 조성
정성을 다 해드립니다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인연 맺어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이웨해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010-2395-333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58

불교 각종의식 및 재의식 실전교육 학인모집
각단 불공및 재의식에 따른 작법,사물 (목탁 정근북 송주북 태징 요령)등을 빠른 시일내에 여법하게 집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휴심사 수복원
010-8588-2816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우리들의 내면에 빙의(신들림)나 우울증, 어깨통증 환자를 비롯해 수많은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 ~ 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48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 재의식, 각 예불, 천수바라, 나비무, 송주북, 정근북, 법고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0-9515-366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60대 비구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찰
인연기다립니다
(명리학 능통)
010-8687-8544

부전스님
(비구,비구니)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421-07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주 또는 출퇴근 가능
(서울 영등포 지역)
010-2782-7425

비구 비구니 사찰 관리 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부산)
010-3518-9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 환영)
55세 이하
041-673-8385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과 돌맹이로 만든 방편이 필요한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근교 양산)
010-3647-0018

60대 비구입니다
도심의 작은 사찰
인연기다립니다
010-2168-280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2)918-5554. 010-7703-118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8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진각스님의 명리학교실
고학력시대의 생활상담과정 프로그램
사주보는 법 · 작명하는 법 · 단기속성과정
- 방편으로 삼고자 명리공부를 해야겠다는 큰마음 내신 초급 입문반을 위하여 아주 쉽게 머리에 쏙쏙
- 한자(漢字)를 몰라도 괜찮고 月 · 水 · 주2회로 하여 짧은 속성단기코스 프로그램을 개설 합니다.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부산지하철3호선 배산역하차 4번 출구
부산 051-868-8438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유전사
● 주 소 : 대전 중구 대둔산로 46 (산성동)
● 신청인 : 창건주 (윤여옥)

위 사찰과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강사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 2리 산 1-10
● 법 명 : 고경 (박고경)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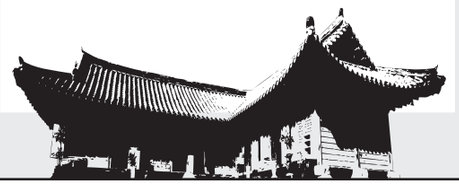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대한국불교조계종 나눔실천승가회 총본산 불 광 사

총무원장(승가회 회장)
호산 성보
승가회 회원 및 종도 일동

■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북로 208
010-8540-8209. 055-232-7819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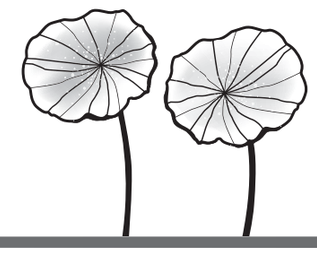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자주 날아다니는 새는 그물에 걸리는 화를 당하기 쉽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에 맞기 쉽다. 그러므로 행동을 조심할지어다.

- 초발심자경문 -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약41평) 건물 2층 1층 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실3개 등 • 가액 : 7억5천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인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2층 단청 법당. 1층 요사채 • 토지 1.300㎡
- 조용하고 위치 좋음. 뒷편이 산. 운영 잘 됨.
- 양도가액 : 15억 8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군산 사찰을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97.5㎡(120평) • 건물 총면적 : 287㎡(87평)
- 가액 : 5억 5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도, 수도권
◎ 부지 : 55평 ◎ 면적 : 150평
◎ 인법당 : 4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산밑 청정함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양도가 : 10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급) 안내
- 위치 : 포항 도심 속 전통양식 아담한 사찰
- 대지 50평에 100평처럼 사용
- 법당 30평(단청) 2층 방1칸
- 칠성단, 용왕단, 독성각
- 사무실, 주지방, 부엌, 화장실3개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인등500개
- 가액 : 2억7천만원

010-4606-7253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 (가격조정)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 2동 338-22호
- 2층 법당 20평, 방1개, 화장실, 사워실, 1층 방 3개, 거실, 화장실 2개, 지하주방 면적41.6홉
- 가액 : 8억 조정 가능함

02-475-8600
010-4623-8815

인천사찰(급)안내
- 도심 현대식 건물 사찰
- 토지 340㎡, 3층 법당,요사채,공양간
- 대로변사찰. 깨끗하고 웅장한 사찰
- 스님노환으로 양도
- 양도가액 : 13억 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경기도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지하철역 인접
- 토지 1,296㎡ (약390평)
- 건물 3동 법당 공양간 상담실 등
- 방 많고 돌탑등 조경이 잘되어있고 주차장이 넓음
- 가액 : 보 2000만, 월150만원 시설비 8000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한우산 (합천 삼가면 10분거리)
- 절터 570평, 녹차밭(8년생) 480평 = 1050평
- 특징 : 조립식 건물 1동 (주방 1, 방 1, 욕실, 에어콘, 높은 다락)

010-6239-31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소재
- 부지 : 58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단청)
- 요사채 40평, 산신각 5평
- 가액 : 3억3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조용한사찰로 기도와 포교지로 좋습니다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목조)
- 요사채:30평, 기타:산신각,석등
- 가액 : 이억삼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조용한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참좋습니다

동 진 불 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산 돗대땅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1억 6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1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도심속 작은 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벌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2억 1,500백만원 (대출 7,500백 안고 1억 4천)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학동 3길10(2층)
- 총평수 63평, 법당 20평 접견실 10평, 서실 10평
- 큰방 2개, 공양간, 화장실 남 · 여 2개
- 가액 : 보증금 3천 월 5십만원 시설비 약간

010-5342-1459
061-662-5130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가락로길 30(중앙통)
- 3층 건물 중 2층 80평
- 삼존불 탱화 완비
- 관리비 및 난방비 무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보시고 결정

010-6208-55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여주
- 부지: 대지 300평 (500평 사용가능)
- 법당 40평, 요사 60평 외 1동(90평)
- 산속, 차량 진입, 경관 수려
- 가액 : 2억 8천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구, 용암리 49-4번지)
- 종교용지 570평, 터밭 278평 주차장 44평, 원주-제천 중간 지점 임법당 32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17평, 청룡 백호 2겹 쌓인 도량 정남향
- 사정상 급 양도 : 3억 5천만원

033-744-3859
011-369-3859 (스님직통)
장난전화 사절

사 찰 안 내
- 위치: 포항(장기면)
- 대지 500평
- 임야 2,000평
- 법당, 요사 그외 건물 3동
- 가액 : 9억 5천

010-4537-5386
(메모 남겨 놓으시면 연락드림)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토지 457평, 하우스 내 법당 20평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합니다

010-4504-7809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8백 평
- 가액: 1억8백만

010-2016-628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찰터(절암자)안내상담전문
- 양도 양수 관계 경력이 많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정보 많음
- 일 처리가 원만합니다
- 성심 성의로 상담 합니다

(불자입소) 공신공인중개사
010-3570-0025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770-2
(사업자등록) 607-46-18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재송동
- 2층, 30여평 전층.
- 법당, 스님방, 종무실, 주방.
- 13년 포교하고 있음
- 가액 : 보증금 1,8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절충가능

010-5036-43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IC 15분 거리
- 면적 : 부지 55,000㎡, 건물 270㎡
- 법당, 삼성각, 용왕당, 요사채2동, 황토방 연못, 채전밭, 각종 유실수 산과 계곡,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 법당방6, 심야전기, 화목보일러
- 가액 : 5억 5천만

010-5346-4138
051-861-2233
금호부동산 연사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예산 수덕사 IC에서 10분 거리
- 천혜의 요지 예당 저수지위에 위치한 150년된 조그만 암자
- 평수 : 약 2만평
- 산수 물 좋은곳, 예당 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5097-346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언양권 교동리
- 2층 건물 5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세탁실. 창고
- 시설비 2천만원
- 보증금1천만원.월세50만원

상담전화 010-7752-1026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60평
- 가액 : 7억 5천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9730-2251
(부재중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
- 종교부지 : 전답 1,300평
- 건물 : 건평 60평
- 1층 법당 방4개, 주방, 욕조, 화장실
- 가액 : 3억 9천만원 (융자없음)

02-2675-658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114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방 7칸 스님 친견실,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3천 500만원

010-2498-7899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각단탱화,스님방사,산신각
- 가액 : 1억
-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 750고지
- 빈집 방2개, 응접실1개 부엌 1개, 욕실 1개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가액 : 보증금 2백만 월세 20만

011-759-018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부산대병원 인접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황금동 10분거리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 1, 방2, 세면장, 실내 화장실
- 벽돌조 32평 독채, 건물 개인 등기필
- 남향 교통좋음(2차선 큰길 변)
- 대지 : 공동사용 도지료 1년 35만원
- 가액 : 4천 8백만원

010-7295-1259

사찰터 및 주택지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46번지
- 답 970평
- 평사리뜰이 아름답게 보이는 좋은 터
- 사찰 터 및 팬션, 전원 주택지로 적합
- 가액 : 평당 30만원

010-3119-1697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IC에서 얼음골 방향 15분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 대지 328평에 2층 건물
- 1층 명상홀과 요사채 60평 2층 대웅전 24평, 나무 숲속에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30평과 창고 20평
- 석물 원통문 수월관음 연화탑 포대화상
-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 가액 : 6억 5천

010-4895-2050

청주 도심사찰 안내
- 위치 : 청주시 도심포교 15년 사찰
- 대지: 60평. 건평: 60여평(2층)
- 법당.나한전.요사채2동(방사 5개)
- 2M아미타 삼존불. 지장탱화(문화재급) 원불. 불기일체 양도
- 비영리 사업자등록으로 양도양수함
- 양도가액 : 4억 3천만원

010-6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 정원수 다량. 조경된 아름다운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 (전체목조. 단청완료됨) 창고. 저온 창고.
- 가액 : 8억(대출1억안고) 절충가능

010-6603-145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종교부지:208평, 대지:63평 전 : 419평, 총 : 690평
- 목조 및 벽돌 구조
- 법당,산신,칠성,독성,요사체 방7개, 거실, 공양간 2개, 화장실 3개, 창고등 다용도실
- 가액 : 2억 3천 500만원

010-4489-334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팔달역에서 5분
- 대지 200평 법당 20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가액 : 1억 5천

010-8861-1785

임법당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 1리
- 건물 약 25평
- 큰방 1, 작은방 1, 거실겸 주방 남향 깨끗함
- 가액 : 일천 팔백만원

010-4183-5959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서구 화곡동 2500가구 아파트 상가
- 평수 30평, 2층건물중 2층
- 시설: 원목수미단,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인등
- 시설완벽, 모든집기 포함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779-9971

암자(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부곡동
- 대지 50평(텃밭있음)
- 법당 : 삼존불, 각단 탱화 소나무숲 속에 경관수려
- 몸만오시면 됨 장난전화사절
- 꼭 하실분만 전화 주세요

010-7744-8358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충효동
- 총평수 1200평,가건물3동
- 부처님삼존불 모셔저 있음 약사여래부처님 9미터
- 삼성각, 요사채(방3,주방, 화장실)
- 주변6미터 도로, 주차시설용이
- 가액 : 6억(상담후 절충가능)

010-6327-1589

남향 황토주택
-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 대지190평,건물20평 목조주택
- 남향 소나무숲아래 황토주택
- 전원주택,별장,기도원,암자
- 찜질방,정자,터밭,방4개
- 2016년.12월 건물 리모델링
- 가액 : 1억5천7백만원

010-3848-2452
010-3831-797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단독사용
- 삼존불, 소불, 흑탱화, 제반시설 완비
- 법당, 주방
- 가액 : 은행5천만원 안고 1억

010-2857-28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 시내버스 승강장, 장소최적, 3층건물중 2층
- 삼존불, 소불 108, 주방, 욕실, 방1, 창고, 에어컨1, 냉장고1,
- 즉시 법회, 주차 1
- 가액: 보증금 1,000 월30만 시설비600만

010-3870-3673
010-7583-1235

사찰안내 및 전세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 총면적 : 530평
- 법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창고
- 가액: 7억 전세: 2억

연락처 010-2702-0303

포 교 원 양 도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면적 : 3층 약 40평
- 가액 : 보 1천만원 월 130만원

02-571-9197

비구니스님 요사채 분양 안내
- 위치:경북 울진군 온정면 원덕산길 392 (백암온천 부근)

300여년전에 방장스님이 계셨던 참선도량 기도 영험도량 광흥사에서 요사채를 지어 분양하고자 합니다. 대중스님이 모여 수행, 정진하는 도량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주지 합장

054-788-7672
010-8573-6353

인도 대통령 "붓다 메시지 이어받자"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 위빠사나명상센터 제막식서 강조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Ram Nath Kovind)이 현재 인도 사회의 불안한 환경을 부처님의 비폭력과 자비 정신으로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불교 철학이 헌법, 특히 평등과 사회 정의 원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코빈드 대통령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州) 캄티(Kampthi)에 위치한 드래곤팰리스 사원단지((Dragon Palace Temple Complex) 내 설립된 위빠사나명상센터 제막식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프리프레스저널'은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이 인도에 설립된 대규모 명상센터 준공식에 참석, 부처님 법과 명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9월 22일 보도했다.

코빈드 대통령은 "극도로 불안하고 불안정한 국가 정세 속에서 비폭력, 사랑, 연민 등이 국민에게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은 싯다르타 부처님이 설한 법에 있다. 부처님 말씀 따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부처님이 탄생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인(80.5%), 이슬람교(13.4)% 등 타종교에 밀려 불교세가 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인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발전을 위한 불교와 명상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코빈드 대통령은 특히 인도의 법률과 불교의 관계성도 설명했다. 코빈드 대

"불교, 헌법 평등사상과 밀접
불안한 정세 극복 도움될 것"
타종교인에도 불교 수용 당부
불교세 약한 가운데 의미 깊어

통령은 "인도 헌법속에 이미 불교가 있다. 특히 평등 · 우애 · 사회적 정의의 원칙은 특히 불교서 반영된 것이다. 최하층 불가촉천민에서 법무장관까지 지냈고 헌법을 제정한 암베르카역시 불자였다"고 언급하며 "요가나 명상 등을 특정 종교와 연관 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 인류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다른 종교를 가진 국민들도 불교의 철학을 받아들일 것을 권했다.


코빈드 대통령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州) 드래곤팰리스 사원단지 내 설립된 위빠사나명상센터 제막식에서 "불안한 정세 극복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프리프레스저널

이번 위빠사나명상센터가 설립된 마하라슈트라주는 인도 전역에 위빠사나를 확산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빈드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에 뒷받침하며 "마하라슈트라주는 위빠사나를 비롯해 많은 사회 변화를 선도했다"면서 "특히 19~20세기 인도사회에 모범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빈드 대통령은 "위빠사나 명상은 우리 내면의 자아와 우리를 연결시켜 효과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스트레스에 직면해있는 우리에게 명상의 기술은 어떤 약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위빠사나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코빈드 대통령은 "이 영성의 땅에 온 것으로 영광이다. 명상의 유래가 깊은 이 곳에서의 명상센터 설립은 큰 의미가 있다. 싯다르타 부처님의 2500년 역사를 재현하자"고 말했다.

박아름 · 박진형 기자

美 베스트셀러에 오른 불교 서적

과학저술가 로버트라이트 〈불교는 왜 진실된가〉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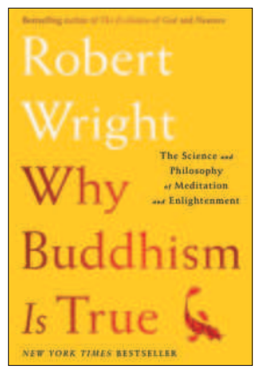
신의 영역마저도 이성적으로 설명해 화제를 모았던 과학저술가 로버트 라이트의 새 책 〈불교는 왜 진실된가〉가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불교는 왜 진실된가(Why buddhism is true · 사진)〉는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TSL' 등 외신이 전했다.

이 책은 불안과 분노, 탐욕, 우울증 등 끊임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해답을 불교의 명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저자 로버트 라이트는 퓰리쳐상 결선 진출자이자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보유한 인기 작가로, 이전에 저술한 〈신의 진화〉에서 신의 영역을 이성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종교에 회의적이던 로버트 라이트가 불자가 돼 나타났다"며 "주로 과학 관련 책을 써오던 라이트의 신작이 불교를 찬양하는 것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책은 8월 8일 발간됐으며 국내판은 출시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는 책에서 "명상은 약 없이도 깨달음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 고통을 치료해주기도 하며 환각제를 먹었을 때 보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준



사진출처=아마존닷컴

다"며 명상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또한 그는 "현대사회는 패스트푸드, 포르노, 니코틴, SNS 등 많은 것들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강화시키도록 설계돼 있다"며 "규칙적인 마음챙김 명상은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갈망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잘 자각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큰 것'을 구하려는 급박감을 줄여준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류는 현재 괴로움에 빠지는 이유와 근원을 찾는데 불교는 이미 2천년 전부터 이를 논의했다"고 불교의 가치를 높게 사고 있다.

박진형 기자

"90일 동안 하루 2번씩 10분만 명상하세요"

명상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美 남성 명상체험 공유

명상을 하면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책, 연구논문, 미디어 등 매체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옛 선현들의 가르침에 따라 명상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효과를 알 수 없다.

미국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마인드바디그린(mindbodygreen)'은 한 남성이 하루에 두 번 씩 매일 꾸준히 90일 동안 명상을 하면서 일어난 효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명상 체험을 공유한 스펜서 벡은 어릴 때부터 고독과 자아를 추구해오던 청년이다. 그는 "나는 성년이 되면서 삶의 롤러코스터처럼 우여곡절을 겪기 시작했다. 이런 삶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항상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90일 동안 매일 2회씩 명상을 하기 전에도 명상을 시도했다. 1년 6개월 전부터 명상 앱인 '헤드스페이스(Headspace)'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미국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마인드바디그린(mindbodygreen)은 한 남성이 하루에 두 번 씩 매일 꾸준히 90일 동안 명상을 하면서 일어난 효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출처=그레이티스트 닷컴

명상을 했던 것. 스펜서 벡은 "나는 거의 3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헤드스페이스의 지시에 따라 명상을 하며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회고했다.

스펜서 벡은 자신이 자정이 되기 몇 분전에 명상을 하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한 번은 스페인 바로셀로나로 여행을 가면서 명상하기를 하루 빼먹게 되었고, 매일 체크가 되고 있던 '런 스트릭'이 리셋이 되어버렸다. 스펜서 벡은 "이때부터 나는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내 자신을 자책했다. 사실 '런 스트릭'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내가 명상을 했다고 '체크'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명상을 한다는 라이프스타일을 좇고 있었고 삶의 패턴이 무너지면서 명상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명상과 요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한동안 명상을 쉬던 그는 다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명상을 시작했다. 몸과 마음은 피곤했지만 명상을 시도했다. 완벽한 명상은 아니었지만 명상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명상을 해 나갔다. 저녁 늦게까지도 명상을 했고, 다음 날 아침에도 명상을 자연스럽게 했다. 그렇게 명상은 생활의 일부가 됐다.

90일이 되자 그는 점점 변화되는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 침묵만으로도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 잠시라도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확인 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꼈지만 벡은 이제 스마트폰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 됐다.

- 나에게 진정한 휴식을 느끼게 해 준다: 하루의 끝에서 내 에너지에 집중하게 되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이며 기분을 느끼는지 알아차리게 해주면서 몸을 쉬게 한다.

- 충분한 숙면을 하게 해준다: 명상으로 아침에 잠에서 더 잘 깨게 되었고 잠을 더 깊게 잘 수 있게 됐다.

-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게 해준다: 피부미용, 목욕, 식사, 운동, 독서 등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보형 객원기자

태국승려, 무슬림 모욕으로 구금

온라인에 모욕내용 게시

태국 승려 아피차트 푸나잔토(Apichart Punnajanto)가 이슬람을 비난한 혐의로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고 '방콕포스트'가 9월 24일 보도했다.

스님은 9월 19일 강력계 경찰관들에 의해 송할라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슬림을 비난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방콕포스트'는 "그동안 아피차트는 특히 이슬람교 회교분리주의자들이 살해하고 불태운 것들을 주로 거론해왔다"고 전했다. 아피차트는 또한 정부에 종교적 문제에 대한 탄원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태국 인권단체는 이가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태국 인권단체 수석 연구원 수나이 패숙(Sunai Phasuk)은 자신의 트위터에 "무분별한 권력의 남용과 불법적인 기소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태국 남부 인권 단체인 '크로스컬쳐재단' 역시 종교 단체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진형 기자


태국 언론은 이전 아피차트 푸나잔토가 반이슬람행위를 하며 올린 게시물들을 공개했다.
사진출처=태국 불교 보호단체 페이스북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 철 야 용맹정진 ·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 재가불자 참선결제 · 동안거 결제 음.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호거산 운문사
운문사 회 주 명 성
운문사 주 지 진 광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 진
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신원리 1789) 전화 054)372-8800 전송 054)371-0359 www.unmunsa.co.kr

부모는 자녀 소유자 아닌 '관리자'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⑳

어느 상담과정에서 한 내담자는 그의 어머니가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면서 그 중의 한 사례를 제시했다.

어머니 : 아들아, 커피 마실래?

아들 : 커피 둘, 설탕 둘.

어머니 : 커피 하나, 설탕 하나.

아들 : 커피 둘, 설탕 둘이라니까.

어머니 : 커피 하나, 설탕 하나가 좋아.

아들 : 아니에요. 커피 둘, 설탕 둘이 좋아요.

다른 내담자는 딸의 행동이 못마땅하다면서 불평을 했다. 그녀의 딸은 엄마가 사다준 옷은 입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편한 옷만을 즐겨 입는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가 사준 옷을 입으라고 권하면 "엄마는 엄마가 좋아하는 옷만 입으라고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편한 옷을 입을래요"라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화지만 여기엔 부모의 관심이 자녀에게는 간섭으로 전달됨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는 같은 상황을 놓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이다. 부모의 관점은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요, 자녀의 관점은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관심은 '가치가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요, 간섭은 '관계없는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부모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왜 자녀에게는 부당하게 참견하는 말로 들리는 것일까? 사랑으로 전달될 수는 없을까?

흔히 '관심도 지나치면 간섭이 된다'는 말이 있다. 때때로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자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부모는 자녀가 하는 일이 늘 염려스럽다.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난다. 바로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한다. 결국 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자녀에게 투사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관심이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부모의 관심일까 간섭일까

필자도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밤늦게 오지 마라" "남과 싸우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머니, 제발 절 그냥 좀 놔두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라며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필자도 부모가 되어 자식들에게 가끔 이런 저런 충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라며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녀들은 자발적이고 동기화된 개인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부모의 관심은 오히려 자녀의 사고를 방해하고 방어적이 되도록 조장하며,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유아적 의존상태에 머물게 한다.

간섭과 관심은 관계에서 온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 부모-자녀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사람이 일생동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하늘이 맺어주었다고 하여 천륜(天倫)이라고 부른다. 이런 부모-자녀관계는 사후에도 제사를 모시면서 이어진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 관계는 차츰 소원해지고 있다. 이제 부모와 자녀를 묶는 끈은 서로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녀를 어떤 의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관심이 되기도 하고, 간섭이 되기도 한다. 관심은 애착과 밀법한 관계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애착을 나타내는 흔한 표현은 '나의'와 '내 것'이다. 이 말은 소유한 자와 소유 대상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내 자식, 내 돈, 내 집, 내 마음, 내 직업, 내 신념 등 모든 것에 애착이 있다는 것으로 소유자와 소유물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는 전적으로 우리 인식 내부에서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소유하고자 시도할 때 우리는 미래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사실에 대한 비난의 형태로 나타나 스스로에게 정서적 고통을 준다.

> **'자녀 사랑' 생각하는 부모**
> **관심 보이기 위한 행동이**
> **자녀에게 간섭 될 수 있어**
> **관계 전환 없인 해결 안 돼**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은 '간섭'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섭하는 관계가 된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들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 부모의 의식이 관심으로 나타나면 자녀가 행복하게 될 것이요, 간섭으로 나타나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 반대로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아픔에 애간장이 다 녹는다. 자녀의 기쁨은 곧 부모의 기쁨이요, 자녀의 슬픔은 곧 부모의 슬픔이다. 부모는 자녀들과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관계적 운명이다.

인간관계의 핵심인 '사랑'에는 피할 수 없는 관계 요소가 있다. 로버트 스턴버그(Robert Sternberg)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사랑은 친밀감, 열정, 헌신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친밀감(intimacy)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편안한 존재로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써 서로를 잘 이해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며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행동 특성이다. 열정(passion)은 사랑의 뜨거운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연인 간에 신체적으로 흥분되어 들뜨게 하며 상호간에 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헌신(commitment)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결심과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랑의 요소에서 보듯이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인 친밀감, 열정, 헌신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관계요소들이다.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행복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처럼 행복은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가장 빈곤한 인생은 곁에 사람이 없는 인생이다. 레바논에 이런 속담이 있다.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곳이 못된다."

행복의 주된 원천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관계믿음'을 가질 때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타인과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숙한 나눔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인간관계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심화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유에서 무소유의 관계로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행복의 바탕이 되는 진실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초연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연습을 하면 최소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약간이나마 초연해질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 부모는 자녀에게 소유자에서 관리인으로 관계를 바꾼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애착이 심한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실제로 부모에게 속하는 자녀는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가장 높은 차원의 관점, 즉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모는 자녀를 소유할 수가 없다. 그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는 오로지 '신탁 관리인'에 불과하다. 그것도 자녀의 경우는 성장하고 출가하여 독립할 때까지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둘째, 부모는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어떤 특정한 의견이나 관점을 고수할 때 사용한다. 위의 사례에서 커피나 옷 선택의 경우 부모의 가치를 고수하기보다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너의 관점이 그렇다는 점은 받아들이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라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무장 해제시킨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어느 관점도 완전히 옳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드는 한 관계는 발전할 수 없다.

셋째 부모는 자녀에게 오로지 주는 연습을 한다. 부모는 늘 자녀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며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우에 사용한다. 무언가를 원할 때 부모는 이미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따라 하기를 바라는 특정한 행동에 애착되어 있다. 우리는 대부분 태어난 순간부터 이 습관을 배운다. 말하자면 "줘, 줘, 줘"라는 말을 달고 산다. 그러므로 아무 것도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의식적으로 주는 연습'을 함으로써 이 습관을 약화시키고 결국 끊도록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주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지만 늘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일부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의 무자비한 폭행사건을 보노라면 그들이 성장과정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랑을 키우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부모-자녀관계는 생명이 있는 한 이어져야 하고, 끝내는 그 관계가 무소유의 자유로움으로 나타나야 한다.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느긋하게 지켜보는 일,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최대의 관심이다. 결국 소유관계에서 무소유의 관계로 발전될 때 삶은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관음성지 휴휴암

사부대중일동

양양 휴휴암 배
강원 주니어리그
바둑대회

제1회 휴휴암 배 강원주니어 바둑대회가 2017년 7월 9일 휴휴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2회는 강원 강릉고등학교에서 열렸고, 홀수 달마다 총 6회에 걸쳐 휴휴암 주최로 2018년 5월까지 바둑대회가 진행 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5
FAX 033-671-0525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0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대행 스님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다



그림 · 최주현

저는 이날까지 제가 산다고 생각해 본 예도 없고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본 예도 없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덕 스님네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해 주시고 같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라든 모자라든 오늘날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그저 내 정성이면 되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누구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자 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佛敎)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다른 종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뉴욕에 갔을 때 기독교, 가톨릭교 교인들과 신부님들이 모인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불교는 그저 미신의 소굴인 줄만 알고들 있더군요. 그러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런 말을 했죠. "일체 미생물에서부터 생명은 전부 불(佛)이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배우는 것이 교(敎)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불교 안에서 살면서 불교를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럼 당신네들도 귀신이겠네." 하고요.

그렇듯이 불교라는 단어 자체가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해도 불교는 되남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우리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인 줄 알지 마시고 불자들이나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다' 하면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삼계 간 온 누리를, 우주 간 모두를 한데 합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불교라는 이름 자체가 그대로 실지이고 그대로 진리이고 그대로 우리 삶입니다. 따로 불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가시는 그 자체가 그대로 불교며 그대로 여여하며 그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나질 않았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성 원리라든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고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다고 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든 부처님 아님이 있겠습니까마는 백지장 하나 사이로 부처다, 중생이다 하겠죠. "우리 인생은 허허바다에 배 띄워 놓은 거와 같으니라." 한 것은 이 몸을 비유한 거죠. 여러분 몸속에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 가지고 천차만별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몸 하나가 우주와도 같고 별성과도 같고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이 안에 세계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벌어진 그 모두를 중생으로 비유했거든요. 이 몸뚱이는 배로 비유하고 안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은 전부 중생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 파도가 치고 온통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이럴 때에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선장에게 일임해서 모두 같이하고 마음을 편안히 둬야 그 배는 뒤집히지 않고 갈 곳까지 갈 겁니다.

비유컨대 콩을 심어서 콩나무가 됐다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죠? 콩씨가 콩싹으로 화했으니까요. 여러분 모습이 콩싹이라면 바로 그 콩싹은 또 콩씨를 열리게 합니다. 자기 한테 자기 콩씨를 두고 과거로 돌아가서 콩씨를 찾는다면 아마 백 년이 걸려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콩나무가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입니까? 우리 육신을 일거수일투족 끌고 다니는 것은 나무뿌리와 같습니다. 나무뿌리가 한 나무 전체를 안고 성장시킵니다. 지분과 수분, 철분을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해서 나무를 성장시킵니다. 푸르르게 살게 말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내 고깃덩어리를 믿어라' 하신 건 아닙니다. 내 고깃덩어리를 '따르라' 했지 '믿어라'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편안치 않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뚱이 속에 천차만별의 의식이 있는데 우리 몸뚱이는 그 생명들에게 뭐가 됩니까? 관리인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고 집이 됩니다. 집! 그렇다면 여러분이 물 한 컵을 잡수신다 하더라도 혼자 잡수시는 게 있을까요? 더불어 같이 먹는 거니 내가 먹었다고 내놓을 수가 없죠. 안 그럴까요?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더불어 같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색(色)은 일체 공(空)했느니라. 공이 모두 색이니라." 하셨습니다. 왜 공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찰나찰나 화해서 바뀌 가면서 나투니까 어떻게 공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떤 거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공한 것이요, 여여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고정되게 보고만 있으면 목석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고정되게 듣고만 있으면 귀머거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생각해 볼 때에 '일거수일투족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그대로 내가 한 바가 없이 여여하구나!' 한 것이 됩니다. 그대로인데, 그렇게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가깝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그대로 여여하게 사시면서도 마음으로는 집착과 관습에 그냥 모두 얽매여 가지고는 오히려 마음이 자기를 붙들고 부자연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방이 다 터졌는데 말입니다.

보세요. 마음이 체가 있습니까? 체가 있다면 내놔 보세요. 체가 없고 고정됨도 없고, 여기서도 집에 갔다 오시려면 한 찰나에 갔다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발이 어디 놓여 있고 내 소지품이 어디 있고,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얽매여서 트이질 못하고, 물리가 터지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둥글지 못하고 이래서, 남이 길면 긴 대로 길다고 야단, 짧으면 짧은 대로 짧다고 야단,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별도 하고 이러죠.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짧으면 짧은 대로 네가 짧아 주고 길면 긴 대로 네가 길어 주고 둥글면 둥근 대로 네가 둥글어 주고, 이 세상에 모두 높지 않은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배를 타려고 뱃사공한테 간다면 뱃사공이 높고…. 내가 요즈음에 치과에 갔더니 말입니다, 치과 박사님이 제일 높습디다. 아무리 내가 높다고 생각을 해도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 안다고 해도 망상입니다. 개미 소굴에 가 보십시오. 개미 소굴에서는 개미가 높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 모두가, 미생물에서부터 일체 만물만생이 다 평등하니라." 하셨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공했다고 하는 이런 말을 말로만 알지 왜 뜻을 모를까? 모두 내 부모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다, 평등하다 하는 그 가운데의 뜻을 왜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서 사람까지 화해서 이날까지 왔습니다.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탄생을 해 가지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미생물에서부터 말입니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날까지 그렇게 겹겹이 올라오면서 인간까지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벌레의 부모라고 그래서 내 부모 아닌 게 없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니까 말입니다.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내 모습이고 네 모습이고 간에 내 부모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님이 하나도

☞ A30면으로 계속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公 告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공식 명칭이 변경 되었기 선포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종단은 불법승 삼보를 신행하고 원융무애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증흥의 새 일꾼이 되어 새 시대 총화불교의 실천자로서 종파를 초월하고 애국 애족 하는 호국 불교에 매진하여 불타의 자비 희사 정신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으로서 1982년 3월 26일 문화 공보부로 종교법인 제 1호로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 제 393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2017년 8월 8일 주무관청인 문화 체육관광부 제 393호로 법인 설립허가 명칭을 원융종으로 변경 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전 종도 여러분은 현 사.암 등록증과 주지 임명장 등 승려증 및 유승증을 총무원에서 2017년 9월 30일까지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내에 재교부받지 않은 모든 문서는 본 종에서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대한불교 원융종 이사장 겸 총무원장 배진호

※ 본종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진흥회광고에 기재되는 임원 명단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승가회

총 재 무 공

회 원 일 동

■ 주 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길 신해사

■ 전 화 : 055)855-1772

너희들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야 자유스러우니라!

☞ A29면에서 계속

없다는 결론이, 그 말씀이 부처님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게 아리송하시겠죠?

지금 육의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내 영원한 근본은 정자 난자를 빌려서 삼합이 합쳐져야 육을 형성시킵니다. 지금만 육의 부모를 두고 이 세상에 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수억겁을 통해서 아마 생존 경쟁을 했을 겁니다.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렇게 실랑이를 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그렇게 가깝게 두고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 주인의, 즉 말하자면 종입니다, 종. 종 문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종입니다. 주인과 종이 둘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공부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인을 이름해서 부(父)라고 하고 자기는 자(子)라고 합니다. 자와 부가 상봉을 해야만이 그때서부터 무의 세계로, 유의 세계로 뛰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 화두를 마음이 준 겁니다. 화두라는 이름을 준 거는 아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화두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이름이 없으면 줬다 안 줬다 할 수가 없으니까 화두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어느 스님네고 마음을 주었지 화두라는 이름을 준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일 때, 자기 영원한 근본이 물 한 방울이라고 치면 그 영원한 근본을 둘 아니게 수만 개를 넣는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영이죠. 그러니 그대로 한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한마음 가운데에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놓는 것입니다. '내고 들이는 것이 바로 너니까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할 수 있잖아.' 하고 자꾸 놓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을 움죽거리게 하는 것도 너, 잘되고 못되게 하는 것도 너, 잠자고 깨어나게 하는 것도 너, 일체가 다 너죠. 너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부(父)라고 해도 좋고, 자기가 친근하게 닿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방편을 대도 좋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보살들을 자기가 생산시켰습니다. 한마음으로서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을 전부 보살로 화하게 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게 만들고, 낮고 높고를 떠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말고 모두 응신이 돼 줘라 하는 뜻에서 천백억화신이 그 모든 중생들에게 응신으로 나투어 주신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현재에 모두 주둔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성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적으냐 많으냐 하는 차이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처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인과응보도 내가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두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스스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그 다섯 가지가 있다면 오신통이라는 다섯 가지가 또 있죠. 그 육통을, 육신통이라는 이 통 속에서 벗어나야만이 누진으로써 자유스럽게 들이고 낸다 이런 말이죠.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래서 보는 거 천안통, 듣는 거 천이통, 또는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이라는 다섯 가지의 오신통 자체 속에 유전성 영계성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그 모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그 자체는 뭐냐? 우리가 지금 시쳇말로 따지자면 오신통을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컴퓨터라고 한다면 그 다섯 가지 문제를 들이고 다섯 가지 문제에서 풀려서 현실로 나가고 또 들이고 하는데, 내고 들이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또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참 묘하게 생겼어요. 입력이 되는 대로 자꾸 그게 누적이 되니까 누적되게 하지 마시고 그 나오는 자리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 놈이라고 하면 어떻고 부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직 한 놈 속에서 들이기도 하고 내기도 하는 걸요. 그러니 그 구멍이 아니라면, 구멍 없는 구멍이 아니라면 절대로 무의 세계에는, 궁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 들어서야만이 현실의 모든 법을 감지하면서 무의 세계에서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가 나지 않게 둥글리면서 진짜 공부는 그때서부터 하는데 그것이 점수입니다. 점수라고 일컬어 말하는 거죠. 돈오와 점수가 어떻게 둘이겠느냐. 돈오는 어린애를 금방 낳은 거와 같고, 점수는 어린애를 키우는 거와 같다 이런 겁니다. 키우는 거하고 낳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선과 학도 둘이 아니요, 생활과 부처님 법도 둘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자 우리들의 재료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재료! 법당에 들어가서도 삼정례를 한다, 칠정례를 한다, 팔정례를 한다, 또 백팔배를 한다, 삼천배를 한다 이러는데, 옛날에 제가 걸음을 걸을 때에 한 걸음을 걸은 거와 삼천 걸음을 걸은 거와 맞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길이 산길이 아니고 들길이 들길이 아니고 그대로 한생각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면서 살고 계신데 그걸 납득을 못해서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진짜로 믿고, 자기 콩싹이 자기 콩씨를 진짜로 믿고 '하! 영원한 친구구나. 네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쓰겠니? 네 집인데 주인이 고쳐야지 누가 고치겠니? 사사 집도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고치게 마련인데 아, 네 집을 형성시켰으면 네가 고쳐야지.' 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내뜨릴 수 있다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겁니다. 참으로 좋고 묘하고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위 중간, 즉 대천세계 중천세계 하천세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둘이 아니게 둥글려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지만, 법도를 지키려면 바로 하천세계는 하천세계고 중천세계는 중천세계고 상천세계는 상천세계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으면서도 따로 없다. 한 찰나에 과거고 한 찰나에 미래고 한 찰나에 현실인데, 우리가 죽어서 과거로 가서 또다시 미래를 향해서 현재로 다시 오는 거는 어느 생명체도 다 똑같습니다. 지옥이 따로 있고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현재 세계에 모두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지 않은가 잘 보세요. 눈 크게 뜨시고요.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드는 것도 자기요, 극락을 만드는 것도 자기입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묘하고 미묘하고 광대한데 그런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마음이 정말이지 아주 기묘하고 마음이라는 그 이름이 이 세상을 다 삼키고도 남고, 그 마음이 이 세상을 다 끌어당길 수도 있고 집어삼킬 수도 있고 뱉어 놓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권도라고 할까요? 권도! 자유 권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몰라서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때려 주면 안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 한자리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그 부처님 법을 그대로 알게 될 겁니다. "넓게 살아라. 둥글게 살아라. 낮은 걸 보고도 낮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걸 네 모습으로 보고 네 마음으로 보고 네 아픔으로 보고 네 몸으로 생각해라. 수억겁을 거치면서 부모가 안 됐던 게 없고 자식이 안 됐던 게 없고 형제가 아니 됐던 게 없으니 부족하더라도 모두 옛날 네 모습으로 봐라. 모든 것이 평등하니라." 하신 뜻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삽니다.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미래를 가져오고 과거도 현실로 끌어올 수 있고 미래도 끌어다가 바로 현실로 놓을 수 있는 그 미묘한 법을 그대로 방치한단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대로 남의 탓만 하고 남이 모자란다는 생각만 하고 남이 잘못한다는 생각만 하고, 나는 이만하면 법랍이 어떻고 나는 이만하면 뭐가 어떻고 이런 생각만 해서 되겠습니까?

낮은 걸 보고도 낮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걸 네 모습으로 보고 네 마음으로 보고
네 아픔으로 보고 네 몸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죄송하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구는 비구니까 성불한다는 생각에서 그만 잘못되고, 비구니는 성불 못한다는 데서 그만 잘못됩니다. 하늘이 비구라면 땅은 비구니입니다. 산하대지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을 길러 내는 어버이입니다. 젖소로 따진다면 비구가 젖소라면 비구니는 젖일 것입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그 따뜻한 마음, 한 아름으로 비구 스님네들은 모두…. 땅에 박힌 돌 하나도 부처 아닌 게 없다고 하셨는데, 공안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그렇게 자기네들 심부름 해 주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런 거죠. 심부름을 부려먹어도 좀 더 너그럽고 지혜롭게 팔 아름이 이 세상을 다 안고도 남음이 있게끔 안는다면 세상에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로는 비구가 됐다 때로는 비구니가 됐다가, 때로는 작부가 됐다가 때로는 짐승이 됐다가 미생물이 됐다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바뀌고 나툰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를 할 때 비구니라고 하고 어떤 거를 할 때 비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룩하고 한국 불교를 리드해 나가려고 한다면…, 지금 청소년들이나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 발전은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얼마나 집을 튀어나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가대학을 좀 더 마음으로라도 뒷받침을 해서 거기서 금같이 굳고 대쪽같이 바르고, 넓기로 말하면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스님네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마음으로 항상 염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서 노는 고기들은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공기주머니에서 나오면 죽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긍히 생각하시고 "너희들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야 자유스러우니라." 하셨습니다. 너무나 가긍해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죽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몸이 쓰러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먹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주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받는다는 생각도 없이, 오직 건질 생각만 하시고 그렇게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건데, 우리가 첨단은 넘어설 수 없을지언정 그 말씀만은 실천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 공기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육신통, 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지구 속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심안으로 보기만 해도 도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는 것도 도가 아니고 타심통, 남의 마음을 다 잘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구름을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자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듣는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그 다섯 가지 통 속에서 벗어나서 대뇌에서 자유자재권을 얻어야 되느니라. 대뇌라는 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모든 일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과도 가설이 돼 있습니다. 참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사람을 죽였다 해도, 아무도 못 봤다 하더라도 천지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5년 10월 8일 부산대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원(단체)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제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서 본회 회원(종단 및 사암)을 모시고져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 **설립동기** : 대덕 큰스님께서 활동하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자와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회장단과 회원들간에 소통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모든 행사를 회원들과 협의하여 행사일정을 잡고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스님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회원(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단체등록 및 행정지원
1 종단 및 사암, 문화예술 단체등록
2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서식
3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서식
4 관청 단체명의 차량등록 서식
5 종단 및 사암운영 행정 서식
6 사단, 재단법인설립 서식

▶ 회원(종도)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1 법인명의 가입증명서
2 법인명의 소속증명서
3 법인설립허가증
4 법인명의 신분증, 승려증
5 기부금영수증서식,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명세서 서식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홈 페 이 지 : 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한국 또는 http://sansoo5.cafe24.com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 불자 세상보기 |

순직 소방관들을 추모하며



문윤정
수필가

火魔 뚫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희생 기반 둔 아름다운 행위

석란정 화재진압 중 소방관 순직
열악한 작업환경 다시 도마 위에
위험 · 진압수당 月 10만원도 안돼

선진국 소방관처럼 존경 받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 · 관심 필요해
순직 소방관 유가족 처우 개선해야

소방관들의 작업현장은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전쟁터와 같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길 불속으로 뛰어든다.

강릉에 위치한 석란정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두 분이 생을 마감했다.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은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소방관들의 희생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애도를 표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퇴직을 1년여 남겨둔 故이영욱 씨는 퇴직 후의 삶을 그려보면서 가슴 두근거렸을 것이다. 임용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故이호현 씨는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을 얻은 듯 기뻐했을 것이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그들의 부푼 꿈은 한 순간에 육신과 함께 매몰되어버렸다.

사고가 날 때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처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족한 소방인력과 낮은 봉급이다. 인력증원이 되지 않아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만큼 사망과 사고 빈도가 높다. 그들에게 합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낮은 봉급뿐만 아니라 위험근무 수당은 겨우 월 6만원, 화재진압수당은 월 8만원에 불과하다. 2007년 4만원에서 10년 동안 불과 2만원 오른 셈이다. 목숨 값이 6만원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하다.

재난의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소방관들처럼 '살아서는 존경의 대상이요, 죽어서는 영웅'이 되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사후 유가족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방관의 순직은 일반적인 산재 사고와도 구별해 명예롭게 하는 것과 동시에 보상금의 액수를 높여야 한다. 순직자들의 뒤에는 가족이 있다.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보상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소방관들의 고통과 슬픔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자, 국가의 손실이다.

미국의 경우 1992년 의회가 만든 전국순직소방관재단(NFFF)이 유가족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년 순직소방관 추모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 보조금과 개인, 사회단체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은 영웅 만들기가 핵심이다. 또 '소방 유가족 네트워크'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도 이런 재단을 만들어 순직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이젠 국가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고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순직한 소방관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의 공간을 만들어, 그들의 이름과 죽음이 빛바래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 중 마지막 구절인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라는 구절을 떠올려 본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社 說

종단 화합 넘어 불교화합 시초되길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으로 편백운 스님의 취임부터 조계종과 태고종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이미 갈등관계를 빚고 있지만 취임식에서부터 조계종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고야 말았다.

'선암사 절뺏기를 시도하면 조계사 절뺏기에 나서겠다'는 말에 취임식에 모인 태고종 종도들은 박수를 쳤고, 종단을 초월해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왔던 조계종 스님들은 머쓱해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이날 취임식에는 종단협 회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도 취임식에 불참했다고 하니 다행으로 보아야 할까.

태고종 측의 선암사를 지키겠다는 수호의지가 느껴졌지만 종단간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한 뿌리이며, 각 종단 내에서도 함께 화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스님들이 많다. 하지만 두 종단은 화합과 반목으로 반세기를 지내왔다.

삼국지연의에서 유명한 조식의 7보시가 있다. '콩깍지로 콩을 삶으니 콩이 솥 안에서 우네'. 한 집단의 반목 아픔을 드러낸 대목이다. 한 종단에서 나와 서로 정화, 법난으로 부르며 갈등하는 사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바깥사회에서는 남과 북이 핵개발로 연일 도발과 대응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시국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두 종단의 다툼은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선사할 뿐이다.

불교에 대한 실망은 전체 불교계가 감당해야 한다.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태고종은 대사면을 선언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두 종단이 종단간 화합을 선언, 불교화합의 시초를 만들길 기원한다.

호스피스 환자의 외침을 듣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교계는 호스피스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병원전법단, 전국비구니회 등이 개별적인 자체 교육을 실시할 뿐 종단 차원의 표준화된 교육체계가 없어 일반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약 1년 전, 조계종 포교원은 활동영역이 일부 겹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불교호스피스협회와 병원전법단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각 교육과정을 종단이 인증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해가 되면 연찬회를 열겠다고 전했으나 법 시행에 발맞춰 대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00명이 넘는 불교호스피스 활동가가 배출됐음에도 현장에 남은 스님이 10%에 불과하다는 소식은 불교계가 그동안 호스피스에 얼마나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동안 제 발로 법당을 찾아온 사람들 위주로 법을 전하고,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손길을 내밀지 못한 과거가 또다시 이어지는 셈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불자임에도 불교호스피스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임종 전 개종한다는 서글픈 얘기가 간간히 관계자들로부터 들린다. 이 모습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강조하는 불교 본연의 가르침에 결코 맞지 않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불교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니다.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가 불교를 찾는다면 따뜻한 손길 내밀 수 있는 방법을 사부대중이 함께 연구해야 한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재미있는 불교를 위해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일본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받기 전까지 잠깐의 백수생활을 할 때였다. 마침 내가 머물던 곳 바로 가까이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스님께서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신 조그마한 절이 있었다. 덕분에 거의 날마다 찾아가서 짧게나마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하는 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절에 특히 남성 신도가 적으니 간부를 맡아 사찰일 좀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러고 보니 절에 주로 나오는 신도님들의 연령대는 50~60대가 많아서 어린이반을 제외하면 내가 가장 '젊은이'였다.

그래서 딱히 '간부'라기보다는, 때마침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올 때라 일손도 부족했기에 나는 스님 말씀대로 좀 더 자주 절에 나가며 간부님들의 일을 도와 드리기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보니 정작 '젊은' 나는 지치는데 신도님들은 모두 지극한 불심으로 절일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셨다. 그런 모습에 숙연해짐과 동시에 불자인구 300만 명 감소 시대의 숙명인지 '절에 젊은 신도가 이렇게 없어서야!' 하는 안타까움을 피부로 느꼈다. 불교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좋아야 할 텐데 왜 젊은이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걸까?

작은 사찰들은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법회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 · 고등학생들이 부모님 따라 어쩌다 절에 한번 와도 불교에 대해 딱히 공감할 바도 없고, 또래도 없으니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결국 법회 때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법회가 끝나면 친구를 만나러 급히 떠나는 게 일이다보니 두 번 다시 절에 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재미가 없어서일 것이다.

어린 조카에게 불교는 낯선 곳
재미난 불교를 전해야 '포교'

언젠가 한 번은 꼬맹이 조카 녀석을 데리고 절에 간 적이 있었는데 녀석 왈, 불화 속 주인공들(신중님들)이 너무 무섭다나…. 녀석에게는 절이라는 곳이 TV에서 봤던 무속인들의 집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 두 장소를 동일시하는 듯했다. 나름대로 불교를 전공한 삼촌이니 꼬맹이에게 아주 쉽게 불교와 무속의 차이를 설명해 준 것 같은데-물론 쉽지는 않았다- 녀석 역시 두 번 다시 나를 따라 절에 가기를 거부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나는 이번 학기 '불교철학과 대중문화-영화로 불교 읽기'라는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다. '영화를 통해 불교 이해하기'는 어찌 보면 흔한 방법론일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젊은 학생들이 불교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하는 고민 끝에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개설한 과목이다.

학문 탐구에 대한 열정인지 혹은 영화를 보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는 바람에 분반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난 첫 시간부터 오직 하나만 다짐했다. 무조건 '재미있게' 강의하리라, 20대에게 불교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하니까!

〈바로 잡습니다〉 1166호 A19면 가야불교문화축제 관련 기사 내용 중 '김해출신 홍도야 우지마라 김영춘 가요제'와 '통돼지 바비큐 판매'는 진행되지 않았음을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8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승려연수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 불성을 밀어라
불교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
한나무인성교육 '꽃을 피우는 나무'
■일 정 : 2017년 11월 9일(목) ~ 11일(토), 2박 3일(숙박형)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충남 공주 소재)
■정 원 : 30명
■교 육 비 : 20만원, (재)한마음선원과학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마 감 : 2017년 11월 2일(목)
■문의/신청 : 031-470-3196, 3200 (매주 화~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다음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대한불교원효종 관련 판결문

주문
① 위 당사자 등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008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7.5.18에 한 가처분결정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①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 및 황의용, 신춘복, 김종호, 국순철, 강순주, 차유정, 이춘근, 김순석, 이동수(이하 피신청인들 및 황의용 등'이라 한다)는 신청인 및 손영채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5.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 및 황의용 등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6. 28. '피신청인들 및 황의용 등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7카소100120호).

다, 피신청인들은 위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피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처분 채권자들만 위 제소기간내인 2017.7.10.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② 판단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때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호 제3항,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0

재판장 판사 손봉기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 석

敢不生心

감불생심이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스리랑카 캔디 불치사의 석가모니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셔진 탑전을 친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인연공덕 없인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어릴적부터 불심을 길러 아침나갈때 저녁들어올 때 합장하고 기도드리면 부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치아가 모셔진 사리탑

麻中之蓬

마중지봉이란 곧게 자라는 삼마밭에 함께 자라나는 쑥도 곧게 자라게 된다는 것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 영향을 받아 자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도에서 단타왕자가 창을 들고 고기잡는 어부로 변장하고 헤마말라공주는 정대(頂戴) 머리카락 속에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를 숨겨 스리랑카로 전수했다.

잘 될 사람이 모시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불교인의 신앙사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스리랑카

신성시 하는 성물로서 모시는 사람이 그 나라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전설 때문에 왕권 투쟁이 빈번하였다. 이처럼 성스럽고 위대한 부처님 치아가 모셔진 성전을 가까이서 친견할 수 있는 것조차 특별한 인연 공덕을 쌓지 않은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까지 극히 제한되고 있다. 이미 사찰과 불자 가정에 모신 공덕으로 스리랑카에 가서 친견하고 종교국가 대통령으로부터 다과 접대를 받고 종정 스님까지 친견하는 불자로서 더 이상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처님 치아 사리가 봉안된 불치사 성전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불치성 장관과 두 분 종정 스님께서 이를 관리하는 데 대통령의 예방을 받는 아주 친견하기 어려운 종정 스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부처님 치아 사리탑 액자를 사찰과 불자 가정에 모시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친히 받고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스리랑카문화교류협의회 법사 방필석



티샤위제라트네 前 주한 스리랑카대사



대통령으로부터 54명 환대받고 감사함을 전하는 법사 방필석



대한불교조계종 前 원로회의 의장 밀운대종사



스리랑카 캔디 불치사 말와두 종정

한국 불교도인 여러분들께,

스리랑카, 캔디소재에 안치되어 있는 불치사리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세계 불교계의 숭앙을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 치아사리는 모든 불교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 스리랑카의 대사로서 부처님의 치아사리탑 사진이 한국의 불교** 가정과 사찰에 가보(heirloom)로 모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으니 매우 기쁘며 한국에서 불치사진이 사찰과 가정에 장식됨으로써 축복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보의 축복이 자연히 내려질 것임을 불교 국가의 대사로서 이 또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출품 홍보

티샤위제라트네 前 주한 스리랑카대사

석가모니 부처님 치아가 모셔진 사리탑

신앙 사진으로 가정에 모시고 아침저녁 합장하고, 예를 갖추고 기도드리면 부처님의 가피로 좋은 영향을 받아 올바른 생각을 하게되고 산만한 감정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며 혜안이 밝아지며 살아가는 이치를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고 집안에 부처님 복이 온다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사진 촬영은 어느 누구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본인도 기회가 있어 영암 큰스님을 모시고 친견을 하였습니다. 치아사리를 모신 사리탑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나 당시에 친견할 수도 없고 친견 못한 한국불자를 위하여 촬영을 부탁하여 허락이 되어 촬영한 결과 국내 불자님이 모시기를 원하여 당시 촬영한 사진작가 법사 방필석으로 부터 여러 사람에게 보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불자님께서 모시어 가정에 원만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前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변밀운 스님 말씀

협력 : 주한스리랑카대사관 **주관 : 한국스리랑카문화교류협의회 법 사 방 필 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등용문빌딩 201호 규격 : 가로 63㎝×세로 83㎝ 재질 : 전지사진 비단표구 유리액자

문의 : 02)735-8259



삶의 절망 속에서 한 소년은 출가자가 됐다. 그리고 그 소년은 다시 절망이 흐르는 교도소에서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다. 50여년이 흘러 소년은 노스님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희망을 품고, 전하는 소년 그대로였다.

재소자 교화설법 50년, 사형수들의 아버지

산문 밖의 禪 삼중 스님 (75 · 전국교도소재소자교화후원회장)

50년 전국 재소자 교화

서대문형무소 뒤편 살며
재소자들의 삶 알게 돼
1967년 대구교도소 전법
투석하며 현재도 교도소 찾아

사형수들의 대부 자임

300여 사형수 마지막 지켜
"사형수 얼굴이 부처님 얼굴,
교화하는 제가 오히려 배워요"
억울한 사형수 감형 돕기도

인간에겐 공기와 물 등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아울러 삶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도 있다. 그 중에서 '자유'는 삶의 공기이자 물일 것이다. 하지만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이들도 있다. 재소자들이다. 그들 중에는 자유뿐만 아니라 '삶'을 반납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사형수들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시비(是非)에 앞서 함께 두 손을 모아야 할 공업(共業)이다. 50여 년 동안 이 공업참회에 평생을 바친 이가 있다. 전국의 재소자들을 찾아 교화설법을 하고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준 삼중 스님이다.

삶과 죽음을 건너서

삼중 스님은 이 세상에 온 지 겨우 1년이 되던 즈음에 죽음의 문턱에 선다. 스님의 부친도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양쪽 모두 순간을 쪼개가며 숨이 붙었다 떨어지기를 주고받았다. 신기한 일이었다. 마치 상대를 위해 먼저 가기를 다투는 듯했다. 이윽고 아이가 죽고 아버지가 살았다. 병원으로 가던 중 아이는 숨이 끊어졌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모친이 스님을 업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노상에 좌판을 펼친 할머니가 눈물범벅이 된 새댁과 등에 업힌 아이를 보게 된다. 안쓰러워진 할머니가 스님의 모친을 불러 세워 묻는다.

"새댁 왜 그러우?"

"…아이가 죽었어요.…"

등에 업힌 아이를 살펴본 할머니는 스님의 모친에게 자신이 팔던 약초 한 뿌리를 건넨다. 집으로 돌아온 스님의 모친은 할머니가 시킨 대로 약초를 급히 다려 아이의 입에 부었다. 그 때, 스님의 부친이 누워있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부친의 사망 소식이었다. 부친의 부고가 전해지자마자 아이가 거짓말처럼 눈을 떴다. 이번엔 아버지가 죽고 아이가 살았다. 결국 아버지가 먼저 죽음의 길을 밟았다. 스님의 삶은 그렇게 삶과 죽음을 힘겹게 건너며 시작됐다.

숙연의 시작, 서대문형무소

아버지를 여읜 스님은 친가를 나와 외가로 옮겨 살게 된다.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던 스님의 모친이 스님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당시 스님의 외가는 서울 서대문형무소 뒤였다. 스님은 유년기를 형무소 담벼락 밑에서 보낸다. 어느 날, 구슬치기를 하며 놀던 스님은 푸른 옷의 재소자들을 처음 보게 된다. 그들은 간수의 총부리 끝에 줄을 서서 노역장으로 끌려 다녔다. 스님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들에 대해 물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지만, 왠지 그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때, 훗날 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삼중'은 아마도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절망, 그리고 또 절망

스님도 어느덧 사춘기를 맞는다. 철이 들기 시작한 소년은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 소년의 마음을 예리하게 지나간 것은 어머니의 삶이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어머니였다. 어머니이기 이전에 여자였다. 소년은 자신이 어머니의 삶에 적지 않은 장애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없는 삶도 편치 못한 삶이었지만, 편치 못한 어머니의 삶을 지켜보는 일도 사춘기 소년에겐 편치 못한 삶이었다. 열일곱 살, 누가 시킨다고 하고, 말린다고 하지 않는 시절이 아니다. 마음속에 들어선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야만 하는, 못 말리는 시절이다. 스님은 외가를 나와 한 살 때 떠나온 친가를 찾아간다. 하지만 스님은 친가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부산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삶은 쉽지 않았다. 절망뿐이었다. 길이 없는 사춘기 소년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은 '자살'이었다. 스님은 다량의 수면제를 미련 없이 입에 털어 넣었다. 하지만 스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다.

다시 삶을 시작한 스님은 무작정 대구로 간다. 스님은 피를 팔아 역전에서 노점을 시작해보지만 그 역시 스님에겐 삶이 되지 못했다. 어린 소년이 홀로 버티기엔 힘겨운 세상이었다. 여전히 스님에겐 죽음도 삶도 쉽지 않았다. 절망의 연속이었다.

절망에서 출가로, 청담 스님을 만나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소년은 어느 날, 거리에서 승복을 입고 지나가는 스님을 보게 된다. 순간 소년은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되자."

절망 속의 소년이 우연히 지나는 스님을 보고난 후 일으킨 생각은 바로 그것이었다. 인연은 그런 것이었다. 스치고 지나가는 승복자락이 숙연의 실마리였다. 소년의 머릿속엔 해인사가 떠올랐고, 그 길로 해인사로 향했다. 그리고 청담 스님을 만난다.

"왜 왔느냐?"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본래 꿈이 스님은 아니었을 터, 무엇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것이냐? 중은 평생 누더기 입고 살아야 하는 일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절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절이었다. 절이라고 해도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는 없었다. 갈마를 거쳐야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문득 소년의 머리를 스친 생각은 그것이었다. 숙연의 실마리는 또 있었다. 그렇게 소년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온 문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때까지 소년의 삶을 그려보면 그 문장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 답변은 소년의 입에선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말이었으나 주지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 자도 버릴 것이 없는 답변이었다. 부처님에서 시작된, 출가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던가. 소년은 머리를 깎는다.

B2면에 계속

INSIDE

B3~7
특집 사찰경영 3.0
불교 중흥의 시작

B11
출판
정휴 스님 〈백담사 무문관 수행일기〉

B15
현대불교에 바란다
역대 필진이 말하는 현대불교

“재소자 눈물 닦아준 교도소, 내평생 수행도량”


일본교도소에서의 교화활동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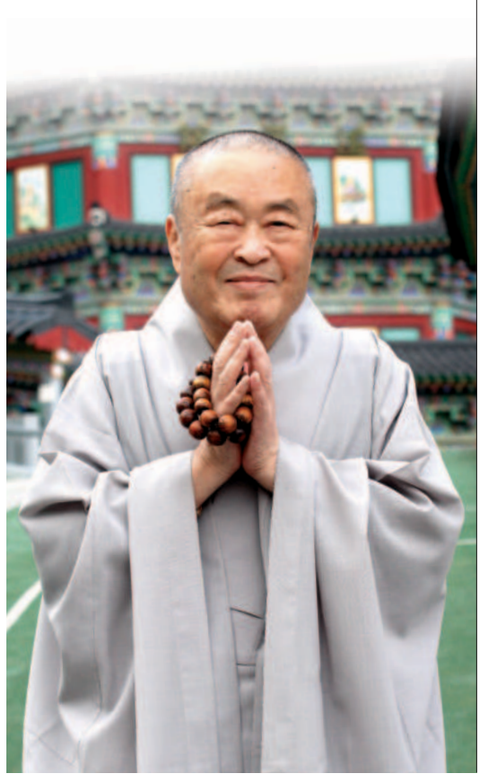


2014년 8월 안중근 의사 유묵 기증식.


젊었을 적 삼중 스님이 교도소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여해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다.

삼중 스님은…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7세 때 해인사에서 출가했으며, 경북 용연사, 개운가, 화엄사 주지를 지냈다. 전국교도소재소자교화후원회장, 법무부갱생보호위원, 서울구치소교정위원, 서울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이총 · 비총호국영령위령탑건립위원장, 일본안중근의사추모기념비 보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 종정 표창,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교정대상(1986), 국민훈장 목련장(1990), 대한적십자 박애금장(1992) 등을 수상했다. 일본, 태국, 대만, 중국,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도 교화활동을 펼쳤다. 저서로는 〈통곡하는 사람들〉 〈사형수 어머니들이 부르는 통곡의 노래1, 2, 3〉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것을〉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1, 2〉 등이 있다.



‘삼중 스님’

B1면에서 계속

사회활동도 활발히 펼쳐
재일교포 김희로 구명운동
안중근 의사 유해찾기 30년
1993년 유묵 발견 성과도
“안중근, 거룩한 사형수”

교화의 시작…푸른 옷의 기억

“부처님은 힘겨운 중생을 위해 사바에 오셨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고 아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제 소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삼중 스님은 1967년부터 대구교도소를 시작으로 재소자 교화 활동을 시작한다.

당시 교화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나 신부는 많았으나 스님은 없었다. 우연히 법사를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간 곳이 대구교도소였다.

“여러분들과 저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머리모습도 비슷하고요. 옷 색깔도 비슷하고요. 고무신을 신은 것도 비슷합니다.”

스님의 교화활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재소자들과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스님은 사형수들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스님의 마음에 그들이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죽음의 문턱과 삶의 벼랑 끝을 오가며 누구보다 생사의 간격을 진하게 체험했으며, 그 생사의 간격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물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스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스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마음이 기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님의 교화활동은 우연히 시작됐지만 그것을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리라.

“푸른 옷의 재소자들 앞에 선 순간, 어릴 적 서대문형무소 담장 밑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때 품었던 마음과 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 이 길이 나의 길이구나.”

“법문은 그들이 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죽음 앞에 선 사형수의 모습엔 부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생사일여’를 그들에게서 봅니다. 법문은 그들이 합니다.”

1989년 8월 4일, 서울구치소. 삼중 스님이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사형수 고금석의 사형이 집행됐다. 고 씨는 1986년 서울 역삼동 서진룸살롱 살인사건 때, 조 씨 등 네 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수가 됐다. 고 씨는 삼중 스님을 만나면서 참회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마지막 길을 떠난다. 집행 당일 오히려 〈반야심경〉을 독송하던 스님이 독송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고 씨가 담담한 목소리로 끊어진 〈반야심경〉을 이어갔고 다시 스님이 경을 독송했다. 사형수 고 씨는 미소를 지었고, 사형수의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지켜주어야 할 스님은 오히려 펑펑 울었던 것이다. 그 동안 두 사람이 함께 했던 세월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형수 고 씨는 스님이 열어준 교화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었고, 스님은 사형수이기 이전에 뜨거운 가슴을 가진 한 인간의 진한 참회를 볼 수 있었다. 의식이 끝나고 형이 집행되기 직전, 도리어 고 씨가 스님을 위로했다.

“스님, 죽음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스님 울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편히 갈 수 있습니다.”

그 날, 고 씨는 자신의 콩팥과 안구를 기증하고 피안의 길로 떠났다.

삼중 스님의 손에는 늘 두 개의 염주가 들려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고 씨가 생전에 〈금강경〉을 새겨 넣은 것이고, 또 하나는 스님의 노력으로 사형에서 감형되고 석방까지 된 최 모 씨의 것이다. 최 씨의 염주 알에는 ‘필귀가(必歸嫁 · 반드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최 씨의 감형과 석방은 염주 알에 새긴 그 ‘필귀가’를 삼중 스님이 보면서 시작됐다. 사형수 양 씨 역시 스님의 노력으로 인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스님은 일본 교도소에 갇힌 우리나라 재소자들까지도 관심을 가졌다. 1980년대부터 일본 교도소에서 교화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한국인 차별에 격분해 일본인 야쿠자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재일교포 김희로가 1999년 석방돼 우리나라로 돌아오기까지 10년 간 구명운동을 펼쳤고, 가장 거룩한 사형수라고 생각하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와 유묵을 찾는데도 30년 세월을 바쳤다. 1993년 스님이 일본에서 찾아낸 안중근 의사의 유묵 ‘경천’은 서울대교구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 바티칸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삼중 스님은 몇 해 전부터 심부전증으로 인해 이틀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 귀도 어두워져 보청기를 끼어야 한다. 그런 불편한 몸이지만 스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형수를 만나고 있다.

“제가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할 만큼 힘들지만 그 힘든 투석을 견디고 아직도 사형수를 만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 영원한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늘’은 저를 비롯한 구치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늘’과는 다른 하루입니다. 그들은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면서도 저보다, 우리보다 더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 죽음 앞에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삶의 끈을 붙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나면 그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을 만나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제 마음을 전하고 나면, 그들이 저에게 법문을 합니다. 말없이 법문을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돌아올 때, 저의 가슴속은 그들의 법문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법문하러 갔다가 법문 듣고 옵니다. 결국 제가 그들을 교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서로 교화된 것이죠. 어느 한 쪽만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닌 것이죠. 평생 재소자 교화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은 50여 년 제가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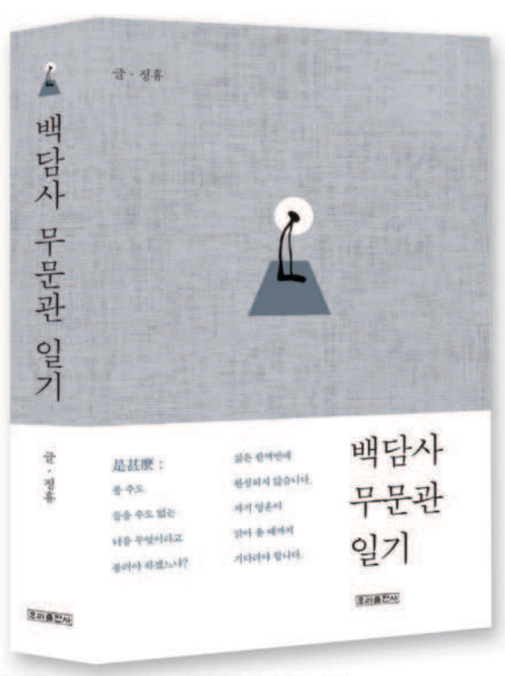
삼중 스님은 50여 년 동안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교화설법을 해왔으며, 300여 명의 사형수를 만나 그들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스님은 경전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그들에게서 배우고, 선방에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구치소에서 깨닫는다고 했다.

“일체 유위법이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은 관을 지으라.”

스님은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면 사형수에게 〈금강경〉의 위 구절을 들려줬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선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사형수들의 ‘오늘’은 힘겨운 시간일 것이다. 한 순간의 어긋난 마음으로 죄를 지었지만 누구보다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들이 있기에 스님은 힘겨운 다리와 어두운 귀를 이끌고 오늘도 그들을 만나러 간다.

안성 영평사=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是甚麽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너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죽음 언제든 온다는 걸 알면
마음 비우고 살아갈 수 있어”
“집착 내려놓을 때 내적 성숙 가능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 돌아보길”

백담사 무문관 일기

글 · 정휴/신국판 양장/16,000원

그는 몸과 마음에서 無碍의 자유를 풀어내는 雲水이다.
衲僧과는 평생 把手共行한 寒山 같은 도우이다.
일찍이 禪敎를 全歸掌握한 宗門의 聖骨이나 기꺼이 범추를 박대하지 않으니 그 法衣는 강호를 덮고 남았다.
陋巷에 머물 때는 승단이 불조혜명의 구심처가 되도록 온몸을 던지고 蘭若에 들어서는 생사의 關頭에서 任運自在를 보여준 法主가 바로 禪師다.
거년에는 설악산 無門關에서 保任하더니 門 없는 門을 부수고 나와서는 드디어 천하에 한 물건을 내놓았다. 그 末後句는 一隻眼을 얻은 작가 宗師라 할지라도 혀를 빼물게 하는 것이니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납승은 더 이상 보아야 할 눈도 말해야 할 입도 없다. 왜 그런지는 책을 펴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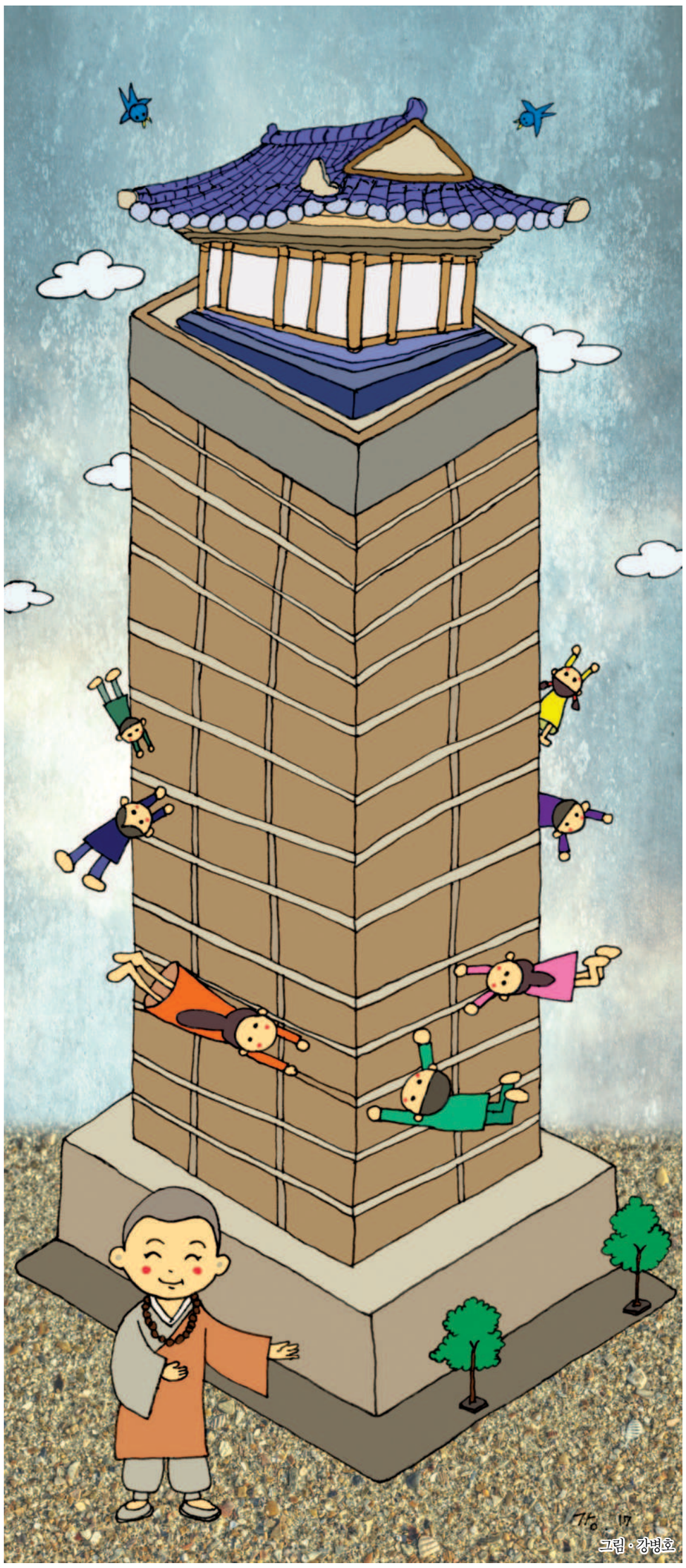
–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 조실 무산오현 –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치열하고 표현하는 一言一句가
古劍처럼 빛났다.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하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2 전화 (02)313-5047


그림 · 강병호

재가 참여=불교 'Version UP'

[프롤로그] 불교 중흥의 시작, 사찰경영 3.0

사찰경영! 무소유 수행처인 '사찰'과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의 합성어로 그 의미상 조화를 이루기 힘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근래 불교계의 종단과 사찰은 경영에 무척이나 관심을 많이 갖는다. 아마도 그 이면에 종단과 사찰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욕망을 여의고자 하는 승가가 왜 한국불교에서는 이윤 창출을 위한 경영에 치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부처님 법에 여법(如法)한지 그렇지 않다면 여법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불교의 사원운영과 오늘날 한국불교의 사찰경영에 대한 특징과 차이를 고찰한 후 그 미래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초기불교의 사원운영을 Version 1.0, 오늘날 한국불교의 사찰경영을 Version 2.0, 그리고 사찰경영의 미래방향을 Version 3.0으로 정의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사찰경영 1.0'은 부처님 재세 시 그리고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의 유훈을 따라 재가신도가 사찰경영을 전담함으로써 출가승려가 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올곧게 수행에만 정진하라고 가르치셨다. 출가승려의 본분사는 수행인 것이다. 그리고 사찰경영을 비롯한 이외의 세속적 행위는 재가신도의 역할이었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승가에서는 수행승을 이판(理判)으로 경영승을 사판(事判)으로 구분하지만, 초기불교와 남방불교에서 출가승려는 오로지 수행이 소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신의 장례마저도 재가신도들이 전담하여 치르도록 하고 출가제자들은 멈추지 말고 수행하라는 유훈(遺訓)을 하신 것이다.

부처님 재세 시, 출가승려들이 세속적 일을 직접 처리함으로 인하여 계율에 저촉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재가신도가 그와 같은 일들을 대신함으로써 사회의 비난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전담하는 재가신도를 정인(淨人)이라고 지칭하며, 남방불교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승가의 풍속이다. 정인은 구족계를 받지 않은 불자로 일상에서 계율에 의하여 출가승려에게 제한된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는 존재이다. 그는 출가승려를 대신하여 금전도 관리하고, 조리도 하며, 농사도 지었다. 즉 정인은 출가승려가 계율을 어기지 않도록 하면서 사찰경영을 전담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재가신도가 사찰운영을 전담하고 출가승려는 수행에만 전념하는 '사찰경영 1.0'은 승가의 생활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사찰경영 즉 '사찰경영 2.0'이 수익창출에 초점을 두는 것과는 다르다. 엄밀히 말하면, '사찰경영 1.0'의 사찰경영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찰운영 혹은 사찰관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사찰경영 2.0'은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현존하고 있는 현상으로 출가승려가 사찰경영의 주체가 되어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승가는 사찰의 경영을 위하여 영리활동을 주체적 · 직접적으로 수행한다. 승가에 대한 보시문화가 일반화되지 않은 한국의 사회 상황에서 사찰의 운영비용을 승려가 직접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사찰은 국수나 연잎밥 등을 파는 음식점과 찻집, 소금이나 된장 등 식품류, 건강보조제 성격의 약품류, 그리고 기념용품점이나 불교용품점 운영 등 수익사업을 승가가 주체가 되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출가승려의 영리 행위가 여법하지 못함은 분명하다. 부처님은 "출가자는 사고파는 행위로부터 멀리 떠난다"라고 하였다. 또한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제20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매하는 비구는 니살기바일제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승려들에게 장사를 금하고 있는 구절들이다.

V1.0 부처님 유훈 따른 경영
출가자 수행, 재가자 경영 전담

V2.0 승려 경영 주체로 부각
영리행위 비법 논란 초래

V3.0 사부대중 분담 참여경영
재가자 주인의식 향상이 발전 견인

현재와 같이 영리적 경제활동에 탐착한다면, 한국불교교단에는 수행승(修行僧)이 아닌 직업승(職業僧)이 넘쳐날 수 있다.

출가승려의 사찰경영이 비록 사찰의 실존(實存)을 위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비법(非法)이라면 안주하지 말고 여법(如法)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재가신도가 사찰경영의 주체로서 출가승려를 외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승려가 수행자로서, 그리고 비구로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은 사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다.

'사찰경영 3.0'은 미래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으로 출가승려과 재가신도, 즉 사부대중이 여법한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 공동으로 사찰경영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사찰경영 1.0'이 출가승려가 제외된 재가신도의 사찰경영인 반면 '사찰경영 2.0'이 재가신도가 배제된 출가승려의 사찰경영이라면, '사찰경영 3.0'은 출가승려와 재가신도가 역할을 여법하게 분담하는 사부대중의 공동경영인 것이다.

한국불교에서 오늘날 출가승려가 사찰경영에 직접 종사하게 된 배경에는 기복불교가 자리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재가신도는 출가승려가 온전히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외호(外護), 즉 그들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주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불교에서는 승가에 대한 보시가 등값, 기도비, 제비(祭費) 등 기복행위에 대한 대가성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승가의 외호를 위한 보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찰의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법한 보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복불교의 탈피가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불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처님 오신 날' 마저도 사찰에 참배를 하지 않는 수도 적지 않다. 대다수의 불자들에게 있어서 사찰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르거나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장소인 것이다. 그렇다보니 사찰 일에 동참을 권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회피하고는 한다. 재가신도에게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재가신도 스스로 사찰을 기복을 위한 장소로 혹은 스님들만의 거주처로 여기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사부대중이 함께 가꿔가야 할 도량으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 같은 재가신도의 인식전환이 곧 그들의 주인의식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사찰이 사부대중의 공동체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출가승려가 재가신도를 불교교단 공동체의 평등한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출가승려와 재가신도의 관계는 신행적 관점에서는 출가가 재가에 대하여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사찰경영적 관점에서 양자는 순치(脣齒)의 보완적 관계이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 출가승려와 재가신도의 관계는 사찰경영적 관점에서 조차도 상당부분 수직적 · 종속적 관계이다. 신행적 위치가 경영적 위치에 그대로 고착화된 것이다. 출가승려가 자신을 성직자가 아닌 수행자로 자각할 수 있을 때 한국불교 내 출가와 재가 간 비불교적인 바라문적 신분질서가 사라지고 출가가 재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찰경영 3.0'은 재가신도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출가승려는 재가신도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면 실현가능해진다. 주인의식을 가진 재가신도가 사찰경영의 주체로서 수익 창출 업무를 담당하고, 재가신도를 사찰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한 출가승려는 사찰경영을 감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사찰경영의 일선업무는 재가신도가, 그에 대한 감사는 출가승려가 담당하는 분담방식이다. 이는 '사찰경영 1.0'의 정인 제도를 한국불교의 상황에 부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사찰경영 3.0'은 수익창출을 위한 사찰의 경영행위라는 점에서 '사찰경영 1.0'과 차이가 있으며, 사찰경영의 주체가 재가신도가 된다는 점에서는 '사찰경영 2.0'과 차이가 있다. 즉 '사찰경영 3.0'은 재가신도가 사찰경영의 전담자가 되어 수익을 창출하여 출가승려의 수행과 생활을 외호하는 방식이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조계종 원로의원 · 회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원 장	덕민	부주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현학
재 무	성심	포 교	성요
호 법	성담	사 서	정빈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불국사 템플스테이 ☎ 054)746-0983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성림 어린이집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 유치원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사찰운영위 설치 사찰 30%… 공허한 대중공의

사찰경영 실태와 과제는?

우리가 흔히 '절'이라고 지칭하는 사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 계승하고 널리 펴기 위한 도량이다. 수행과 교화, 전법을 통해 불교를 담보하는 기반인 곳이다. 가정이 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이듯, 사찰은 불교 중흥의 토대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찰에 경영개념이 보급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더 이상 사찰 살림에 주먹구구식 경영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현대적 개념의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사람은 2005년 52.9%(2452만명)에서 2015년 43.9%(2155만명)으로 줄었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는 15.5%(761만명)으로 무려 300여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남아있는 신도들의 신행활동도 미약하다. 2015년 불교사회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사회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자 대부분인 70.3%가 1년에 1~6회 법회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 법회에 참여하는 불자는 1.9%에 불과했다. 법회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 불교는 신도 상당수가 종교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실상 부처님오신날 등 1년에 한두 차례 법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들 또한 12.3%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불교 신행활동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에 비해 적었다. 심신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를 묻는 질문에 개신교 신자가 37.5%의 높은 비율로 경험이 있음을 밝혔지만 불자는 13.9%밖에 되지 않았다.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개신교 신자는 65.1%로 높았지만 불자는 34.3%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찬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사실상 신도들의 불교, 그리고 사찰에서의 신행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사찰이라는 불교신행 공간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현재 사찰 수입의 대부분은 불공 및 불전 수입, 시주금 위주로 구성돼 있다. 조계종이 공개한 직영사찰 4곳의 수입 분포를 살펴봐도 신도들의 기부, 보시가 재정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계종이 공개한 2015년과 2016년 4대 직영사찰의 수입 현황을 합산해보면 조계사의 경우 276억 여원 중 50%인 136억 여원이 불공 수입이었으며, 법요 수입은 24.6%인 68억 여원 수준이었다. 서울 봉은사는 2년간 합산 수입 349억 여원 중 59.5%%인 208억 여원이 불공 수입, 13.7%인 48억 여원이 법요 수입이었다. 일반 수입은 22억 여원, 교육 수입은 8억 여원에 불과했다.

사찰경영 개념 보급 필요

사찰 재정 50% 불공 수입

기도편중에 사찰공간도 편중

지역의 경우 보문사는 78억 여원 수입 중 불공 수입이 52.5%인 41억 여원, 법요 수입이 3억 여원이었다. 이밖에 문화재 구역 입장료 수입이 6억 4000만원으로 8.2%였다.

경산 선본사는 143억 여원의 수입 중 불공 수입이 60%인 86억 원, 법요 수입이 5.6%인 8억 여원이었다.

기도와 도심사찰임을 막론하고 불공 수입이 모두 50%를 넘었다. 이처럼 재정의 불공 수입 편중화가 강한 상태에서 사찰은 신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찰 공간이 기도, 신행 중심 공간으로 구성돼 문화생활 등 다양한 신도 서비스가 열악한 실정이다. 신도들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심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수호 덕성여대 교수는 "신도들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사회적인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사찰, 더 나아가 불교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불교 포교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기복과 사회참여가 결합한 새로운 불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포교에 성공한 사찰의 대부분은 신도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주지 스님이나 소임자 스님들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경청하고, 조언하며 의사결정을 한다.

사찰운영위 구성 강제 못해

신도 · 대중 참여 기회 적어

"문화체험, 가치공유 확대"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사찰은 신도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사찰운영의 신도참여를 보여줄 수 있는 사찰운영위원회 실태를 보면 아직까지 사찰 전반에 주지 스님 위주, 혹은 일부 스님과 신도 위주의 운영이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2012년 개정된 사찰운영위원회법에 따르면 사찰운영위원회는 스님과 신도 5명이상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주지 스님을 비롯해 상주 교역직 스님과 신도회 임원 및 3년 이상 재적신도, 교무금 납부자 등으로 구성되며 사찰 예결산의 심의 의결, 불사 수익사업 신청 및 부동산 처분 신청, 사무 및 재무감사 등을 할 수 있다.

사찰 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신도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부에 따르면 사찰운영위원회를 조직한 사찰은 900여 개에 불과했다.

정창훈 조계종 총무부 사찰교무팀장은 "정확한 숫자를 밝힌 순 없지만 2016년 종정감사 종책질의 답변 차 파악한 결과 3000여 개 사찰 중 사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 900여개인 것으로 확인했다. 약 30% 수준이다. 종법에는 사찰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제재조항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오늘날 한국불교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재가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종단 내 재가자는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육바라밀을 실천하는데 출재가를 구분하지 않듯이 출가와 재가의 기능과 역할 역시 분리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남진 NGO리서치연구소 소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출가와 재가의 역할 문제는 대체로 현재 종단의 구조를 고정시켜 출가자의 역할 일부를 재가자에게 부여하고, 불자 전문인을 활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틀, 보는 틀을 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사찰경영 과정에서 재가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사찰경영을 현대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사찰은 불교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찰음식과 같이 불교문화와 관련된 경영활동, 호스피스병원이나 불교상담센터와 같이 마음, 지혜와 관련된 경영활동 등에 전문적인 재가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돈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불교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불교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힘을 모은다면 사찰경영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큰스님
주 지 경 선

총무국장 보 운
범어사 신도회 합장

매월초하루 큰스님 모시는 화엄대법회
- 화엄천일기도 -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


불광사 신축법당을 상량하는 불광법회 회원들의 모습.


한국불교대학 졸업식 모습. 매년 300여 명이 졸업하는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소통 · 문화 가치공유 新경영 키워드

새로운 사찰경영 선보이는 사찰들

불교계에서 사찰경영 3.0에 맞게 운영하는 곳은 어디일까? 신도를 사찰로 이끌고, 또 참여를 유발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사찰경영 분야는 아직 미개척 분야다. 사찰의 각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사찰경영 방법이 개발될 때 한국불교는 또 다른 진일보를 맞게 될 것이다.

노덕현 기자

신도 소통으로 사찰운영

불광사 불광법회

1974년 서울 종로서 대각회를 중심으로 광덕 스님은 불광법회를 열었다. 선교에 모두 통달한 광덕 스님은 지성적인 불자를 모아 조직화 했으며, 경전 공부 내용을 설법하고 법문한 내용을 정리해 〈불광〉 잡지를 발행해 문서포교에도 앞장섰다. 1982년 잠실에 불광사를 준공한 후 불광유치원을 건립하고 사회기여에도 나섰다. 이후 불광법회는 일반법회, 호법법회, 청년법회, 학생법회, 특별법회 등으로 분화했으며, 45개 구법회를 중심으로 하는 219개 법등 조직이 만들어졌다. 불광법회의 특징은 구체적인 수행요목을 제시하고, 법회 외 수행과 전법, 행사, 교육의 체계로 신도를 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불광법회 회원이 되려면 불교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구 법회나 법등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 개발을 통해 신도 커뮤니티도 형성돼 있다.

사찰에 소극장이! 문화포교 산실

구룡사 · 여래사

구룡사는 정우 스님에 의해 1985년 종로 가회동에서 포교를 시작했으며, 양재동 천막법당과 가건물법당의 어려움을 딛고 대형사찰로 성장했다. 10만 명이 넘는 신도와 국내외 15개 지원, 해외 4개 지원 외 수많은 신도가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구룡사는 사찰을 단순한 신행공간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극단 '신시'를 창단하고, 300석 규모의 지하 소극장까지 마련했다. 일산 여래사 지하 1층에도 215석 규모의 소극장 신시 시어터가 마련되어 있다. 이 소극장은 여래사 신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여래사는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는 주민극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포교는 신도 참여로 이어진다. 배우들과 함께 흥을 내며 직접 연극에 참여하기도 한다. 구룡사에서는 노래방 법회, 결혼상담실 운영 등 문화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구룡사 지하1층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문화 공연.

'지성화 교육' 통한 참여 유도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1992년 우학 스님에 의해 창건돼 대구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도심 포교당이 됐다.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불교교양대학인 '한국불교대학'과 조계종 사찰인 '대관음사'로 구성돼 있다. 대구큰절은 2000평 7층 규모의 사찰에 재적신도가 8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그 시작은 미미했다. 1992년 5월 15일 대구 남구청 앞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50만원 사글세 건물에서 한국불교대학 1기생 120명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신도교육에 힘을 썼으며 이후 배출한 동문들을 신도조직으로 연계했다. 대관음사는 1년의 기본 수료과정, 2년의 대학과정, 4년의 대학원과정, 그리고 전문 교육부를 두어 전법사, 교법사 삼장법사 등의 신도품계를 부여하고 신도조직을 체계화시키고 있다.

선농일치 불교가치 담아 지역 공헌

구례 화엄사

구례 화엄사는 '선농일치'란 불교 가치를 사찰 대중이 지역민들과 함께 실현하고 있다. 1990년대 1만 6000평에 달하는 토지에서 스님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농사를 지었지만 지주와 세작농 관계로 굳어지며 관계가 경색됐다.

2005년부터 화엄사는 농민들과 관계 개선에 나서 스님들이 직접 모내기 추수를 함께 하기 시작했다. 사찰 신도도 물론 동참했으며, 경내에서는 농민들이 산나물과 오이 등 특산물 판매 매장을 차릴 수 있게 했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해 쌀농사 생산량은 줄었지만 지역 농민들의 소득은 증대됐다. 화엄사는 여기서 더나가 2007년부터 농지 2000평을 빌려주고 받는 쌀 100가마를 통일쌀 이름으로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남북관계 단절로 직접 지원은 못하고 있다. 화엄사는 농민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찰경영을 이끌고 있는 곳이다.


화엄사 스님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고 있다.

中 · 日의 사찰 경영 변화는?

중국, 유수 대학에 사찰경영 MBA

동아시아 사찰경영 변화는 한국 사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국 상하이 자오퉁 대학은 2005년 사찰경영과 종교 상품 판촉, 회계와 경제학, 기업전략을 가르치는 불교 사찰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개설했다.

중국의 주요 수입원은 향전으로 특정 사찰의 경우 일반인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초고가의 향전을 판매



해 상업화란 지탄을 받고 있다. 현대적인 경영기법 도입이 자칫 불교 내 자본주의 사상만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 문화회관으로 법당 대체

일본에서도 마츠모토 쇼우케이와 경영 컨설턴트 이데이츠로가 2012년 미래 주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6기인 올해만 150명에 가까운 스님들이 수강하고 있다. 특히 일본 불교계는 신도 중심으로 사찰을 개혁해 커피숍, 공연장, 특산품 매장 등 다양한 공간을 배치한 신도회관을 만들고 신도 공간을 확대했다.

일본 SGI는 비법 정법 여부를 떠나 눈여겨 볼 만한 점이 많다. 우리나



라의 경우 교당을 문화회관으로 부르며 지역사회의 회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365개 교당과 신도 150여만 명을 확보하고 있다.

자제공덕회, 신도 봉사조직 활용

1966년 대만 증엄 스님에 의해 창립된 자제공덕회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 33개 국가 150여 개 지부, 500만 명의 회원과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국제적인 구호단체다. 자제공덕회를 이끄는 조직은 여러체계로 나뉘어 있는데 자우회, 자제위원, 자성대원, 자성의덕회 등이다. 그 중 자제위원과 자성대원은 조계종 포교사와 비슷한 직책으로 현재 총 4만 3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부, 직장인



들이지만 대외협력부문을 분담하며, 상담, 미디어, 의료기술 등 전문기술을 공덕회에서 배워 활동한다. 특히 상호협력 시스템이 구성돼있다.

불광산사, 문화 콘텐츠 선도

불광산사는 대만 남부 가오슝션(高雄縣) 다슈샹(大樹鄕)에 소재하고 있는 대만의 대표적 사찰이다. 불광산사는 설립 때부터 염불회와 청년회, 아동주말학교, 홍법단 등을 조직하여 수계와 승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또 신도들과 불교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템플스테이와 같은 형식이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대행 중봉 성파
주 지 향전 영배

유나 보장 영일 총무국장 도문 포교국장 선림
율주 중산 혜남 기획국장 석운 호법국장 동수
강주 영은 현진 교무국장 도국 원주 성신
율원장 우설 덕문 재무국장 무문
박물관장 지준 사회국장 인경

총림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무너진 인간경영 회복… 공동체에 길 있다

현재 한국불교는 위기에 처해있다. 출가자 감소와 함께 불자 감소 국면까지 겹쳐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조계종 포교원이 신행혁신을 기치로 다양한 종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선 사찰이 처한 일종의 경영난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 23주년을 맞아 사찰이 처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찰의 경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는 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원묵 스님, 조기룡 동국대 교수, 하춘생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 주임교수가 참여했으며, 진행은 본지 김주일 편집국장이 맡았다.

정리=노덕현 · 박진형 기자



김주일 국장 : 사찰경영이란 개념이 도입된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찰경영이 세속적인 개념이라며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객서비스, 문화공간 제공 등 경영 요소는 이미 사찰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찰경영 개념이 확산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춘생 교수 : 사찰은 수행공간으로서 무소유를 상징하고, 경영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체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과 '경영'의 합성은 친숙한 단어가 아니거니와, 마치 세속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찰도 대중공간으로서 사부대중이 삶의 지표를 성취해가는 기능을 부여받은 곳인 만큼, 초기불교 당시부터 대중공동체를 형성하며 경영시스템을 작동해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기업이나 사업 따위와 꼭 결부하지 않더라도,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 나간다는 '경영'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사찰공간에서의 일상 자체가 경영과 무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불교는 그러한 대중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오늘날의 경영학적 마인드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조기룡 교수 : '사찰 경영'이란 말에서 거부감이 드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보통 경영은 영리행위로 여겨지는데 불법에 맞는가 하는 고민이 발생합니다. 사찰경영이 여법한 행위가 되려면 재가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찰경영의 일선에 스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스님들이 사찰 경영보다 수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재가자 중심의 사찰경영으로 생성된 재화, 이윤이 존재한다면 승가 외호에 우선적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쓰이기 위한 출가자들의 감독과 감시, 감사도 필요합니다. 사찰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을 통한 재원 확보보다, 이런 경영 방식이 부처님 가르침과 맞는지 입니다.

하춘생 교수 : 맞습니다. 한국불교 실상을 보면 교회나 성당 등의 내면적 기능과 사찰의 기능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방식의 신앙체계로서는 불교가 결코 우위에 설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찰을 통할하는 스님들이 CEO로서의 인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 회장인 마윈은 진정한 CEO는 'Customer, Employee, Owner'라고 합니다. 고객과 종업원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CEO란 것입니다. 신도대중과 사중대중의 입장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부대중이 공히 함께 하는 참정활동과 단위 사찰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묵 스님 : 현재 사찰 신도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면 좋을지 고민하지만 사실 이런 고민조차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찰이 갖고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불교계는 큰 사찰이 아니면 두 세분의 스님들, 혹은 한분의 스님들이 거주하는 사찰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찰이 지닌 자원을 조직화해서 쓰지 못합니다. 하루 살아내기 급급한 실정이죠.

한국불교계가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열심히 절을 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성적표는 300만 불자수 감소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열심히 할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방향이 맞지 않으면 열심히 할수록 나빠집니다. 이제 방향을 한번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사찰이 불사를 많이 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자본주의 경영, 경쟁 벗어나야
종교서비스 전락시 도태 예상
가치 중심의 기회 제공해야
원력 지닌 재가자 적극 활용
문화, 사회활동 영역 범주 확산

김주일 국장 : 재원 마련만 보아도 불교계는 기도비, 각종 제사 비용으로 대부분을 충당하는데, 다변화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묵 스님 : 현재 기도 등 사찰 수입의 성격을 보면 일종의 '종교 서비스' 대가로 사찰 측이 얻는다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기도와 보시는 별개의 행위지만 하나로 합쳐지며 복을 돈 주고 산다는 일종의 서비스 구매행위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각 사찰의 스님들은 사찰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어떤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도들이 보시금을 내게 할 지를 고민합니다.

스님들이 매우 초라해지는 것이지요. 큰 사찰이나 작은 사찰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사찰 운영을 담당하는 스님들은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원 마련의 다변화는 시급합니다. 제가 있는 선덕사의 경우에는 삼보공덕기금이라고 해서 매달 CMS로 보시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이 기금으로 사찰과 신도회 운영, 또 시민사회단체 운영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국장 : CMS를 통한 기금 모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도가 있으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체 불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이 유효할까요?

원묵 스님 : 기금 모연은 이를 내는 이들이 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뤄집니다. 활동에 대한 평가 개념이 강하고, 신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존 방식보다는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조기룡 교수 : 일반사회로의 활동을 통한 재원을 마련한 경우는 또 있습니다. 당진 정토사의 경우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이다보니 일자리가 없어 연밭을 일구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당진시 지원을 받고 있지요. 사찰 경영에도 도움이 돼 작은 사찰이지만 전국규모의 청소년 축제도 열고 있습니다.

원묵 스님 : 조계종 한 선원을 예로 들면 이 선원은 기도나 재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보시로 운영되고 있지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수행체계를 가르치며 신도들이 종교체험을 하고 아낌없이 기부합니다.

불교계가 처한 문제는 신도들의 종교적 체험, 즉 감동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서 나온 재화를 주고 종교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감동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종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언제든지 옮겨 갈 수 있지요. 사람들이 사찰에 오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힘들어서 의지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작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하춘생 교수 : 우리가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방식은 결국 부처님 '담마'에 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파하신 가르침의 구조를 현실화 하지 못하면 개신교나 가톨릭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형태로 나아갈 것이고 결국은 뒤쳐질 것입니다.

조기룡 교수 : 다른 패널 분들 말씀처럼 보다 근본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사찰경영이든, 포교든 부처님 가르침에서 돌아보면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도를 모으자'는 개념, 더 나아가 '사찰 재정에 도움이 되는 신도를 모으자'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수행공동체로서의 사찰, 수행공동체 회복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주일 국장 : 그렇다면 사찰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할 까요? 어떤 운영방침을 가져야 할까요?

하춘생 교수 : 현재 한국사회에서 종교 전체가 위기입니다. 불교 뿐만이 아니고 개신교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들의 범계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신도들의 냉소적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일련종에서 출발한 재가불자 중심의 신흥불교 운동단체인 창가학회(SGI)의 역동성과 다변화적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전 세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평생교육원
한나래지역아동센터
HANNARAE COMMUNITY CHILD CENTER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차별화된 강사진들로 이루어진
힐링과 배움의 평생문화교육

주지 深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 33번길 202 (두구동)
www.busanbuddhism.net
전화 051)508-0345 / 팩스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마음 편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종호

사부대중 합장



재가자 참여형 사찰경영은 시대 요구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돈벌이 경영 개념 탈피"



원묵 스님
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지역과 공동체 구성"



하춘생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부처님 가르침 근간해야"

계 180여개 회원국을 두고 있거니와,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현재 전국 365개 교당(문화회관)과 신도 150여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들불 같은 조직입니다. 그들은 거시적 이념으로써 평화 · 문화 · 교육 등 3대 운동을 전개하며 무서운 속도로 내부사회를 넘어 국가와 인류세계에까지 그 역량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기룡 교수 : 한국불교계가 처한 위기 상황은 출 · 재가 모두의 책임입니다. 재가자도 스님 탓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재가자들이 사찰에 주인의식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복만 와서 들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사찰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자의 입장에서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는 부처님이 그렇게 없애고자 했던 바라문적 계급질서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신행활동에서의 상하관계가 사찰운영 전반의 상하관계로 고착된 것입니다.

재가자가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출가자의 입장에서 사찰 운영 측면은 사부대중의 평등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원묵 스님 : 사찰에 돈이 많으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쫓으면 불교가 아니게 됩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을 만들어서 포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교 속에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써서 포교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신심과 원력으로 결합할 때 이것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사찰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조직은 봉사조직입니다. 자기 시간을 내서 하는 활동임에도 그 속에서 얻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춘생 교수 : 가정이 사회나 국가의 근간이라고 한다면, 단위사찰은 불교교단의 토대입니다. 교육과 포교의 확장, 사찰의 장점인 문화적 요소의 극대화,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 유 · 무형의 자산 활용 등 다양한 성과를 통한 단위사찰의 위상정립은, 그래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전제요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원묵 스님 : 사찰을 개방하라는 말을 사찰에서 들으면 '우리 절 문 안 닫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찰의 공간은 현재 기도, 신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도, 신행에는 개방적이어도, 다른 문화활동에는 배타적입니다.

요즘에는 기도나 신행활동 외에도 산책, 명상 등을 위해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찰은 이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공간 구성입니다.

사람들이 사찰을 요하는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찰도 그 사람들에 맞춰서 같이 변화해 줘야 합니다. 사찰경영 3.0도 결국 수요자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신도도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민주적으로 함께 고민하여 변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찰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과 공동체와 함께 살아 있는 것이기에 마을이,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조기룡 교수 : 사찰은 이웃종교가 갖지 못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당' 의 존재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데 한발 앞서 있습니다. 대웅전 앞 마당을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김주일 국장 : 사찰경영에서는 대형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종교계에서 경영

신심증장, 수행공동체로
재원으로 '신도' 보지 말아야
기도비 외 공익사업, 기금 모연
종교적 감동이 사찰경영 원동력
공동체 의식 및 참여 진작

능력이 뛰어난 곳은 일찍이 대형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불교계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재, 중소형 사찰의 경영전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기룡 교수 : 이 현상은 종교 시장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종교가 물건이 선택되듯이 선택되는 현상입니다. 다행인 것은 개신교계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불교계는 아직까지는 심각하진 않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불교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계종 승가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가교육 과정을 보면 마치 스님들을 수행자가 아닌 기능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면에는 경쟁시스템이 있습니다. 수행자로서의 공동체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하춘생 교수 : 현재 사찰경영을 총괄하는 스님들의 의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인천의 한 대형교회에서 신도들을 작은 교회로 인도해줘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불교계는 특히 유동적 신도가 많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도심이든 산중지역이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묵 스님 : 사찰 기능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도시야 여러 절들이 활동해도 괜찮지만 산중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유기적으로 산중 작은 사찰을 도심사찰의 수련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듯합니다.

앞서 승가의 경쟁 인식은 출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합니다. 승가 내에도 자본주의, 시장주의 개념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말사도 큰 사찰은 수말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말사보다 재정 규모가 큰 곳을 칭합니다. 말사에서 수말사, 이어 본사로 사찰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의식도 이에 맞춰가는 듯합니다. 큰 사찰에 있으면 큰 스님, 작은 사찰에 있으면 작은 스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가 내에서도 성공, 성장 등이 알게 모르게 평가받고, 무리한 불사, 사찰 대형화의 원인이 됩니다. 불교적 가치관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신심을 증장하는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주일 국장 :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도 사찰경영도 전문가 계층이 있어야 하며, 보다 전문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이 되었든, 재가자가 되었든, 사찰의 전문적인 경영능력 확보를 위해 종단차원 혹은 범불교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들은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까요?

조기룡 교수 : 사찰경영에 대한 전문적 능력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아니라 지향점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찰경영은 삼보공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전법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찰경영이다.' 이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방법론으로 가야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너무 기술을 가르치고 기술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춘생 교수 : 우리의 전통적 대중들의 모습을 보면 저마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방에 가면 자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수행자로서 예의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맡은 바 입지를 다져오는 한 단면입니다.

결국은 회복입니다. 새로운 것을 구축하거나 다른 조직의 경영방식을 차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방식의 복원이지요. 공동체 생활이 무너진 데서 사라져버린 인간경영, 조직경영의 전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동체 생활로 돌아가는 일이 급선무이겠습니다.

원묵 스님 : 위기라는 것을 심각하게 자각하면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앞서 말하신 회복이겠지요. 우리는 예전처럼 과거를 회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지향해야 할 과거를 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사부대중 공동체로 돌아가 이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찰경영 3.0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행인 점은 불교계가 처한 위기상황이 사부대중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공사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사부대중 공동체로의 방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가는 승가로 빛날 수 있도록 잘 가꿔나가며 재가불자도 재가불자의 역할이 신심과 원력 속에서 꽃피우게 해야 하겠지요.

봉행 제2기

기장 茶문화 대학 졸업식 및 달빛 茶평화음악회
(종교인과 문화인이 하나 되어)

(사)향기로운 문화동행 기장 차문화 대학(학장 보혜)에서는 **'제2기 기장 차문화 대학 졸업식 및 달빛 차평화 음악회'** 를 아래의 내용으로 봉행합니다. 바른 예절과 인성을 근본으로 하는 茶문화 보급 운동을 주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정여 큰스님, 정오스님(장안사 주지), 김계준 신부 등 6대 종교인이 참석하는 종교와 문화가 하나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래

- 일 시 : 2017년 10월 15일 오후 6시
- 장 소 : 청량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 문 의 : 051-723-1851
- 식 순 : 제1부 - 제2기 기장 차문화 대학 졸업식
  제2부 - 달빛 茶 평화 음악회, 향기로운 문화갤러리 개관식
- 음악회 내용
  - 관현악 3중주 : 바이올린 이윤진, 비올라 이현원, 첼로 장여정
  - 성 악 : 바리톤 박경훈
  - 시낭송 : 조원희 / 시조창 : 강재일 / 대금연주 : 박용섭

(사)향기로운 문화동행 기장 茶문화 대학
학장 보혜 합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財團法人 茗園文化財團
MYUNG WON CULTURAL FOUNDATION

(재)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은

- 한국차의 선구자 명원 김미희 선생의 뜻을 이어 전통다례예절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다례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차문화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의정 이사장은 대한민국옥관문화훈장을 수여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입니다.
- 우리 차와 예절의 생활화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전통다도예절지도자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명원문화재단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272 / 전화 02)730-7191~2
명원다례전수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07 / 전화 02)742-7190~2

화엄사상 및
진귀 수인(手印) 수행법 강좌

강좌안내

■ 3개월 과정 (총 10회 강좌/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개 강 일 : 2017년 12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 종 강 일 : 2018년 2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 강 사 : 진귀장자
- 장 소 : 깨달음산문 (대구시 소재)
- 수 강 생 : 33명 선착순 접수
- 수 강 료 : 별도문의
- 신청접수 : 1899-9532

※산문강의실이 좁은 관계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33분만 모십니다.

▣ 수인수행법 무료 공개강좌 안내

공개강좌 일시 :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이후 12월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3개월 유료강좌로 변경됩니다



깨달음산문 화엄세계회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⑳ 세친 보살

왕생극락이 5대 염불법에 들어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일심으로 시방세계에 광명을 널리 비추는 무애광여래(아미타불)께 귀의하옵고 안락국(극락정토)에 왕생하길 원하옵니다."
-〈왕생론(往生論)〉

초지보살로 왕생한 유식불교 개척자

지난 호에서 '대승불교의 아버지'이자 '제2의 석가'로 불린 용수보살이 초지보살로서 윤회를 벗어난 극락정토에 왕생했다는 기록을 살려본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유식(唯識: 오직 識만 존재한다)불교의 개창자로서 대승불교의 초석을 다진 세친보살(世親 또는 天親菩薩, 바수반두, Vasubandhu, 320-400년경) 역시 초지보살로서 왕생극락을 발원한 정토종의 중흥조임을 밝히고자 한다.

'천 부의 논주'로 불린 세친보살은 많은 대승의 논서를 지어 불승(佛乘)을 크게 천양한 한편, 정토삼부경의 하나인 〈무량수경〉을 높이 우러러 보아 '원생게(願生偈)'와 '논'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왕생론〉(원제는 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 정토론이라고도 함)이다. 인광 대사는 〈왕생론주〉 서문에서 이렇게 그를 찬탄하였다.

"세친보살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끝내 왕생할 수 있도록 오문수법(五門修法)을 보여주셔서, 예배 · 찬탄 · 작원(作願) · 관찰 · 회향의 법을 구현하셨습니다. 관찰문에서는 정토의 장엄 · 여래의 법력 · 보살의 공덕을 상세히 보여주셨습니다. 무릇 〈왕생론〉을 보고 듣는 사람은 모두 왕생을 발원할 것입니다."

쉽게 불퇴전지 증득하려면 정토왕생이 필수

유식불교의 대가인 세친보살이 〈왕생론〉을 통해 다섯 가지 염불수행법을 드러내며 밝히고자 했던 대의는 과연 무엇일까? 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자.

"저 안락(극락)세계를 관찰하여 아미타여래를 친견하고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함을 보인 것이다."(왕생론)

구도자가 생전에 불퇴전지(보살 7지이상)에 이르지 못한다면 몸을 바꾸면서 대부분 전생의 기억을 상실하고 퇴전하기 마련이므로, 일단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반드시 왕생극락을 발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신심을 낼 것인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오념문(五念門)을 닦아 행을 성취하면 마침내 안락국토에 태어나 저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할 것이다. 무엇이 오념문인가? 첫째 예배문이요, 둘째 찬탄문이요, 셋째 작원문이요, 넷째 관찰문이요, 다섯째 회향문이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신업(身業 · 몸)으로 아미타여래 · 응공 · 정변지께 예배하는 것은 저 국토에 태어나려는 뜻을 내는 까닭이다."

어떻게 찬탄하는가?

"구업(口業 · 입)으로 저 여래(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저 여래의 광명 · 지혜 · 덕상처럼, 저 명호의 뜻처럼 여실하게 수행하여 상응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사마타(止) · 위빠사나(觀) 함께 닦는 염불

어떻게 발원(作願)하는가?

"일심으로 전념하여 마침내 안락국토에 왕생하길, 마음으로 항상 발원하여 여실하게 사마타(止)를 수행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어떻게 관찰하는가?

"저 국토를 지혜로 관찰하고 정념(正念)으로 관하여 여실하게 위빠사나(觀)를 수행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저 국토를 관찰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저 불국토의 장엄공덕을 관찰하는 것이요, 둘째 아미타부처님의 장엄공덕을 관찰하는 것이요, 셋째 저 모든 보살들의 장엄공덕을 관찰하는 것이다."

마침내 어떻게 회향하는가?

"일체 고뇌하는 중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발원 · 회향을 우선으로 삼아 대비심을 성취하는 까닭이다."

정토왕생하여 성불하는 목표 확립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친보살의 〈왕생론〉이 후대의 정토문 건립에 끼친 공헌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왕생을 발원하고 신속히 성불하겠다는 수행자의 목표를 확립한 것이고, 둘째는 정토왕생의 다섯 가지 수행법을 오념문으로 제시한 것이다.

관찰문은 국토와 부처 · 보살 등 29가지 장엄을 관찰하여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작원문은 '발원'이며, 찬탄문은 칭명의 '행'이므로, 오념문은 '신(信) · 원(願) · 행(行)'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오념문을 축소하면 곧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하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념하는 '본원칭명(本願稱名)'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세친보살은 용수보살이 〈십주비바사론〉 '이행품'에서 설한 아미타불 본원칭명의 골수를 더욱 체계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행법을 곁들여 계승하였다. 목표상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대승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불퇴전을 얻는 것을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신속하게 성불하는 것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세친보살을 통해 정토법문은 일반적인 대승법문의 목표(발보리심)와 방법(육도만행)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발전하게 된 셈이다.

신속 성불의 목표 재확립
정토왕생 오념문 제시
법신염불 · 수행관 전해

'아비달마구사론' 저술하며 소승법 널리 펴

이렇듯, 정토종에서 차지하는 세친보살의 위상은 중흥조라고 칭해질 정도로 대단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그의 수행이력은 유식 법상종(法相宗)의 개창조이자, 대승불교의 확립자로 더 유명하다.

〈바수반두법사전(婆槃豆法師傳)〉에 따르면, 세친보살은 간다라의 장안국(페샤와르, 현 파키스탄령)에서 카우시카(Kauika)라는 성을 가진 바라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형은 유가유식(瑜伽唯識)의 개조인 무착(無着, Asanga)보살이었다. 세친보살은 어렸을 때는 바라문으로서 인도철학을 섭렵하고, 출가 후에는 다양한 부파의 사상들을 공부하여, 당시에 가장 큰 세력 중의 하나였던 설일체유부의 사상을 정리 및 비판하는 〈아비달마구사론〉을 저술하였다. 처음에는 소승법을 배워 대승법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설이 아니라고 비방까지 하였고, 그 후 아유사국(阿踰闍國)에 가서 절을 짓고 소승법을 널리 펴게 된다.


세친보살 진영

'대승 비불설' 주장하다 참회

그런데 세친보살의 맏형인 무착보살이 아우가 소승법을 익혀 대승경전을 비방한다는 말을 듣고는 악도(惡道)에 떨어질 그 과보를 근심한 나머지 사람을 아유사국으로 보내 아우에게 "내가 병세가 매우 심하니 급히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전했다.

세친보살이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즉시 장안국에 돌아와 병 문안(問安)을 드렸다. 형이 자기를 그처럼 염려해 주는 것에 무한한 고마움과 송구함을 느낀 세친보살은 형에게 사과를 드리고는 대승법을 해설해달라고 청했다. 무착보살이 간략히 대승법의 요의(了義)를 설명해주니, 세친보살이 즉시 대승의 종지를 깨달아 소승법보다 훨씬 수승한 법문임을 알게 되었다.

세친보살은 대승법을 비방한 죄가 극심함을 알고는 "전일에 이 혀로써 대승법을 비방했으니, 이 혀를 칼로 끊어 참회하면 그 죄업이 소멸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무착보살은 이렇게 방편을 일러주었다. "너의 그 죄업은 혀를 천 번을 끊는다 해도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니라. 네가 만일 대승을 비방했던 그 혀로써 이제부터는 대승법을 찬탄하게 되면 그 죄업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유식삼십송' 등 대 · 소승론 천 부 저술

이로부터 세친보살은 〈유식삼십송〉 〈유식이십론〉 〈대승백법명문론〉 등 많은 대승론을 지어 그 부수가 무려 500부(部)에 달했다. 그 전에 소승론을 지은 것을 합치면 1,000부에 가까운 방대한 논을 지어 세상 사람들이 천부론주(千部論主)라고 불러 찬탄했을 정도다.

세친보살은 유식을 닦는 요가(瑜伽)수행자이자 대승 경론을 강의하고 저술하는 논사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당신의 주된 수행법은 염불이었으며 일단 윤회계를 벗어난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극락정토에 화생하는 구도자들은 삼악도(三惡道)가 없는 수승한 공부환경에서 누구나 불퇴전지 보살로서 5신통을 구족하며 아미타부처님 법문을 듣고 빨리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성불의 수기(授記, 예언)를 받기 때문이다.

세친보살이 대승경전을 두루 살펴 본 후 정토법문에서 크게 발심이 되어 극락세계를 극구(極口) 찬탄하고는 그곳에 왕생하기를 지극히 간절하게 발원해 〈왕생론〉을 찬술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는 일생을 아유사국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정토왕생에 대한 발원을 권하셨으며, 80세를 일기로 서방정토로 왕생하셨다.

대승의 조사들이 선택한 가장 쉬운 성불법

이와 같이 대승법에 밝은 조사스님 가운데 왕생발원을 하지 않은 분은 거의 드물다. '제2의 석가'로 불린 용수보살이 〈십주비바사론〉과 〈지도론〉 등 정토에 관한 가르침과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정토예찬문 등을 저술하였고, 대승불교의 선구자인 마명보살 역시 〈기신론〉에서 정토에 관한 가르침을 써 놓으셨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정토법이란 대승불교의 귀추(歸趨)가 되는 법문이라 할 수 있으며, 극락세계란 정토 중에도 가장 훌륭한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친보살의 염불관은 유식사상의 대가답게 "법신(法身)과 상응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는 법신염불의 성격을 띠면서도, 용수보살의 뒤를 이어 가장 쉽고 빨리 윤회를 벗어나는 길(易行道)을 제시하였다.

즉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여 정토에 왕생하는 가장 빠른 길, 순풍에 배를 타듯이 성불을 이루는 가장 손쉬운 길, 그것이 바로 염불수행임을 확고히 한 것이다.

오늘날, 중국과 대만, 일본 등 대승불교권에서 정토법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에서는 유독 정토법문이 홀대를 받고 있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수승한 방편인 염불법이 살아나야 불자들의 신심도 살아나고 선종도, 한국불교도 살아날 수 있음을 자각하고 각 종단에서는 염불수행의 대중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10·27법난 제37주년 기념법회

지난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이 전국 5천여 개 사찰을 군홧발로 짓밟고 2천여 스님과 불교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고문한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난사입니다.

올해로 '10·27법난'이 자행된 지 어느덧 3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27법난'의 아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10·27법난 제3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불기2561(2017)년 10월 27일(금) 오후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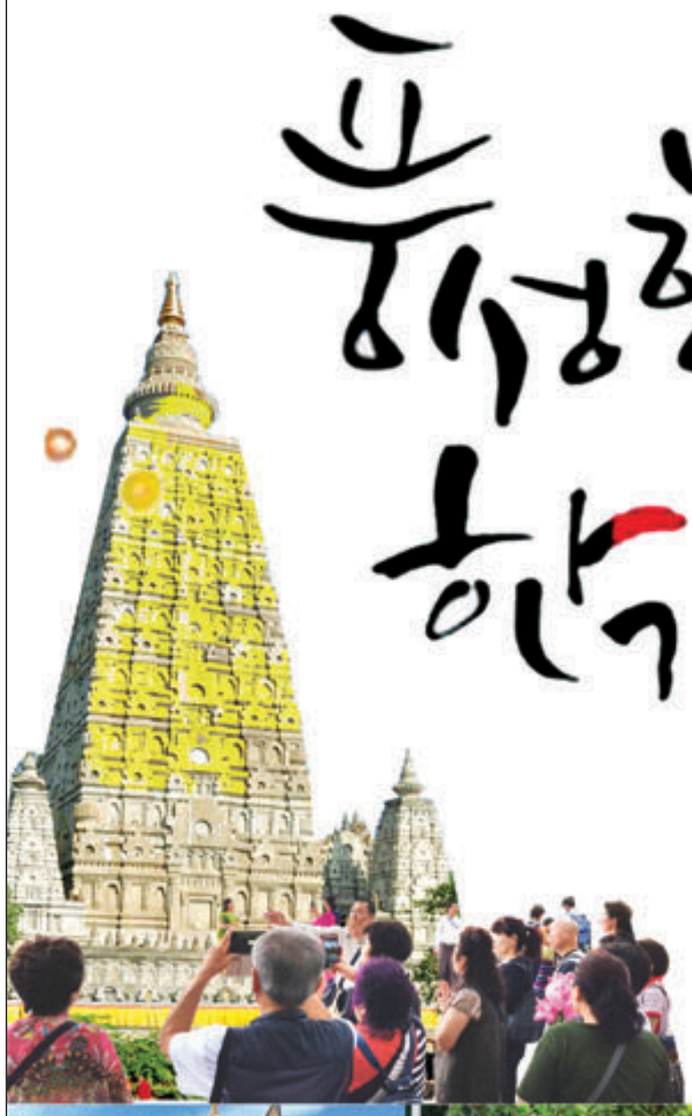
장소 | 전통문화예술공연장(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문의 | 02)2011-182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대한불교조계종 총 무 원

미얀마 인도 부탄 스리랑카 중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그외

"불교성지순례 20년 " 마하연여행사는 앞으로도 영원한
순례자의 도반이 되겠습니다. - 임직원 일동 올림 -



▶ 2018년 인도 8대성지 순례객 집중모객中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8 대불광빌딩2층
조계사 일주문 맞은편에 있습니다.

묵은 껍질 벗고 새롭게 태어나자

"누구나 세간을 살면서 목표를 갖고 오르기 위한 지혜는 있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 내려오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를 내려놓으라. 일상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좌절하고 고통에 직면할 때 단 3일이라도 좋으니 무문관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보라"

〈백담사 무문관 수행일기〉 출간한 정휴 스님





백담사 무문관 일기
글 정휴 스님
우리출판사 펴냄
1만 6천원

2010년 11월 19일, 조계종 7선 종회의원을 지낸 불교계 대표적 문장가인 정휴 스님(사진 · 금강산 영은암 회주)은 모든 소임을 내려놓고 홀연히 백담사 무문관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다. 과거 스님의 화려한 조계종단의 정치적 이력 때문에 당시 주변에서는 의아해 했다. 기득권층에 주로 안주했던 스님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간혹 물어보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독한(?) 결심은 바로 편안하고 반복된 일상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였다. 묵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진통을 치루면서, 그동안 몸에 밴 낡은 인습의 틀을 털어내고자 했다.

한평 남짓한 독방서 노구를 이끌고 3개월간 치열히 정진한 구도 역정과 선적인 사유가 최고의 문사(文士)다운 수려한 필체로 버무려져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제목은 〈백담사 무문관 일기〉이다. 책을 읽다보면 오랜 종단 정치 인생에도 선교(禪敎)를 두루 섭렵한 수행자다운 내적 성찰의 진한 깨달음이 물씬 전해진다.

오랜 개인적 인연 덕분에 3개월간의 무문관 정진 직후 백담사서 만난 정휴 스님은 당시에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이나 인습을 타파하고 새 것을 추구할 깨어 있는 정신이 필요하며, 그동안 몸과 마음으로 익혀온 그릇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정신은 새 것을 추구할 때 삶은 향상되고 심화됐다. 솔직히 말해 나는 반복된 일상 속에 갇혀 있었고 몸에 익힌 그릇된 습관과 인습으로 인해 정체돼 있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나를 정신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고는 끝없는 나락으로 침몰될 것 같았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자기 안에 있다. 자기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도 마음이고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선적(禪的) 가치가 필요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방(禪房)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즉 내적 성찰과 자기를 탐구하는 화두를 들고 비본질적인 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없음을 저자는 깨달은 것이었다. 그가 바로 추운 겨울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백담의 산속으로 들어간 연유다.

〈백담사 무문관 일기〉는 한마디로 한 수행자의 치열한 자기 성찰을 담아낸 구도 일기이다. 오랜 사유의 시간들이 응축돼 꿈틀거리는 선(禪)의 예지와 직관을 담담히 풀어낸 글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젊은 시절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등단해 선의 향기가 가득 묻어나는 시와 소설로 일군의 독자층을 거느렸고, 불교계 신문과 방송의 주요 요직을 맡으며 불조(佛祖)의 혜명을 밝혔다. 또한 한때는 종단 정치에 관여하며 조계종단의 안정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그렇게 한바탕 꿈같은 세월을 풍미한 스님은 이제 금강산 자락 조그만 암자에 터를 잡고 더 큰 세상을 향한 비상을 꿈꾼다.

정휴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틀과 인식 속에 갇혀서 깨달음을 논의하는 선은 대중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내 자신이 육십 평생을 살면서 익혀온 나쁜 습관과 또 그 것을 통해 몸에 배인 타성을 걷어내야 나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 속에는 스님이 몸소 무문관서 깨달은 진귀한 사유들로 가득하다. "사유가 깊어지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채우고 싶어 하는 곳을 비워야 소중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숭고한 정신은 고통 속에서 다듬어 지고 깨달음은 번뇌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정진이 길어지고 응시가 깊어지자 안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밝아지자, 내 안에 닦아도 사라지지 않은 어둠이 있고 언젠가 밖으로 뛰쳐나올 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 등등. 선적 체험과 삶에 대한 깊은 응시를 풀어내서 일까? 서문부터 책장이 녹록히 넘어가지 않는다. 타성에 젖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스님의 선기어린 글들은 정진을 하게 만드는 발심수행장과 같다.



저자가 동안거를 보낸 백담사 무금선원 무문관 전경.

저자, 2010년 11월 19일 무문관 입실
새로운 변화 위해선 禪的 가치가 중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자기안에 존재
"내면 통로 열면 자성 근저 이르게 해"



백담사 계곡에 펼쳐진 돌탑의 위용이 신비롭다.

정휴 스님은 "누구나 세간을 살면서 목표를 갖고 오르기 위한 지혜는 있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 내려오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며 한 번쯤은 스스로를 내려놓으라"고 권했다. 이어 "일상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좌절하고 고통에 직면할 때 단 3일이라도 좋으니 무문관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보라"고 조언한다.

책 속에서 저자가 소개한 무문관 일상은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이어서 인지 자못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온다. 정휴 스님은 책 속에서 "무문관은 감옥의 독방과 다름없었다. 거기다가 출입하는 문을 잠가 놓기 때문에 나갈 곳이 없다. 독방에 갇혀 있지만 사색의 공간은 무한대로 확대됐다. 그만큼 나를 살피는 시간이 많아졌다. 3개월 동안 나를 엿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을 통해 보고 듣는 대상이 없어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었다. 먼저 나름대로 시간표를 만들어 3개월동안 실행하기로 했다. 시간표는 좌선 시간에 많이 할애했고, 화두는 '시심마(是甚麽)'이다. 즉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묻는 근원적 물음이었다"고 회고한다. 창문 한쪽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오전 11시에 들어오는 한끼의 공양만 먹고 버틴 석달동안 저자는 어떤 깨달음에 천착했을까? 그 솔직한 심경도 책 속 말미에 피력했다. "차 한잔을 놓고 3개월간 참구한 것들을 점검했다. 사유는 깊어졌지만 밑바닥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새로운 의심이 화두가 되어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지닌 정신이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물건이라면 노력과 수련, 그리고 연마를 통해 만들고 싶은 완제품을 만들지만 정신이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제품과 달리 완성될 수 없다. 정신 세계의 완성이란 우리가 두고두고 추구할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거듭거듭 새롭게 형성되고 태어나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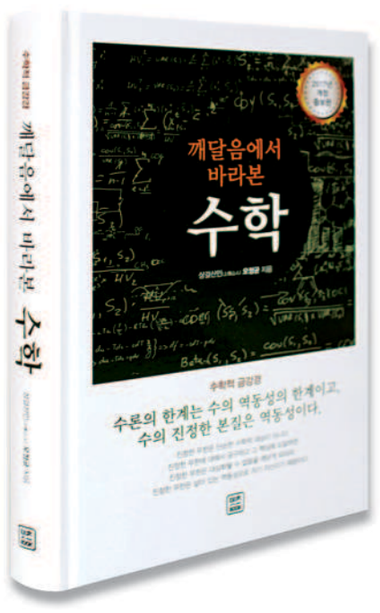
그래서 저자는 삶의 마지막 자락서 거듭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금강산 자락의 영은암에 다시 가부좌를 틀었다. 모든 인식의 틀을 내던져 버리고 '이 뭣고'만 남긴 것이다. 일년이 만년이 되는 화두일념까지는 아니라 해도 알음알이를 내려놓고 보니, 바람이 모든 것을 쓸고 간 듯한 빈터가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책 속에 감초처럼 간간히 소개된 국내외 선사들의 자유로운 열반에서 저자는 완성된 수행자의 삶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책 속에 소개된 선사들의 비범한 일화는 글 읽는 맛을 돋워주는 애피타이저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 가령 황벽선사에게 불교의 근본 대의를 묻고 또 물으며 하루 20봉씩 3일간 60봉의 몽둥이 세례를 당한 임제선사, 보리수 나뭇잎을 잡고 선채로 입적하며 입체적인 열반을 보여준 승가란제 등의 일화는 독자들의 안목과 선적 지평을 넓혀주는 또다른 선적 체험이다. 이 책은 이렇듯 한 수행자의 자기 관조와 성찰, 생사를 초월해 수행자의 삶을 완성한 대선사들의 정신세계까지도 선적 필체로 잔잔히 담고 있다. 오색물감을 풀어놓은 단풍이 뚝뚝 떨어질 곧 다가올 이 가을, 저자의 바람대로 장소가 어디든 단 3일만이라도 무문관 수행을 훌쩍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낡은 구습의 틀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정휴(正休) 스님**은?
밀양 표충사로 동진 출가한 스님은 용주사 강원서 전관응 강백에게 능엄경과 기신론을 배우고, 청암사에서 강고봉 강백에게 선적 낭만과 푸른 직관을 배우며 사교과를 수료했다. 이후 청암사, 원주 구룡사, 구미 해운사, 서울 호압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금강산 화암사 경내에 '영은암'이란 토굴을 짓고 운수(雲水)로 머물고 있다. 약력으로는 직지사, 동화사, 불국사, 법주사 강사를 역임했고, 불교신문 편집국장 및 주간 주필, 사장 · 법보신문 주간 주필 및 사장 · 불교방송 초대 방송 상무를 역임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과 종회의원 7선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1971년 조선일보 시조 부문에 당선되어 문단 데뷔한 이래 불교계 대표적 문사로 평가받고 있다.

깨달음에서 바라본 수학



수학적 금강경

상걸산인(上傑山人) 오정균 지음
428쪽 | 크기 159 × 231 × 28㎜ | 725g | 렛츠북

수론의 한계는 수의 역동성의 한계이고, 수의 진정한 본질은 역동성이다.

진정한 무한에 대해서 궁구하고 그 핵심에 도달하면 진정한 무한은 대상화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리라.

※ 전국 서점 및 온라인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진정한 무한은 살아 있는 역동성으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즉, 무한은 빛깔도 냄새도 형체도 없지만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일체법의 근원인 자성(自性)으로서 그 **역동적인 주체성(주인공)**을 드러내고야 마는 것이다.

진정한 무한을 단순히 수학적 대상으로 찾아 들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도출된 수학적 실상에 대해서 겸허히 통찰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체성을 발견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주체성이야말로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무한을 집합으로 다룬 칸토어는 미적분에서 무한, 극한을 다룬 뉴턴이나 라이프니츠와 마찬가지로 끝내 그 무한의 대상화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깨달음에서 바라본 양자역학



양자역학, 중관, 유식

상걸산인(上傑山人) 오정균 지음
228쪽 | 크기 158 × 232 × 17㎜ | 441g | 렛츠북

모든 학문이 극한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주관적인 인식 주체인 역동성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 전국 서점 및 온라인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파동성에 부합하는 **인식 주관의 역동성(주인공)**을 물질을 포함한 일체법의 궁극적 기저(基底)로 삼을 때 모든 수학적 패러독스와 모순, 양자역학적 딜레마 등은 자연스럽게 해명(解明)될 수 있다.

불가의 깨침의 극한 자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유 · 무의 변증법적 부정의 자리에서도 드러나는 것 역시 불생불멸이고 무아인 인식 주관의 역동성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9.27~2017.10.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눈에 보이는 형상에 얽매이지 말라”


송파당 대선 진영. 조선후기,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진영에 깃든 선사의 삶과 사상

해제 · 로담 정안, 해설 이용윤 | 조계종출판사 펴냄 | 3만원

이 책은 월지국서 가야에 와 불교를 전파했다고 전해지는 장유 스님을 비롯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 대표 고승인 나옹 혜근, 벽송 지엄, 사명 유정 등 모두 100여 선사들의 진영과 찬문을 소개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진영과 찬문을 소개하고 해설해 놓은 작업은 근래 찾아보기 힘든 시도이다. 또한 전국 사찰에 모셔진 진영과 찬문을 그러모아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제와 해설을 집필한 저자들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의 찬문 해제를 맡은 정안 스님은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진영 해설을 맡은 이용윤은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미술실 실장을 역임한 불교 관련 문화재(불교미술) 전문가이다. 이 두 저자의 콜라보레이션은 우리가 단순히 초상화로서만 이해한 진영에 대한 시각을 불교적 · 역사적 맥락으로 한 차원 높인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승려 문도들의 돈독한 정과 지금까지 계승돼 온 선사들의 사상을 느낄 수 있고, 진영과 찬문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선사들의 투철한 수행 정신과 자비 넘치는 삶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아직도 여여히 펼쳐지는 선사들의 정신을 한 폭의 그림과 짧은 글 한 편으로 그려보는 일은 많은 독자들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설고 새로운 방식의 이해를 돕는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모르고 지나친 여러 스님들의 진영에 한 번 더 눈길을 돌릴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의 고찰(古刹)을 방문할 때면 우리는 곧잘 옛 스님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를 발견하곤 한다. 그것을 우리는 ‘진영(眞影)’이라 부른다. 이는 선사(先師)의 공덕을 기리며 후대의 스님들이 조성한 초상화로서, 문도 제자들이나 불교 신도들은 진영에 향을 공양하기도 하고, 기일(忌日)이면 진영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 진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의 초상화, 특히 서양의 초상화와 다른 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아주 단순하게는 불가(佛家)의 고승대덕(高僧大德)을 그렸다는 대상의 차이를 들 수 있지만, 특기할만한 점은 주인공을 얼마나 흡사하게 그렸냐보다는 대상의 정신, 혹은 사상을 얼마나 잘 표현했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이다.

진영으로 만나는 100명의 선사들

선사들의 투철한 수행정신 담겨

찬문, 선사의 행적 또는 업적 기록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찬문(讚文)이다. 찬문은 진영의 주인공인 선사의 생전 인상이나 행적, 또는 사상이나 업적 등을 기록한 짧은 글이다. 이 글을 쓴 찬자는 매우 다양한데, 선사의 제자이거나 잘 알고 지낸 문인 · 사대부들 · 추사 김정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더러는 주인공 본인이 스스로 찬문(自讚)을 쓰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진영에 나타난 선사들의 모습이나 인상을, 그리고 찬문에 기록된 행적 등을 곱씹어 보며 진영의 주인공이 살아생전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정신으로 수행해 왔는지 형상을 넘어선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이 중 자찬, 즉 진영의 주인공 스스로가 쓴 찬문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 얽매이지 말 것을 당부하는 특징이 있다.

“형상은 본래 거짓, 그림자가 어찌 참 모습이겠는가/용모가 존재하나 용모가 아니고 몸을 떠나니 곧 몸이네/멀리 와서 모습 알기 어렵고 갈 곳을 찾지만 인연이 없다/낱낱이 부인하고 누구를 볼거나”

위의 찬문은 오암 의민 스님의 자찬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에 얽매이지 말고, 참모습을 찾으라는 선사의 당부는 곧 불교가 지향하는 정신과도 연결된다. 현재 확인 가능한 찬문은 진영의 한켠에 쓰여 있거나 별도의 현판에 새겨지지만, 문집과 같은 책에 엮여 있기도 하며, 더러는 없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찬문을 통해 선사의 생전 모습과 정신을 좀 더 생생히 떠올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짧은 글일지라도 매우 가치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왜 열심히 사는데도 삶은 이토록 괴로울까?”



심리학자의 인생실험실

장현갑 지음 | 불광 펴냄 | 1만 6천원

고통의 바다서 침몰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헤엄치며 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 〈심리학자의 인생 실험실〉에 바로 그 해답이 담겨 있다. 이 책은 50년 넘게 뇌와 마음의 관계를 연구한 노(老) 심리학자의 자기 고백을 담은 인생치유서다. 평생 치열히 연구한 뇌와 마음의 과학적인 연관성을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제 삶에 투영해, 괴로움의 실체를 밝히고 인생 고해를 건너는 삶의 기술을 증명해냈다.

“나는 혈육을 잃었지만, 용기를 얻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다.”

〈심리학자의 인생 실험실〉의 저자는 한국 심리학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장현갑 교수이다. 국내 뇌심리학의 선구자로서 세계 3대 인명사전(마르퀴즈 후즈 후, 영국국제인명센터, 미국인명협회)에 모두 등재된 세계적인 석학이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가톨릭 의대 외래교수, 한국심리학회 회장, 한국명상학회 명예회장, 한국통합의학회 고문 등 그의 이력을 잠깐만 들춰봐도 국내 심리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학자로서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남모를 고통이 숨겨져 있다. 어린 시절 공부만 잘하던 왕따에 외톨이였으며, 이로 인한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과 의존성 성격장애를 앓았다. 또한 지병인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시달리며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무엇보다 끔찍한 사건은 미국 애리조나대 객원교수로 있을 때 일어났다.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들이 미국에 왔다. 차를 빌려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아비규환의 현장서 사랑하던 아내와 딸이 사망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잊고 싶은 인생 경험을 솔직하게 토로한다. 이유는 단 하나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삶의 지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 그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스런 현실에 직면해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그 핵심이 바로 인생의 괴로움을 저절로 덜어내는 뇌와 마음의 자기치료다. 긍정적인 생각이 뇌의 구조를 바꾸고, 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면 괴로움의 본질인 번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챙김 명상’으로의 안내다. 우리는 ‘명상’을 떠올리면 흔히 따분하고 지루할 것이며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명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큰 오류다. 이미 명상은 심리치료 분야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지 오래다. 미국 내 심리치료 전문가의 40% 이상이 마음챙김 명상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년 미국에서 ‘마음챙김’을 주제로 발표된 학술논문이 1,000여 편에 이른다. 이렇듯 명상은 현대의 신경과학, 의학 그리고 심리학의 핫이슈이자 주도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2014년 2월 3일자 〈타임(Time)〉지는 서양에서의 명상 열풍 현상을 반영해, ‘마음챙김 혁신(Mindful Revolution)’이라는 제목으로 표지 기사를 실었다. 또한 미국심리학회 공식기관지인 〈American Psychologist(미국 심리학자)〉 2015년 10월호에서는 명상이 과학적 검증을 넘어 ‘마음챙김 명상 수련이 바로 심신치료가 된 시대’라고 언급한다. 이처럼 존 카밧진에 의해 도입된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을 둔 스트레스 완화(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임상의료 분야를 비롯해 학교, 산업체, 군사작전 등으로 급속하게 보급된다.

이렇듯 명상은 심신치료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약물치료와 같은 부작용이 없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다. 게다가 짧은 기간의 명상으로도 학습, 기억, 정서조절, 자비심, 인지기능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능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과 구조를 크게 개선시킨다. 가장 값싸고 손쉬운 치료법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것이다. 〈심리학자의 인생 실험실〉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자가 자신의 풍부한 인생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기구원으로서의 명상을 이야기 한다는 점이다. 또한 76년간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응어리진 고통에 맞서 터득한 지혜, 그리고 이 순간에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이들에게 들려주는 진짜 조언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부록으로는 저자가 직접 개발한 ‘한국형 MBSR(K-MBSR)’ 명상 안내문을 실었다. 일단 시도해보라. 내가 아는 세상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의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음입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大恭의 난亂

*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한다.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전화 02) 2004-8200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총판 법우당 031-945-4533



저 절로 가는 길
⑳ 불갑사에서 용천사 가는 길

그리움 꽃무릇이 길을 장엄하다

용천사 천불전 앞에 가득 핀 꽃무릇, 생사해탈에 이르지 못하는 중생의 안타까움과 불법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듯 붉게 길과 사찰을 장엄하고 있다.

심야버스가 법성포공용터미널에 닿았을 때, 꽃무릇은 지고 있었다. 그 지는 꽃무릇이라도 보려면 법성포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한 시간은 족히 가야 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공연히 마음이 갈급했다. 꽃 때문에, 그것도 지는 꽃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다니. 태어나서 처음 겪는 감정에 버스 유리창을 비춘 얼굴에서 슬며시 웃음이 떠올랐다.

꽃무릇의 개화기는 9월 중순이나 말부터이다. 그때부터 보름 동안 꽃으로서 세상이라는 무대에 선다. 왜 그런지 다른 꽃에 비해 공연시간이 짧은 편이다. 그 시기가 지나면 화장을 지운 여배우처럼 시들하게 꽃대 위에 서 있다가 마침내 땅에 지고 만다. 늦가을 꽃대까지 쓰러진 꽃무릇을 보면 과연 저것이 꽃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잎은 그때 난다. 하필이면 꽃 진 자리를 더듬듯 바닥에 엎드린 자세여서 애처롭기 짝이 없다.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 '꽃은 잎을 보지 못하고 잎은 꽃을 보지 못한다' 는 상사화의 게송을 만들어 냈다.

불갑사(佛甲寺)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법성포를 둘러보았다.

법성포에 사는 사람들은 법성포의 법은 불교를, 성은 인도에서 온 성인 마라난타를 의미한다고 믿고 있다. 마라난타가 중국의 동진을 거쳐 우리나라로 올 때 법성포에 상륙하여 불갑사를 짓고, 나주에서는 불회사를 지은 후 서울로 갔다면서 불교의 해로유입설을 설명한다.

불갑사에 도착하니 듣던 대로 꽃은 절정을 지나고 있었다. 한마디로 잔치 끝물이었으나 흥건한 기운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었다. 꽃무릇은 절집 담장 밑에 자란다더니 불갑사 담장 곁에도 수십 송이가 지각생처럼 손을 들고 서 있다.

불갑사는 동트는 하늘에서 돌아앉아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서방정토를 그리는 아미타 사상이 그 밑그림이지만, 서해를 건너 백제로 온 마라난


불갑산 호숫가에 핀 꽃무릇

마라난타 그리는 사찰
그리움 꽃 상사화 피다
낙조와 월출, 생사 논해

타를 기리는 마음에서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도 전한다. 마라난타가 지은 첫 절이라 해서 부처 불(佛)에 으뜸 갑(甲)을 붙였지만 정작 이 절의 창건주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돌계단을 오르면 천왕문과 만나는데, 그 안에서 목조 사천왕상이 눈을 부릅뜨고 서 있다. 전북 흥덕 연기사에 있던 사천왕을 고종 7년에 설두선사가 불갑사에 옮겨온 걸작이다.

보물인 대웅전과 고려 공민왕 8년에 이달충이 세운 진각국사비가 경내 볼거리이고, 절 밖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참식나무가 눈길을 끈다. 녹나무과에 속하는 난대 수종으로 가을이면 암꽃과 수꽃이 각각 다른 그루에서 피는 이 특이한 나무에도 상사화 못지않은 애틋한 전설이 오래전부터 내려온다.

역시 인도 이야기였다. 신라의 경운 스님이 인도에 유학 갔을 때였다. 스님의 학식과 외모에 인도 공주 진희수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공주는 스님을 사모한 나머지 평민이 입고 다니는 사리를 입고 몰래 절을 찾기도 했다. 스님 또한 진희수를 사랑해서 모시로 짠 가사와 미영으로 물들인 천을 선물했다. 그러나 공주의 부왕이 두 사람의 사랑을 극구 반대하여 경운스님을 추방하기에 이르렀다. 진희수는 서럽게 울면서 스님을 배웅했다. 고국으로 떠나는 경운스님에게 진희수는 내세의 인연을 기약하는 증표로 작은 참식나무가 든 화분을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불갑사로 돌아온 경운 스님은 참식나무를 정성껏 심었다. 세월이 흘러 노승이 된 경운 스님은 참식나무 그늘에 앉아 '같이 있어도 같이하지 못하듯, 함께하지 않아도 같이 있음' 을 되뇌면서 열반에 들었다. 그러자 스님이 좌정했던 참식나무에서 꽃이 피어올랐다.

"당신이 주신 가사로 사리를 만들었어요. 그걸 입은 나를 보러 언제 이곳에 오시나요?"

마치 진희수가 꽃으로 피어나서 스님에게 읊조리는 것 같았다. 그때 사람들은 스님의 열반송과 홀연히 꽃이 핀 이유를 알지 못했다.

불갑사 참식나무 숲은 내세에서의 사랑이 결실을 본 듯 무성하다. 꽃무릇 보러 왔다가 참식나무 숲에 붙들린 자리에 서서 나는 그리움에 대해 생각했다. 문득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본 어느 결혼정보회사의 홍보문구가 기억났다. '누구나 결혼할 수 있으나 누구나 잘할 수는 없다' 나는 한동안 멍했었다. '잘' 이란 부사어에 함축된 극도의 이기심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경운 스님과 진희수 사이의 그리움을 우리 사회에 복원할 방도는 없을까.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간격을 출신과 학력과 재력과 용모로 압축해버리는 요즘 같은 정보화 세상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생산력으로 그리움을 작동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갑사에서 용천사 가는길의 꽃무릇

참식나무 숲을 나오면서 나는 등산화 끈을 조였다. 불갑산 연실봉 516m에 올랐다가 용천사로 내려갈 요량이었다. 동백골로 들어서는 길에 커다란 담수호가 고여 있었다. 카메라를 멘 사람들이 허리를 굽힌 채 호숫가를 거닐었다. 삼각대를 받쳐놓고 카메라 렌즈로 땅을 탐사하는 무리도 보였다. 물안개 핀 호수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지는 시간이었다. 물안개가 걷히는 물가에서 늦게 피어난 꽃무릇이 그림자를 호수에 드리운 채 물속에서도 빨간 꽃을 피워냈다. 그 곁에서 몇몇 사람들이 신명이 나서 꽃무릇을 찍어댔다.

사진작가들 곁에서 나 또한 꽃무릇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다. 군락을 이루지 않고 호숫가에 불쑥 피어난 꽃무릇은 저 홀로 요염했다. 이파리 한 장 없는 꽃대 위에서 꽃잎은 추어올린 속눈썹처럼 여러 갈래로 뻗었는데, 그 한가운데서 가늘고 구부러진 바늘들인 양 꽃술이 떨고 있었다. 화려한 외양과 달리 향내를 거의 풍기지 않는 꽃이었다.

호수를 따라난 길은 동백골로 이어지고, 거기서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올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무릇이 덮고도 남았을 산기슭이 푸른색으로 착 가라앉아 있었다. 정상이 가까운 산기슭에서 불갑사의 산내 암자인 해불암이 나타났다. 낙조를 전망하는 곳으로 유명한 암자이다. 칠산(七山)바다를 붉은빛으로 물들이며 지는 해를 이곳 사람들은 우리나라 으뜸으로 친다.

내리막길인 구수재 능선을 사이에 두고 불갑사와 용천사가 있다. 구수재는 두 절의 스님들이 오가는 길로, 영광 불갑산과 함평 모악산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개이다.

꽃무릇을 다시 만난 곳은 서해안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라는 용천사였다. 대웅전 층계 앞에 있는 용천(龍泉)이라는 샘에서 유래한 절 이름이다. 이 샘에 용이 살다가 승천했다. 현재의 사찰은 6·25전쟁 때 불에 타 중창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몇 차례의 전란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있다. 정유재란의 화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선조 때 중창했고, 인조와 숙종 때도 중건과 중수를 거듭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용천사 석등과 해시계가 볼거리지만 용천사 역시 꽃무릇 피는 시기에 절정기를 맞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다. 부처는 이 애별리고(愛別離苦)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라고 했다. 불교에서 우연은 없다. 어떤 우연한 만남도 인연 때문에 생기는데, 가혹하게도 이 세상에서 맺어진 모든 인연은 헤어짐이란 필연을 겪어야 한다. 꽃무릇이나 참식나무에 대한 연민은 궁극적으로 만남과 헤어짐 사이에 가로놓인 그리움이다.



- 걷는길 : 불갑사 – 동백골 – 해불암 – 구수재 – 용봉 – 용천사
- 거리와 시간 : 6km 정도, 5시간 예상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가야기획에서 만드는 도서출판 하이의 불교서적은
꼭 챙겨두어야 할, 전문성을 가진 책입니다!"

작명록은 (한국 278성씨 , 성씨별로 완벽하게 작명한 이름 6,065,726개를 음양, 음오행,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수리오행에 모두 맞게 지은 이름을 사주에 맞게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新사주연구
사주 공부에 "꼭" 필요한책 | 저자:지안스님



프랭크 영어 이름
*작명록(上 · 下) 구입시 무료 증정합니다.



작명록(上 · 下)
완벽하게 좋은 이름짓는 책 | 저자:지안스님


불교 의식 시리즈(1~5)
불교 의식에 "꼭" 필요한 책 | 저자:지안스님

가야기획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삼송테크노밸리 B동 433호 | 전화 02)379-2400 | 팩스 02)379-2401 | gaya2400@nate.com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수행의 비결

수행하지 않으면서 수행의 비결을 늘 찾습니다.

수행의 비결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지 않으면서 수행의 전략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여기 이 순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자비심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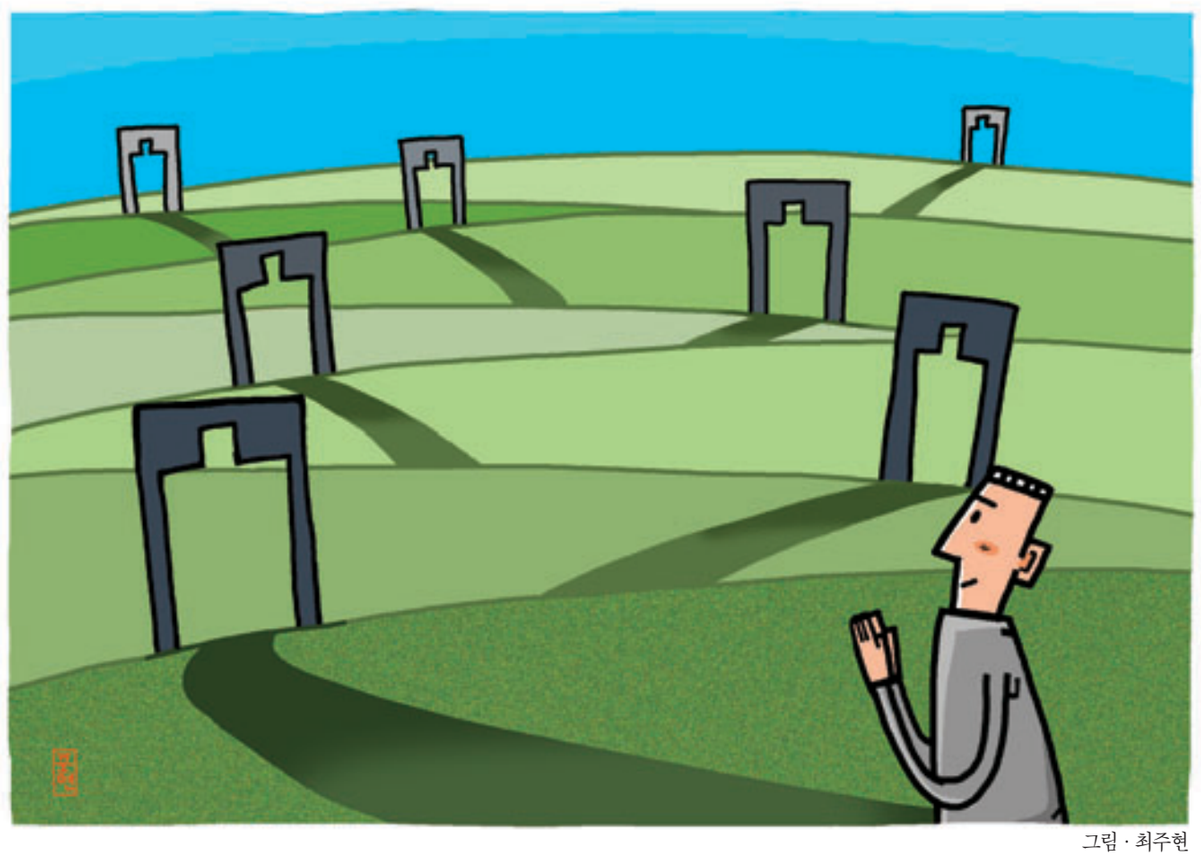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연 스님의 '青春 사이다'

⑦ 사는 일이 즐거워야

고통 지긋지긋하면 '으쓱' 그리고 '털썩'

법정 스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라는 글에서 "너무 긴장하지 마라. 너무 긴장하면 탄력을 잃게 되고 한결 같이 꾸준히 나아가기도 어렵다. 사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스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느낌을 갖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삶에서는 즐거움보다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체개고(一切皆苦, 일체의 모든 것이 고통)라고 하셨다. 인생은 고해(苦海,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반(涅槃)' 이라는 궁극적 행복을 말씀하셨다. 일체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解脫)의 경지, 그리고 그곳에서 느끼는 고요하고 적막한 평화로움과 행복감. 즉, 열반적정(涅槃寂靜)이다.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고통과 행복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얼마나 극적으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란 말인가!

진리의 말씀, 〈법구경(法句經)〉 제15장 안녕품(安寧品)에서는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다. 친구 사이에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과 의지함이니 즐거움의 최상은 열반이니라' 고 설하면서 열반의 세계를 찬탄한다. 또한 대승불교의 교리와 실천행이 설파되어 있는 대표경전인 〈대반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의 좋은 방편, 크신 지혜로 우리의 어두운 무명 끊어 주시니 떠오르는 아침 햇빛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온 세계 비추는 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지혜와 방편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마음이 강퍅해지고 힘들고 외로울 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반항 섞인 마음이 든 적도 있었다. 그만큼 삶이 온통 고통이고 아픔일 때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나 보다. 그래도 힘들 때면 '고생(苦生) 끝에 낙(樂)이 온다' 는 고진감래(苦盡甘來)의 명구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주문이 힘이 되었다.

이제 지긋지긋한 이 고통, 그것에 대한 실체를 파헤쳐보자. 우리의 삶이 원래부터 고통스럽다는 진리를 고성제(苦聖諦)라고 한다. 만일 부처님께서 쓰디쓴 고통과 괴로움의 진리만 가르쳐 주셨다면 위대한 스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인 집제(集諦), 모든 고통은 업과 번뇌, 갈애와 집착에서 비롯됐다는 통찰을 밝혀 주셨다. 또한 그에 대한 해법으로 멸제(滅諦)와 도제(道諦)를 가르쳐 주셨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팔정도(八正道)다.

그렇다면 고통이라는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기쁨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긴장감을 푸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는 삶에서 필요이상의 긴장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과도한 학업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에서 불편함과 거리낌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직되기 시작한다.

> "
> **삶은 즐거움보다 근심 걱정 많아**
> **부처님이 '일채개고' 라 하신 이유**
> **기쁨 · 행복 유지하려면 긴장 풀 것**
> **호흡하며 어깨 '으쓱 털썩' 효과적**
> "

일단 긴장감을 내려놓는 방법에는 '힘 빼기' 가 있다. 지금 이 순간, 힘을 빼 보는 것이다. 손끝과 발끝에서 먼저 힘을 빼보자. 몸이 편안하게 이완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음도 평온해진다. 여기에 호흡을 추가하면 더욱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으쓱' 하고 올린다.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털썩' 하고 어깨를 내려놓으면 된다. 대혜 선사께서는 이렇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는 이치를 '생력처(省力處)가 득력처(得力處)' 라고 설하였다. 즉, 힘을 얻는 자리는 바로 힘을 내려놓는 자리라는 뜻이다.

둘째, 호흡을 통해 활력을 찾고 감각을 깨우는 방법이다. 간단히 많은 양의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 된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양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긴다. 더 나아가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가 팽창하고 코로 숨을 내쉴 때 복부가 수축하도록 해본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복식호흡을 해주면 몸이 편안해 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완이 진행된다.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점차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고통이 사라지면 곧 행복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의 장(氣場=Energy Field)을 느낄 수도 있다. 손바닥을 마찰한 후에 두 손을 가슴 높이에서 마주보게 한다. 힘을 빼고 손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의 장을 느껴본다. 공중에 두 손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만 남겨둔다. 널널한 공간 속에 그 여유로움을 느껴본다. 이유 없는 기쁨의 출렁임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음은 평화롭고 잔잔한 즐거움이 솟구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긴장감이 풀리는데, 결국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 진다.

몇 해 전,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마음' 6부작 중 5번째 주제가 '편안한 마음이 좋습니다' 였다. 거기에서 출산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명상이 소개되었다. 호흡에 집중하면 저절로 이완이 된다. 깊은 이완 상태로 유도함으로써 고통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인간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역량을 선천적으로 타고 났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스스로를 이완시켜서 스트레스의 해로움에 대항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 곧 이완반응"이라고 하면서 중요성을 역설했다.

몸을 이완시킴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마음이 곧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이렇듯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다. 우리의 몸을 먼저 살피면서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 보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칠곡에 핀 우담바라

귀의 삼보 하옵고

금오산, 지리산 자락에서 출가 사문의 길을 걸어온 소납 도오입니다.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원력으로 천불사 가람 수행 중, 앞마당 소나무에서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핀다' 는 '우담바라꽃' 을 친견하게 되어, 이는 금륜 명왕이 나타난다는 경탄스러운 마음에서 스님, 사부대중에게 회향, 공덕 자비 보살행의 기회로 대 마음으로 알려드리오니 친견하시고 소원 성취이루시길 바립니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 태평1길 71(구, 북삼읍 보손리 823-12)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천 불 사

주지 도오 합장 (010-6769-9627)

찾아오시는 길
경북고속도로 남김천IC에서 5분거리



Good

"재가불자 중심, 사람 냄새 나는 신문"

"비판 정신과 온라인 속보 강화해야"

Bad

'현대불교신문'하면 신행 · 포교 중심, 폭넓은 인터뷰 기사가 강점이라는 데 필진들이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인터뷰이(Interviewee)를 더욱 폭넓게 섭외해야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필진들은 현대불교신문의 '비판성'과 '속보성'에 대한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언론으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본연의 기능을 지키고, 주간지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속보를 통해 온라인 기사의 활성화를 이끌어야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문이다.

창간23주년, 역대 필진들이 말하는 '현대불교'

역사만큼 현재를 잘 대변하는 것은 없을 터. 현대불교의 역사와 함께한 역대 필진들은 그만큼 현대불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현대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창간23주년을 맞아 역대 필진들을 통해 현대불교신문이 나아가야할 길을 짚어봤다.

신성민 · 박아름 기자

"비판적 시각 아직도 부족하다"

김호석 화백

"현대불교신문은 색이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띠지 않는 점은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뻔히 잘못된 것'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려해선 안되겠지요. 비판적 시각을 갖추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현실과 시대, 역사가 있습니다."

2015년 '화폭 속의 선지식'을 연재한 김호석 화백은 현대불교신문에 대해 날카롭고도 단호한 평가를 남겼다.

김 화백은 "논조가 애매모호하면 도태될 것이다. '이것은 민감하니 기사화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해 보도 ·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스스로 안위만 생각한다면 역사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없다"면서 "현대불교신문이 불교 내 온 목소리를 담아 보수와 진보가 논쟁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 화백은 현대불교신문의 연재에 대해서는 호평했다. 대중성이 없더라도 전문적이고 특화된 내용의 연재와 필자는 과감히 싣는다는 평가다.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까지 수용하며 지면을 할애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필자 개인의 자유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화백은 현대불교신문이 23주년을 기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를 당부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강화 필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현대불교는 한 종단에 국한되기보다 다양한 종단과 신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인간애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지 창간 때부터 함께 하며, 2016년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를 연재하기도 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현대불교신문의 다양한 신행 · 수행 이야기에 주목했다. 종단을 초월해 불교 본연의 따뜻함과 진중함을 전달하는데 집중하는 매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소장은 "처음부터 성장과정을 지켜봤기에 남다른 애정이 있다. 지면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인터넷 신문의 구성도 매우 혁신됐다"면서 "특히 지면에서 행간의 여유로움 덕분에 가독력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소장은 '문화 콘텐츠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미래 사회의 관심과 방향은 이미 '문화시대'로 진입했으며, 이에 발맞춰 가는 참신한 기사가 발굴됐으면 한다는 것.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지면 할애가 강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불교문화는 역사성, 다양성, 친근성 등 다양한 면에서 이미 경쟁력이 검증됐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 단계를 적극적으로 돕길 바랍니다."

"불교미디어계 퍼스트 무버 역할"

도연 스님

현재 '도연 스님의 청춘사이다'를 연재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도연 스님이 "현대불교는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불교미디어계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이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도연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이 항상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제가 연재하고 있어서 그런지 현대불교신문의 콘텐츠는 대부분 좋습니다. 기사가 식상하지 않고, 특히 '만다라' 코너가 매우 훌륭합니다. 제목도 전반적으로 센스 있게 잘 짓는 것 같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웃음)"

스님은 특히 일반사회 및 정치적인 기사와 관련한 의견도 냈다.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고 모두 아우르는 것 같다"는 스님은 앞으로도 영향력 있는 기사를 많이 써줄 것을 당부했다.

도연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에 대해 애정 어린 비판도 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책 소개 코너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스님은 "타 교계언론 홈페이지는 메인에 책 소개 코너가 배치돼 있는데, 현대불교는 없다. 출판 관련 기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가불자 신행 · 수행 전달 돋보여"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법스님

"현대불교신문을 떠올리면 '재가불자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단, 스님들의 이야기보다는 불자들의 신행 · 수행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2013년 '불교와 미학'을 연재하고, 본지 필진으로 활동 중인 명법 스님은 "현대불교만이 가진 자유롭고 활동적인 느낌이 있다"면서 "사실 일선 사찰이나 재가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들의 목소리와 삶을 자주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명법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칭찬하기도 했다. 기자들이 인터뷰이(interviewee)의 의도를 분석해 글로 전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이에 따라 신뢰도도 높아진다는 평가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유명인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실으면 좋을 것 같다. 저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는다면 더욱 균형감 갖춘 언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포교지'로서 현대불교신문의 역할에 대해 주문했다. 스님은 "신행 · 포교지로서 현대불교신문에 대한 기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읽을거리 풍부한것 최대 강점"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전직 필진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읽을거리가 많아서 좋습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사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 내음'이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열독하게 됩니다."

지난해 '불모열전'을 연재한 최선일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위원은 본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불교미술을 다루는 연구자인 만큼 평소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윤범모 교수의 불도 기행' 연재를 즐겨본다는 그는 다양한 읽을거리가 현대불교의 강점이라고 했다.

"일본인을 섭외해서 장기 연재를 하는 기획력에 놀랐습니다. 또한 도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담긴 와이드 인터뷰를 통해서는 스스로 감탄하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현대불교에게 아쉬운 점은 '신속한 보도 전달력'을 꼽았다. "주간신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 판을 별도로 운영하는 만큼 신속한 보도가 조금 더 잘 이뤄졌으면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현대불교에 바라는 점은 '다름'과 '다양성'입니다. 어느 한 편이 아닌 중도적 견지에서 조화롭게 불교계 사안들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현대불교신문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최선일 위원


김호석 화백


명법 스님

도연 스님


박동춘 소장

"제주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하며 바른 불법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태고종 前 종정 덕암 큰스님 탄신 104주년



추모 다례재 및
원융포럼 이사회 봉행



세계불교도대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불교 법맥에 큰 획을 그으신 덕암 큰스님(전 태고종 종정)의 탄신 104주년을 맞아 추모 다례재를 제주 사부대중과 함께 봉행하고자 합니다.
한국불교의 큰 횃불이셨던 스님의 공덕과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이날 태고종 승가청정 위한 모임 원융포럼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근현대사 한국불교 법맥을 짚는 세미나 개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원융포럼 이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 좋은날, 유주무주 고혼 및 4·3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고혼 천도 입재를 봉행하며 도내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기쁨을 모두 나누는 소중한 인연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덕암문도회장·원융포럼 회장 도학 혜일 합장

고혼천도 기도 : 입재 10월 16일(음 8월 27일), 회향 10월 22일(음 9월 3일)
4·3 학살터였던 정방폭포 희생자를 비롯해 4·3영가들의 원혼을 달래는 천도재도 함께 봉행합니다

일시 : 불기 2561(2017년) 10월 16일 (월)
장소 : 정방사 경내

덕암 큰스님 탄신 104주년 추모 다례재
시간 : 오전 10시
주최 : 덕암문도회
연락처 : 010-5219-7021(회장), 010-2456-5003(재무)
법사 혜학 스님(울산 망해사 주지)

원융포럼 이사회
시간 : 오후 4시
주최 : 원융포럼
연락처 : 010-5219-7021(회장)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로12번길 15-3 문의 : 064)762-2775

현대불교신문

"23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의 불성을 믿어라

재행신사법어



그림. 계상

한마음선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앙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131 (도천동)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석수동) Tel.031-470-3100 Fax.031-470-3116